

다정



00 단종 이야기

- **People** : 조선 제6대 왕 단종 012
- **Festival** : 제58회 단종문화제 014
- **Essay**
 - 전주이씨가 읽은 자규시 036
 - 영월X단종 이야기 [인플루언서] 038
- **Space**
 - 세계유산 장릉 058
 - 관풍헌 060
 - 청령포 061
 - 단종유배길 062
- **Culture**
 - 다시 보고 싶은 공연, 장릉 낮도깨비 068
 - 실경뮤지컬, 단종의 숨결을 담다 072



01

그대에게로 가는 길, 단종X정순왕후

· 단종, 별이 되다 [별벌퍼레이드 ‘천상의 만남’]	076
· 제1회 단종의 미식제, 궁중음식경연대회	080
· 조선시대 국장재현행사 ‘단종국장’	084
· 단종의 넋을 위로하다	
- 단종제향(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영월 단종제례)	090
- 부사행렬	094
· 자주동천여인, 정순왕후선발대회	096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칠줄다리기	101
· 단종대왕 진혼의식, 영산대재	103
· 단종 곁을 지킨 세 충신	106
· 외줄 위에 펼쳐진 흥	107
· 국악명인전	
- 판소리로 풀어낸 역사	108
- 고운소리로 전통을 잇다	109
· 단종예술제	110
· 모두가 함께 뛰어놀며 기억한 단종의 역사	114
· 추억을 전하는 단종문화제 체험	
- 장릉체험	116
- 단청체험	119
- 영월캐릭터 체험	120
· 단종문화제 학술행사	
- 단종문화제 영월학 학술심포지엄	122
- 한국문인협회 수필의 날 기념 포럼	156



02

달달영월_단종_문화

부록, 제58회 단종문화제 수상작

- 전국 일반백일장, 학생백일장 252
- 학생 사생대회 371
- 관광상품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391

- 제1회 전국궁도대회 : 영월군 궁도협회 200
- 전통혼례 : 영월향교 203
- 충절만세골든벨 : 효문화원 206
- 마을화합건강체조경연대회 : 영월 중앙로터리 208
- 서포터즈 4기 : 동네방네기자단 210
- 지역예술인전시 212
- '단종을 기억합니다' 단종체험프로그램 : 마을선생님협의회 216
- 영월전통음식체험 : 한국생활개선 영월군연합회 220
- 여우내마켓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2
- 청년마켓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 224
- 영월농부마켓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228
- 가족이 행복한 영월 : 영월군가족센터 230
- 커피향으로 나누는 발달장애인과의 사랑 : 꿈&꿈 232
- 우리지역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 경제 : 영월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234
- 이려다 다 썩어~ 간부야, 찻술 챙겨! 영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36
- 우리 함께 안전해요! 안전체험장 :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238
- 영월에 가면 박물관이 보여요 : (사)영월박물관협회 240
- 영월 고향사랑기부제 : 영월군 기획감사실 242
- 영월로 농촌유학가자! : 영월군 교육체육과 243
- 우리가 그리는 그린 영월, 함께 만들어가요 : 영월군자원봉사센터 244
- 유령을 닮은 자연과 휴식이 있는 리조트 : 동강시스타 246
- 영월군 브랜드 서체, 영월서체 248

제58회 단종문화제

결과자료집 제1호

「단종」

첫 기록

OPEN NOTE .

여는 글 ①

영월의 자랑이자 역사·문화 축제의 정수인 2025 제58회 단종문화제가 지난 4월25일부터 ~ 4월27일까지 사흘간 개최되어 성료되었다. 축제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제58회 단종문화제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주최·주관으로 세계문화유산 영월 장릉, 동강둔치, 관풍헌 등에서 '그대에게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펼쳐졌다.

단종문화제 주요행사인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영월 단종제례(향), 조선시대 국장 재현행사인 단종국장 행렬, 단종예술제, 마을화합건강체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채워졌고, 2023년 지정된 무형유산 칠줄다리기 경연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주민참여형 별벌퍼레이드 행사와 궁중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문화제를 느낄 수 있었다. 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애환과 충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이다, 이번 행사는 단종의 애절한 사연과 충절을 되새기며, 우리 영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영월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하듯, 제58회 단종문화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영월군은 오는 2027년에는 단종 승하 570년과 함께 단종문화제 6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세계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현재, 글로벌 역사 체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단종문화제 60주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국제 문화도시 영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후년 단종문화제 60주년을 맞아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영월군수

최병석



제58회 단종문화제
결과자료집 제1호
「단종」

첫 기록
OPEN NOTE .

여는 글 ②

제58회 단종문화제 성과자료집 “단종” 발간에 즈음하여

제58회 단종문화제가 좋은 일기 속에서 역대 최고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차 없는 축제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축제의 장이 되었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시설배치로 짜임새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주무대 외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행사장을 넓게 사용하는 전략도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참여자 취향에 맞는 선택적 체험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았다.

단종문화제는 장릉, 청령포, 관풍헌, 동강둔치, 보덕사, 창절사, 시가지 등 영월전역이 주무대가 되기에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였다. 특히 차 없는 축제장 운영으로 군민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동참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으로 참여해주시고, 입소문을 통하여 영월을 알리고, 일가 친척을 초대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신 군민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명서 영월군수님과 선주현 영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 차례의 교통통제에도 불평불만 없이 따라주시는 군민여러분들, 안전한 축제를 위하여 도와주신 경찰서 및 소방서, 이장협의회와 여성단체협의회, 부녀회 등 많은 단체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제 2년 후면 단종 6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계기로 단종문화제가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제58회 단종문화제 성과자료집 “단종”을 발간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홍보에 들어가고자 한다.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목적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성과자료집이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행사별 영상물도 조속히 정리하여 6월부터는 제59회와 제60회 단종문화제 홍보에 나설 것이다.

어린 단종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비운에 돌아가셨지만 영월군민들로 인하여 지금은 어느 왕보다도 행복한 단종대왕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생전에 그리도 그리워하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던 정순왕후의 사랑과 행복이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제58회 단종문화제에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신 기관과 단체 대표님들과의 총평회, 재단내부의 평가회, 영월군청의 각 부서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하고 새로운 아이টে모 도출할 것이다. 단종대왕이 승하하신지 570년이 되는 제60회 단종문화제는 또 다른 60년을 준비하는 축제의 서막을 열 것이다. 이 평가자료집을 보시고 느끼시는 점이나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단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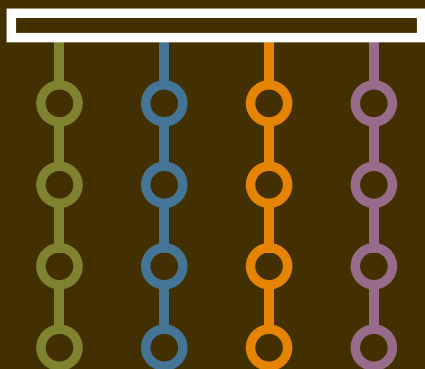
박상희



단종

—

이야기



조선 제6대 왕

단종

단종은 조선전기 제6대 왕이다. 재위기간은 1452년~1455년이다.

문종이 승하하자 12세에 왕위에 올랐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대신들과 세종의 부탁을 받은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측근으로 보좌했다.

즉위 2년차에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찬탈을 도모하여 측근들을 주살하고 실권을 장악하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다.

단종복위 사건이 나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이후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죽음을 맞았다. 1681년(숙종7)에 노산대군으로 추봉되고 1698년에 복위되었다.

능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이다.



[정부표준영정 제100호 단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제작
- 단종역사관 소장

단종문화제 BI 메뉴얼
Brand identification standard manual



심볼마크



단종문화제로고는 타이포그래피와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에서 모티브를 딴 디자인을 결합하여 워드마크형식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심플하게 재해석한 면류관형상에 표현된 다채로운 색은 단종문화제의 다양한 문화체험, 즐길거리, 또한 영월에서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만끽하는 축제의 장임을 상징합니다.



전용색상

PANTONE Black 4 C

PANTONE 718C

PANTONE Orange 5763 C

PANTONE 5405C

PANTONE 5135C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사용금지 규정

로고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 할 경우 로고가 본래 지니고 있는 축제 이미지나 커뮤니케이션을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측의 예시된 예를 참고해 로고의 형태를 왜곡시키거나 로고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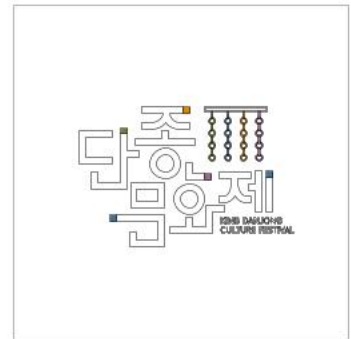
* 주의 : Positive Type와 Negative Type 은 별도로 작업되었습니다.
Positive Type 의 컬러 로고는 절대 어두운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Negative Type 의 컬러 로고 또한 화이트 배경에 쓰지 않습니다.
단색 로고 또한 컬러 로고를 단색 변형하여 쓰면 안됩니다.



⊘ 규정되어있지 않은 컬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 임의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경우



⊘ 어두운 배경의 로고를 화이트 배경에 사용하는 경우



⊘ 유사한 색상, 명도, 채도의 바탕에 사용하는 경우. 원본 로고를 어두운 바탕에 사용하는 경우



⊘ 테두리 효과를 활용하는 경우



⊘ 임의로 로고타입에 라인을 적용시켜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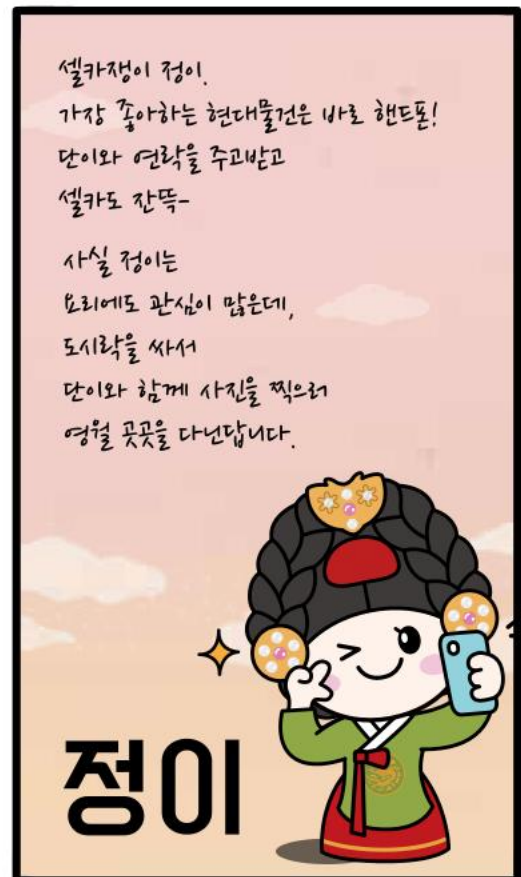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단이와 정이

국내 대표 전통역사문화축제인 단종문화축제를 대표하는 캐릭터 단이와 정이.
전통의상을 입고 단종과 정순왕후가 되어 여러가지 이벤트를 즐기면서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도와준다.



■ 단이

Color Guide



Basic Action

Turn around



■ 정이

Color Guide



Basic Action

Turn around



Various Expression



참줄다리기 대회



퍼레이드



인사하는 단종



셀카찍는 정이



문화제 체험



단종국장



정순왕후 선발대회



궁중음식 특별전



단종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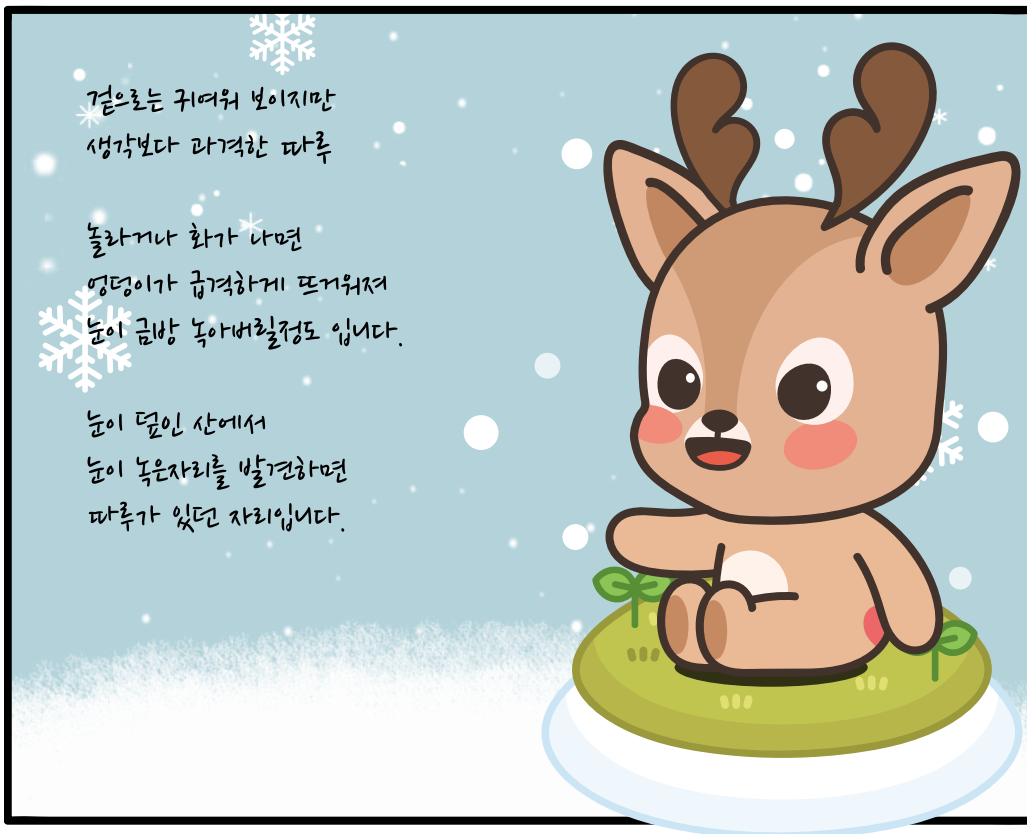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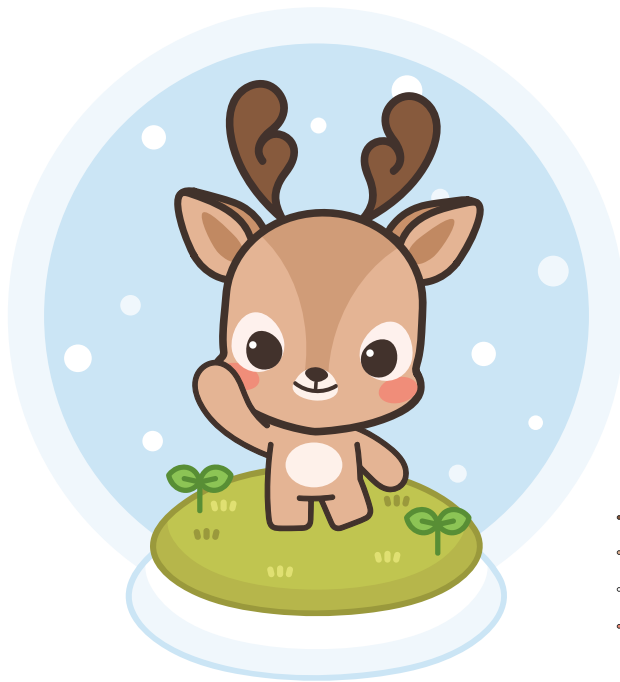
따루

국내 대표 전통역사문화축제인 단종문화축제를 대표하는 캐릭터 따루.

마음이 따뜻한 노루라 하여 따루라고 불린다.

단종의능 근처 마을, 능말에서 살고 있으며 겨울에 종종 눈이 녹은자리를 보면 따루가 왔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 곡선형 뿔: 설화 속 신비로운 느낌
- 나뭇잎 모양 귀: 눈이 쌓이지 않는 푸른 잎
- 하트 모양 엉덩이: 엉덩이가 뜨거운 포근한 노루
-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포근하고 귀여운 느낌

Color Guide

42322c

895b3d

c68b63

eab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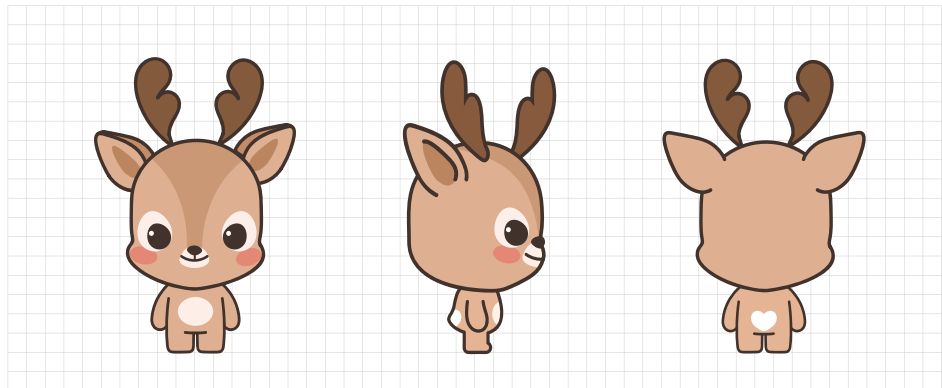
ff917b

fff2eb

fffffff

Basic Action

Turn around



Various Expression



안녕



최고



화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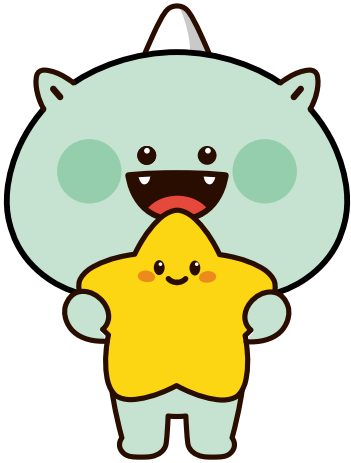
사랑해



즐거워



설화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개비와 버리

국내 대표 전통역사문화축제인 단종문화축제를 대표하는 캐릭터 개비와 버리.





Color Guide

C:27 M:0 Y:23 K:0



C:46 M:0 Y:40 K:0



C:1 M:85 Y:71 K:0



C:8 M:30 Y:76 K:19



C:12 M:55 Y:92 K: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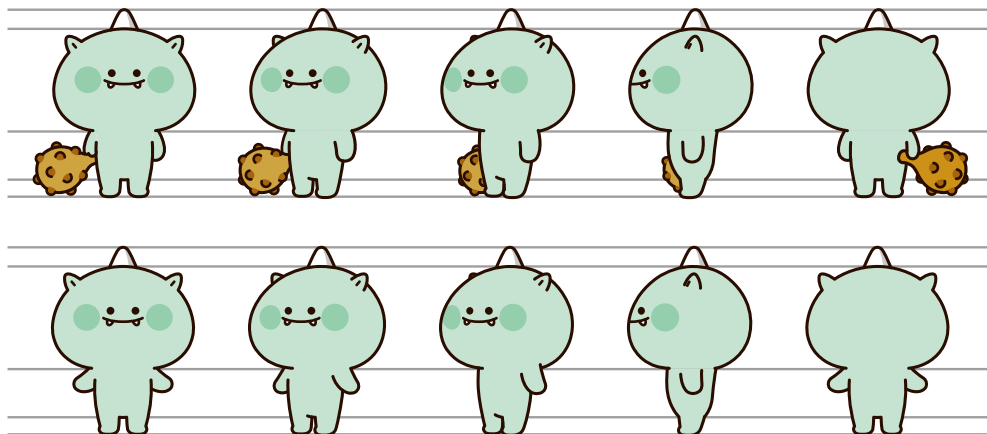


C:50 M:70 Y:80 K:84



Basic Action

Turn around



Various Expression



우산 쓴 깨비



우는 깨비



안녕



이얏!



신난 깨비



감따러 가자!



나 예뻐?



안녕 난 깨비야



시루떡 먹자



강충



벼리와 깨비



슈퍼 깨비



야~~~호



내가 깨비!

세계유산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동강둔치
관풍헌



제58호

단초롱마을축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5
04.25(금)
04.27(일)



영월의 4월 봄 날,

그대에게로 가는 길

영월의 봄은 단종 애사(哀史)와 함께 물든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만리타향에 유배되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조선 6대 임금 단종. 그의 마지막 발자취가 서린 영월군에선 매년 4월, 단종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개최된다.



단종제(端宗祭)는 조선제 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이다. 지난 1967년에 “단종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단종이 유배됐던 청령포와 숨을 거둔 관풍헌, 영원한 안식에 든 장릉이 자리 잡은 영월에 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추모제였다. 단종의 복위를 꿈꾸다 목숨을 잃거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수습한 충신들의 넋도 함께 기렸다. 영월이 ‘충절(忠節)의 고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이후 단종제는 규모와 내실을 더해갔고, 1990년(제24회) 단종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른다. 오랜 세월 지키고 계승해 온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성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더한 단종문화제는 추모제를 축제로 승화한 대표적 역사·문화 축제로 평가받는다.

단종문화제는 평창, 정선 주민들은 물론 인근 경상북도, 충청북도 군수들까지 참배를 하였고 조선시대 국장재현, 칠줄다리기, 가장행렬,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원래 조선조 6대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추방, 다시 서인으로 되어 1457년 17세의 어린 나이로 한 많고 애달픈 일생을 마친 역사와 그 사적을 추모하고 기린다. 올해로 58회째를 맞는 단종문화제는 4월 25~27일 사흘간 동강둔치와 장릉 등 영월읍 일원에서 ‘그대에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17세의 어린나이에 생이별하고 애달프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 국모에서 노비로 전락한 채 남편인 단종을 그리워하며 64년을 홀로 살아낸 정순왕후의 안타까운 사랑이 오늘에 되살아나 뒤늦게나마 이뤄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축제 첫날인 25일 오후 3~5시 관풍헌과 주 행사장인 동강둔치를 잇는 영월읍 중심가에선 천상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별별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전문 공연팀과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해 타악과 무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더한 화려한 행렬을 선보였다. 별별퍼레이드는 60주년 대비 프로그램으로 주민주도로 시작된 단종문화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단종문화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대표 킬러콘텐츠이다. 퍼레이드에 이어 저물녘 동강둔치에서는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개최된다. 오후 6시, 웅장한 합창단의 개막공연과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정순왕후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플래시몹 공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개막식 종료 후 오후 7시 가수 진성, 홍잠언, 신승태, 박서진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우며 개막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가수들이 떠난 무대 위 밤하늘은 '드론실증 도시' 영월이 자랑하는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장식했다.

오후 2시 동강둔치 주 무대에선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열린다. 정순왕후의 강인한 정신과 순애보를 기리고, 이에 걸맞은 현대적 여성상을 모색하는 행사로 기존 여성들로 구성된 후보자 중 올해의 정순왕후는 남양주시 ‘장윤이’, 권빈은 영월군 ‘신담비’, 김빈은 대구광 역시 ‘윤민정’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정순왕후는 영월군 홍보 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가무형유산38호 궁중음식문화재단과 함께 제58회 단종문화제 궁중음식경연대회 제1회 단종의 미식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창작 궁중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미식체험을 제공했다.





이튿날 오전 8시부터 관풍헌에서 부사행렬이 출발하여 오전 10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릉에서 진행되는 ‘단종 제향’과 연결되었다.

‘단종제향’은 단종의 넋을 위로하며,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제(충신 268인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를 함께 올리는 유일한 제향이다. 노릉(노산군의 묘, 장릉)은 1516년(중종11)에 와서야 중종(中宗)의 어명에 따라 기일(忌日)인 10월 24일과 사명절(四名節)인 설, 단오, 추석, 동지에 제물을 준비하여 영월군수로 하여금 제향(祭享)을 올리고 6명의 묘지기를 둘 것을 하명하였다. 1541년(중종36)에 영월군수 박충원이 단종의 현몽에 의해 묘를 수축하고 제물을 차린 후 제사를 지내고, 1698년(숙종24)부터 시작하여 단종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22호로 등재됐다. 전통 육일무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종묘 제례악 연주 등 조선 왕실 제례를 참관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당일 오후 3시에는 충절사에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월의 3충신인 엄흥도, 정사증, 추익한의 영정을 모시고 넋을 기리는 3충신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26일 오후 6시 시작되는 ‘단종국장’은
영월에서만 볼 수 있는 단종문화제의
상징적 행사이다. 단종은 조선의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지만,
승하한지 550년만인 2007년부터 영월
주민들의 손으로 국장을 꾸려와 의미
를 더한다. 고증에 근거해 재현한 조선
국장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더한 야간
행렬이 관풍헌을 출발해 장릉까지 이
어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7일, 지역주민의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영월의 대표 민속행사인 침줄다리기가 펼쳐졌다. 2023년도 무형유산 제37호로 등재된 침줄다리기는 조선 숙종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당고사를 지낸 후 침줄을 수거하고 준비해둔 침줄을 동강을 중심으로 동편(영월문화예술회관)과 서편(천하장사의 집)으로 나뉜 주민들이 길이 70m, 무게 6톤의 초대형 침줄을 당겨 승부를 겨룬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가수 설운도, 황유찬, 허민영 등이 출연하며 폐막콘서트로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전주이씨가 읽은 자규시

인류는 카인의 후예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약탈자와 잔혹한 군주들이 자신의 후손을 남겨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남아 가문을 유지하는 이들은 먼 과거의 죄악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던 전주 이씨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영월에 귀촌 하여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어 단종 왕릉인 장릉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죄책감을 품고 슬픈 역사를 노래합니다.

전주이씨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한이라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당나라에서 귀화한 자손이라는 설과 세력이 약해진 경주이씨에서 분리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한 이후 전주를 중심으로 정착한 토착 성씨였음은 분명합니다. 전주이씨 항렬표를 보면 현재 120여 개로 나뉜 방대한 전주이씨 중 대표적인 파로는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파와 효령대군파,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파와 밀성군파, 정종의 아들 덕천군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주이씨의 족보를 만든 진정한 종시조는 이성계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집안 족보 정리를 맡아서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족보가 권력 다툼과 피로 얼룩져 있는데,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문의 시조는 효령대군입니다. 그는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이었습니다. 조선 초 왕자의 난은 전주이씨 족보를 단순하게 하였고, 세종대왕의 후손은 희박하게 남아 광평대군파 외에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병약하여 일찍 돌아가신 문종과 그 아들인 단종의 비극으로 대가 끊기고, 단종을 살해하고 절대군주가 되었던 세조도 야사처럼 저주로 인한 까닭인지 말년의 고통과 더불어 자식들이 모두 요절하여 대가 끊기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자부하는 왕족 전주이씨는 태종의 잔혹한 역사에 기반하는 셈입니다. 성경 속 카인과 아벨의 역사와 다름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단종의 이야기를 후손의 입장으로 쓴다는 것은 큰 부담과 죄책감을 동반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크게 문과 무로 나뉘는데, 태종과 세조는 무인이었고 단종은 문인이었습니다. 단종은 역사 속 비운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그의 재능과 가능성이 보입니다. 세종은 많은 손자 중에서도 유독 단종을 아꼈고, 자신과 닮은 총명함과 문학

적 재능을 보았습니다. 세종이 단종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한 것에서도 할아버지의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단종에게 닥친 지독한 운명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땅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단종은 영월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월은 슬픔과 비극의 땅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5년 전 영월로 내려온 후 한동안은 비극만 바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자규시를 다시 읽었을 때 슬픔 속에 담긴 문학적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열일곱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문학성을 표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종은 두려움과 주변의 많은 죽음에도 책을 놓지 않았고, 조혼한 정순왕후를 깊이 사랑하며 의지해 유배지에서도 그 마음을 간직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월 사람들도 그의 따뜻한 성품과 덕을 사랑하고 존경했기에 충절을 다했습니다.

단종의 글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규시를 보면 단종이 가진 문학적 천재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절망 속에서의 바람들이 천재적으로 쓰여있어 소실된 다른 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비극과 슬픔을 넘어 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다시 읽어보길 권하며, 복잡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이 되어 버린 부끄러움을 자규시로 달래봅니다.

자규시(子規詩:조씨새 시) 단종(端宗)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에서 나와
외로운 몸 외딴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맨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헤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빛부터 달빛만 희고
떠 뿌린 듯 봄 물자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심 많은 내 귀만 홀로 듣는가.



공연연출가 이호영

#영월 #영월여행 #단종문화제
#제58회단종문화제

영월 가볼만한 곳

best5

영월 여행

단종문화제

글, 사진 인플루언서 흥청망청

안녕하세요
여행인플루언서흥청망청이에요 :)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조선 제 6대 임금인 단종의 역사가
많이 담긴 지역 강원 영월 가볼만한곳
여행을 다녀왔어요
영월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서
벌써 제 58회였던 단종문화제
영월 축제는 언제와도 즐거웠지만
이번에는 유독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요!
영월 여행 코스와 함께
단종문화제 후기 전해볼게요
오늘 소개하는
영월 가볼만한곳들은 모두
차 없이도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에요 :)
서울 출발 기준
무궁화호로는 약 2시간 30분,
버스로는 약 2시간 소요
영월역과 터미널이 가깝고
근처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뚜벅이 영월 여행 문제없더라고요 :)

영월 X 판중 이야기



영월관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26-3

입장료 무료, 일부 체험프로그램 유료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033-375-8986

- 무료 주차 가능
- 터미널에서 1번 버스 탑승 시
버스 탑승 15분 + 도보 10분 이내
- 푸드존 09:00 - 18:00
- 미디어전시관, 체험존 09:00 - 20:00
(금, 토요일만 오후 9시까지)

영월 폐광지역 통합관광을 위해 건립되어
복합문화공간처럼 영월의 기념품 구경,
카페, 영상 및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어요
야외 정원과 루프탑이 있어 쉼이
필요할 때 방문해 여유를 즐기기에
영월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면 실내에서
충분히 시간 보내기도 좋아요 :)





청령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

033-372-1240

무료 주차 가능

09:00 - 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맞은편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청령포>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고

머무르던 곳이 바로 청령포인데요.

삼면이 남한강으로 둘러싸여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야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1-2분이며

시간여유가 된다면 영월 가볼만한곳

섬처럼 고립된 청령포 내부까지

들러보시길 추천해요 :)

[배편 유료]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

경로 1,000원



라디오스타 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금강공원길 84-3

033-372-8123

무료 주차 가능

09:00 - 18: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대중교통 없이도 도보 20분이면 도착하는

힐링 여행 코스 <라디오스타 박물관>

실제 영화 '라디오스타'의 배경이었던 곳으로 옛 KBS 영월

방송국을 박물관으로 운영 중이에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실처럼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여행지예요





영월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32

033-372-8123

무료 주차 가능

라디오스타박물관에서
산책할 겸 내려왔더니
‘이렇게 뷰 좋은 곳이 있다고?’
싶었던 여행지 발견!
놀이터 시설이 있어 아이와 함께 해도 좋고,
금강정에서 내려다보는 동강과
장관이고 절경이었던 계족산, 태화산까지!
힐링 명소로 딱 이었던 영월 여행 코스





제58회 단종문화제

일정: 2025년 4월 25일(금)~ 27일(일)

장소: 동강둔치, 세계유산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관풍헌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 < 단종문화제 >

17세의 어린나이로 생이별하고 애달프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먹먹한 이야기지요..

64년을 홀로 지낸 정순왕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제로 하여 ‘그대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로 축제가 열렸어요

정순왕후 선발대회,

18세에 단종과 이별한 정순왕후의 진취적인 삶을 재조명하는 행사였는데요 정말 조선 시대에서 온 듯...

단아하고 정순왕후의 정신을 담아 진심으로 도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순왕후로 선발된 분은 심사 전부터

저도 ‘저분이겠다..’ 싶었는데 당선 되셔서

마음으로 같이 축하했습니다 ㅎㅎ!



1회 단종의 미식제,

주제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단종의 궁중음식 재현

04.25.(금)~26(토) 14:00~18:00 / 동강둔치

조선시대 궁중음식의 조리법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는 요리 공모전 궁중음식경연대회에 전국 단위 일반 참가자 이외에 학생부도 참가할 수 있었어요.

본격적인 개막식 행사는 4월 25일 금요일 18:00~19:00에 시작되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종과 정순황후가 우리 잘 만났으니 더는 슬퍼하지 말고 축제 잘 즐기다 가라는 듯한 메시지를 전해주는것 같아 정말 뭉클했어요

본격적으로 개막콘서트도 진행됐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핫할일인가요..ㅋㅋㅋ

작년 영월 여행 중에도 동강 뗏목축제를 방문했었는데 영월 축제는 절대 허투루하지 않으니 기대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축하공연에 이어 드론쇼 불꽃놀이도 진행되었는데 저는 버스 시간때문에 보지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아예 1박2일로 와야할까 싶어요 :)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게 바로 먹거리죠!

당일치기여행이라 이른 시간에 방문했을때는 한산~했는데 오후 5시쯤되니 발 디딜틈 없이 핫하더라고요..^^ 역시!

맛도 맛있지만 음식 가격들이 착해서 대만족했습니다. 원래라면 근처 맛집& 카페 찾아갈까 했는데 영월 가볼만한곳 단종문화제 축제현장 '동강 둔치' 에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단종문화제 축제 스팟 중 저는 터미널에서 도보 10분거리인 동강둔치만 방문했는데요.

단종국장, 단종제향, 정순왕후 선발대회, 침줄다리기, 체험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넘쳐나고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월축제이니 올해 놓친 분들은

내년 2026년 단종문화제와 함께 영월 여행 계획해 보세요.



#강원영월봄여행 #강원영월여행코스 #제58회단종문화제 #단종문화제 #영월봄축제
#영월여행코스 #강원영월축제

영월 단종문화제

여행 코스 추천



글, 사진 인플루언서 고운꿈

영월 X 단종 이야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은 계절, 역사, 문화, 민속 등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올봄에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58회 단종문화제가 열려 깊이 있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축제를 중심으로 다녀온 여행 코스를 베스트 5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 영월 여행의 관문, 영월역 앞

단종문화제의 고장답게 단아한 기와 처마를 얹은 영월역사는,

영월 여행의 상징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하트 모양의 나무와 그 앞의 초승달 조형물, 여행자를 맞이하는 쉼터 ‘트래블라운지’,

그리고 동강다슬기 해장국으로 시작하는 맛있는 한 끼까지, 영월 여행 코스는

이곳에서부터 활기차게 펼쳐진다.



강원 영월 여행코스 베스트 5

단종문화제 마지막 날(4월 27일)의 감동과 함께한
대표적인 강월 영월 코스를 베스트 5로 정리해본다.

① 단종문화제: 전통혼례

- 장소: 동강둔치 잔디밭

2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동강둔치 잔디밭에서 펼쳐진 전통혼례는, 두 쌍의 중장년 부부가 전통 혼례복을 갖춰 입고 치르는 리마인드 웨딩이라 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 사회자와 수모의 도움으로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이 행사는, 마지막 단계에 각 신랑신부님의 자녀분의 인사로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다.

이를 지켜본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듬해도 또 먼 훗날의 단종문화제에서도 다시금 관람하고 싶을 만큼 멋진 강원 영월 여행 코스였기에, 베스트 5로 추천 드리는 것이다.

또한, 본 행사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적지 않게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공연자들과 전통 복장을 입은 조형물, 그리고 꽃가마는 강원 영월 봄 여행 코스인 단종문화제의 역사적 의미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국경을 넘어 함께 즐기게 해주는 자랑스러운 매개체가 되었다.



② 침줄행렬: 침줄고사; 침줄다리기

- 서편(문화예술회관→동강둔치)
- 동편(천하장사의집→동강둔치)

강원 영월 여행 코스에서 단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할 수 있는 침줄행렬은, 서쪽의 문화예술회관과 동쪽의 천하장사의집에서 각각 출발해 동강둔치에서 만나 무려 4시간이나 펼쳐진 봄 축제였다.

이는 단종이 복위 된 속종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행사였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일시 중단되었다가, 단종문화제가 시작됨으로서 부활되었다. 길이 70m, 무게 6톤에 달하는 거대한 침줄은 편장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줄다리기 민속행사로서, 지역 주민 간의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며, 영월만의 대표적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현장의 분위기는 사진이나 글만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으며, 관람객들조차 저절로 끌려들 듯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이와 함께 펼쳐진 민속무용단의 공연과 침줄고사는 단종문화제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다. 이처럼 전통의 멋과 감동이 어우러진 단종문화제는 강원 영월 봄 여행 코스로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하다.



③ 선돌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 강원 영월군 영월읍
- 교통: 택시 13분 (13,500원)/ 자전거: 24분
- 입장료: 없음

봄철의 선돌을 영월 여행 코스에 넣은 건, 지난해 봄에 처음 그곳을 마주했을 때의 감동을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로를 마주보는 한 쌍의 선돌은 마치 선인이 머무는 듯한 기운을 풍긴다. ‘ㄱ’자로 굽은 강줄기와 마을의 넓은 밭을 배경으로 우뚝 서있는 이 바위는, ‘신선암’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소 흐린 날씨였지만, 초봄의 선돌은 익어가는 푸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탁 트인 전경 앞에 서자, 마치 선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 좋은 착각마저 들었다. 주차장에서 선돌까지 무장애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강월 영월 여행 코스는,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열린관광지이기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이다.

④ 청령포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 화~일 09:00~18:00(정기 휴무: 매주 월요일)
- 입장료: 성인 3.0/청소년/군인 2.5/어린이 2.0/ 경로 1.0
- 교통: 택시 5분(7천원)/ 자전거: 15분

‘단종애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청령포’는 1971년 12월 16일 강원 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된 이후, 2008년 12월 26일 명승으로 변경된 곳이다.

대인 기준 입장료 2천 원이 결코 아깝지 않은 영월 여행 코스다. 멋진 풍광은 물론, 협곡의 강물을 건너 들어간 청령포에서 마주하는 아픈 역사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만든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는 한쪽 면에 육륙봉의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는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을 즐긴 후, 영월 여행의 또 다른 코스로서 ‘영월 한반도지형’과 뗏목을 타고 도는 ‘선암마을’을 함께 돌아보는 코스로 추천드린다.

이 청령포의 관람 포인트는, 단종이 살았음을 말해주는 단묘유지비, 어가, 노산대,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쌓은 돌탑, 그리고 영조가 세운 금표비가 있다. 관풍헌에서 스러져간 17세 단종의 짧은 생을 떠올리며 찾은 청령포는, 슬픔을 간직한 유적지이면서도 아이와 함께 사색하며 걷기 좋은 곳이기때, 계절을 가리지 않고 늘 감동을 주는 영월의 대표 여행지로서 추천하고 싶다.



⑤ 라디오스타박물관

- 강원 영월군 금강공원길 84-3
- 화~일 09:00~18:00(정기 휴무: 매주 월요일)
- 입장료: 성인 3.0/ 어린이, 청소년/군인 2.0
- 교통: 자동차 4분(택시 5,400원)/ 도보 20분

레트로 감성의 영월 여행 코스로는 ‘라디오스타박물관’을 추천한다.

영월역에서 도보 20분, 단종문화제 행사장인 동강둔치에서는 약 2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두벽이 여행 코스로도 좋으며, 수려한 경관의 금강공원과 인접해 있어 봄날 소풍지로도 제격이다. 이 박물관은 과거 KBS 영월 방송국을 리모델링 한 곳으로서, 영화 라디오스타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내부에는 박중훈 등의 유명 배우들의 영화 출연 장면 감상과 함께 각 스튜디오에서는 주인공이 되어 체험할 수 있게 해 좋았기에 아이와 함께 단종문화제 관람 후 방문하기 좋은 영월 여행 코스다.



#영월여행 #역사여행 #지역축제 #강원도여행 #조선시대

단종문화제

영월

@마미뚜진

글, 사진 인플루언서 마미뚜진

아이와 함께 가볼만한 축제 중 하나, 바로 “단풍문화제”

2025년, 제58회를 맞이한 단풍문화제에 다녀왔어요.

열정과 감동이 가득했던 현장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단풍과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이 행사는 여러장소에서 진행됐는데요.

동강둔치, 세계유산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관동헌, 보덕사등 영월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메인행사장은 “동강둔치”

동강둔치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었어요. 둔치위에도주차공간이라현되어 차량방문도어렵지않았는데요.

인기가 많은 축제이다보니, 많이북적이지않을까? 라는생각을했지만 넓은 공간에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는 행사장 덕분에

아이들과오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온 가족이 즐기기에 더할나위없이 좋았던 축제였어요.

넓고 잘 정돈된 공간 덕분에 아이들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답니다.





축제가면 배아질 수 없는 먹거리
 신고센터가 있을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먹거리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월9개의읍,면부회에서
 운영된 먹거리 부스 다보니
 정성스러운 손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단종문화제는

가족, 친구, 연인 어누구와도
함께하기 좋은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생각나는
역사와 감성이 어우러진 뜻깊고
즐거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이 또 한번 기대되는
단종문화제

매년 파스한 봄이 오면
열리는 행사이니 꼭 한번 즐겨보세요!





특히,

개비노리터는 역사와 놀이가 결합된 체험형 행사였는데요.

OX퀴즈, 역사퀴즈쇼, 명랑운동회등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풍성했어요.

다른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함께하여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단종을 기억합니다”

영월단종역사스텝투어

스텝투어는

단종의 발자취를 체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스텝들을 다 모으면 상품도받고, 성취감까지 얻으니 즐거울 수 밖에 없겠죠?

어른인 저도 참여했어! 아이들 체험용인데 나도 재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꿀잼~!

스텝투어의 마지막은 엽서에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는다면 1년 뒤에 받아 볼 수 있는 마무리였는

1년뒤 내년 이맘 때즈음 받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오감이 즐거운 영월 여행

올해는 제1회 단종의 미식제도 열렸어요.
조선시대 궁중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특산품을 결합하여 펼쳐지는 요리경연시간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요리를 선보이고
심사까지 보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멋진 음식이 나올 때 마다의
관객분들의 탄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종의 미식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신청해보세요!



세계유산 장릉

조선6대 비운의 왕 단종, 여기 잠들다.



영월 시내 중심부에 있는 장릉은 조선 6대 왕인 단종(재위 1452~1455)이 잠든 곳으로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지만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3년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단종, 질곡 많은 어린 임금과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왕과 함께 울었던 영월 땅은 그의 생애 끝에서도 넓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영원한 휴식을 선사했다. 1970년 5월 26일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단종 역사관에는 단종의 탄생부터 17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기록한 사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 창덕궁을 지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에 이르기까지 단종의 유배 경로를 표시해둔 사진을 통해 단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청령포의 옛 사진과 유배를 갈 당시에 관리들과 단종의 모습을 재연해 놓은 밀납인형도 전시되어 있다. 단종 역사관을 나와서 길을 따라 걸으면 단종능으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관풍헌, 자규루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 영월 객사의 동헌 건물로서 태조 1년에 건립되었을 만큼 유서 깊은 건물이다.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되어 있다 흉수로 인해 이곳으로 옮겨 생활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조계종 보덕사에서 포교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월읍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관풍헌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문화재이다. 관풍헌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단층 맞배지붕이 이익공집으로 얹혀있다. 전면 3칸에는 사분합의 띠살문을 달았다. 관풍헌 객사 정문을 백운루 또는 관풍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풍헌 근처로 자규루 및 금강정이 있다.



국가지정명승

청령포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무르시던 곳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무르던 곳으로, 아름다운 송림이 뽕뽕이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나룻배를 이용하지는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으로 수려한 절경으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상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 해인 1456년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상왕복위의 움직임이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상왕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었다. 이후 첨지 중추원사 어득해가 거느리는 군졸 50인의 호위를 받으며 원주, 주천을 거쳐 이곳 청령포에 유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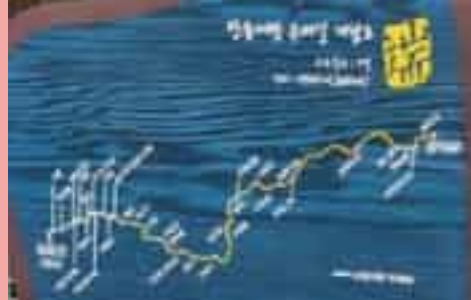
청령포는 동, 남, 북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는 육육봉이라 불리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 었으며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생활을 했고, 당시에는 이곳에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어 호장 엄흥도는 남몰래 밤이면 이곳을 찾아 문안을 드렸다고 전한다.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단종대왕 유배길

통곡의 길



통곡의 길이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옵고, 자신들의 마음을 둘 곳 없어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던 신하들의 가슴 먹먹했던 고통의 길이다.

솔치재

숙부인 세조(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1457년 삼복더위가 한창인 음력 6월 22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을 떠나 유배길에 올랐다. 단종의 유배길에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어득해(魚得海)와 군자정(軍資正) 김자행,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 등이 군졸 50명과 함께 행렬을 호위했다고 전해진다. 이곳은 단종 행렬이 유배지인 영월로 진입하는 첫 번째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솔치재는 치악산 자락 해발 650m에 자리한 고개로, 원주에 해당되는 신림면 황둔과 영월에 해당되는 주천면 신일리의 경계가 된다. 단종이 지나던 그 옛날에는 아름다리 소나무가 무성한 고개였다. 그래서 그 이름도 솔치고개(松峙)라 하였다. 고된 여정을 밟았을 단종에게 그나마 이 푸른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었으리라 믿어 본다.

어음정

단종은 서울을 떠난 지 닷새 만에 황둔에서 솔치고개를 넘어 영월 땅 주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고갯길을 넘은 단종은 주천에 있는 마을에 도착해 우물에서 물을 축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음정이다. 단종이 이곳을 지나간 때는 1457년 음력 6월이었으니, 긴 걸음을 옮기다 무더위를 피해 머물렀던 것이다. 이후 이곳 마을엔 물미라는 지명이 붙었고, 후세 사람들은 이 우물을 단종임금이 물을 축였다 하여 ‘御飲井(어음정)’이라 이름 붙였다. 넓디넓은 수풀에 오롯이 자리한 어음정은 어쩐지 서인이 된 단종의 깊은 한숨과 닮아있다.

역골

단종 유배행렬은 주천면에 이르러 신일리에 닿았다. 당시 신일리에는 보안도(保安道) 소속의 신흥역(新興驛)이 있었던 역골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신흥역(新興驛)은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영월, 평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단종의 발자취를 좇기 위해선 황둔(黃屯)과 신림(新林), 원주(原州)로 가는 402번 도로 오른쪽으로 난 옛길을 따르면 된다. 이곳은 그 옛날 보안도(保安道) 소속의 원주 신림역(新林驛)에서 치악산을 넘어오는 역로(驛路)였다. 역골은 현재까지도 금산 등과 함께 자연부락으로 남아있는데, 지금도 신흥동을 ‘역촌(驛村)’ 또는 ‘역골’이라 부른다. 그 이웃에는 공순원(公順院) 원터가 남아있는데, 이를 따라 이곳 자연부락의 명칭도 ‘공순원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말들이 풀을 뜯던 ‘마래미’와 말을 사육하기



위해 역(驛)에다 지급했던 ‘마위전(馬位田)’이 있었던 곳은 지금까지 ‘마평(馬坪)’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 마평 앞에는 큰 바위 하나가 서 있는데 이 바위를 ‘색시바위’라 부른다. 신일 4리에는 신흥동으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역골 서낭당이 자리해 있기도 하다. 청(淸)의 연호로 도광(道光) 26년(1821~1850)에 세워진 서낭당이 있었으나 1972년 수해로 파손되고 지금은 신목(神木)인 커다란 느릅나무 두 그루가 남아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날이면 이곳 느릅나무가 있는 서낭당 터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주천삼층석탑

주천강 나루터에 닿은 단종 유배행렬은 주천강을 건너 탑거리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곳 탑거리에는 주천삼층석탑이 자리해 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두 탑과 법흥사를 연결하면 일직선이 된다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석탑은 사찰 경내에 세운 탑이 아니라 사자산 흥령선원을 찾는 신도들을 위해 제천과 무릉리에 세운 2기의 석탑과 함께 안내를 위해 세운 석탑 중 하나로 전한다. 원래 현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m 정도 제방 안쪽 강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주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제방 위로 옮겨 세운 것이라고 한다. 당시 탑 안에는 불상이 있었지만 1990년대 초에 분실되었다.

단종의 길



침터

이렇게 단종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어갔다 하여 이곳을 느티나무 침터라 부르며, 공원 입구에는 ‘침터’라고 새긴 입석이 자리해 있다. 또 전설에 따르면, 한 노인이 이곳에서 주천 쪽 상부 250m 지점에 있는 샘터의 물을 단종에게 진상하였다고 하며, 샘터는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당시 임금에게 그늘을 내어주었던 느티나무는 세월이 흘러 자취를 감추었지만, 공원에는 저 멀리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긴 단종의 동상이 서 있어,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 송씨를 그리는 단종의 심경을 잠시나마 헤아려 볼 수 있다. 침터 안에는 단종이 어머니인 현덕왕후를 그리는 마음, 어린 시절을 보낸 궁궐, 단종의 충신들, 단종이 유금 되었던 청령포 등을 표현한 다양한 모형들이 조성되어 있다. 조선 중기 한시의 대가 이달(李達: 생몰년 미상)은 이곳 영월에서 단종을 생각하며 「영월 가는 길」이라는 시를 읊었다. ‘시름 품고서 나그네 멀리 다니다 보니 천 봉우리에 길이 험난하구나. 봄바람에 들려오는 두견 울음 괴롭고 서녘 해에 노릉(魯陵)은 차갑구나. 고을은 산

성과 이어지고 나무 정자는 물가를 눌러 섰는데, 타향에도 또한 봄빛이라. 어느 곳에서 만단 시름을 다스려 볼거나.’ 이는 이달이 나그네가 되어 여행 중 영월에서 읊은 시로, ‘서녘 해에 노릉이 차갑구나’에서 ‘노릉’은 단종 임금의 능인 ‘장릉’을 이른다. 이달의 자는 익지(益之), 호는 손곡(蓀谷)으로,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당시(唐詩)에 능하여 ‘삼당(三唐)’이라 일컬어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쓴 허균(許筠: 1569~1618)의 스승이었다. 단종은 이곳에서 떠나온 한양 쪽을 바라보며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 송씨가 그리워 더 시름이 컸을 것이다. 이곳 느티나무 아래 침터에서 쉬었다고 한들 그게 어디 쉰 것이었으랴. 유배지에 도착하면 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쌓여만 갔을 어린 단종의 깊은 시름이 이곳에 서려 있다.

충절의 길은 죽음으로써 단종 대왕을 향한 군신유의를 지키고자 했던 사육신과 금성대군, 불의에 부화뇌동할 수 없어 모든 관직을 버리고 임금과의 신의를 지켰던 생육신의 결연한 길로 영월군의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장소이다. 전 구간을 둘러면 원주 신림면 황둔리 솔치재에서 출발하여 영월 청령포로 이어지는 구간을 탐방해야 한다. 영월의 구간에서는 느티나무 심터, 군등치, 방울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군등치

군등치는 주천면 거안리에서 한반도면 신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느티나무 심터에서 출발한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바둑골 옆을 지나 깎아지른 벼랑길을 따라 올랐는데, 단종임금이 우뚝 솟은 고갯마루를 고생스럽게 넘었다 하여 ‘군등치(君登峙)’라 한다. 지금은 이 고개 옆으로 도로가 나 있지만 단종이 고개를 넘을 당시에는 도깨비들이 나올 만큼 무섭고 험준한 산길이었다. 깎아지른 벼랑길을 올라가면 아래는 깊은 물이 굽이치는 매우 험한 고개이다. 어린 단종은 깜깜한 앞날과도 같이 험하디험한 이 고개를 고생스럽게 넘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 단종이 군등치를 넘을 때 목 놓아 통곡한 명라곡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오고 있다.

방울재

명라곡을 지난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큰 고갯길을 오르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 큰 고갯길을 오르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넘기에 얼마나 힘든 고개였는지, 넘어가던 말들도 숨을 몰아쉬며 헐떡였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은 무심히도 내리쬘고 유배행렬은 걸음걸음 거친 숨소리만 오고갔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린 단종임금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고된 역경을 치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단종이 타고 가던 말의 목에 달린 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모든 것이 원통해 벗어나고 싶고 이 고개를 넘으면 다신 돌아올 수 없음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아는 것이었을까. 떨어진 말방울은 결국 이 고개 위를 구르며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천근만근인 발걸음을 옮기던 유배행렬 속에서 그 누구도 말방울이 떨어진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방울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넘었던 이 고개는 고되고 험한 길을 재촉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이 말방울이 떨어진 고개라 하여 ‘방울재’라 부른다.

배일치마을

벚말을 지나 골말 앞을 거치고 배일치에 닿은 단종의 유배 행렬. 그리고 단종은 배일치에 닿기 전 배일치마을과 마주한다. 소박하지만 함께임을 증명하듯 머리를 맞댄 초가들과 고요한 바람에 낮게 흔들리는 들꽃의 움직임, 더위를 잊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푸른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는 마을의 소소한 아름다움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단종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왔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애틋한 이별을 해야 했던 단종과 왕비 송씨. 단종은 청룡사 우화루에서 왕비와 생이별을 했다. 어린 왕비를 외로운 산사(山寺)에 남겨두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던 단종. 한 걸음 내어 딛고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내어 딛고 뒤돌아보는 그 가슴 아픈 심정을 그 누가 상상할 수나 있을까.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둑해는 노산군을 꾸짖고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단종이 우화루에 쓰러져 통곡하는 정순왕후를 보고도 어둑해에게 이끌려 영리교(永離橋)까지 나아갔을 때, 왕비는 머리가 마구 흐트러진 채로 버선발로 단종의 뒤를 쫓았고, 어둑해는 소리를 치며 왕비가 다리를 건너오지 못하게 했다. 다리를 사이에 놓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두 사람. 무엄하게 떠나는 어둑해에 밀려 돌아서는 단종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다고 한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 다리 위에서의 이별을 슬퍼하며 시를 지어 읊기도 했다. ‘하교불상봉(河橋不相逢) : 다리 위 이별은 차마 못할 일이로세 / 강수원염정(江杼遠念情) : 강가의 나무들도 슬픔 담백 머금었네’ 왕비를 남겨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단종이었지만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라도 하듯 이곳 배일치마을에서 만난 영월 백성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리고 단종은 이곳에서 함께 운 백성을 보며 또 한편으로 마음을 굳게 다잡지 않았을까.

인륜의 길

배일치재

배일치마을에서 만난 배일치재에는 단종침터가 조성되어 있다. 서쪽을 향해 절을 하는 단종의 조각상 앞으로 ‘배일치’라고 쓴 표지석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단종임금이 유배길에 남은 배일치재다. 굽이굽이 돌아 오르는 고개를 올라 힘겹게 배일치 고갯마루에 도착한 단종임금은 이곳에서 한양의 궁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았는데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사육신과 생육신들이었다. 단종은 이 중에도 특히 성삼문(成三問)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 고개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기개의 성삼문을 떠올린 단종은 타고 가던 가마에서 내려 서산에 기운 해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이렇게 단종임금이 해를 보고 절을 한 고개라 하여 이곳을 ‘배일치(排日峙)’라 부르게 되었다. 자신을 지금껏 지켜주었던 사육신, 목숨으로써 충의를 지킨 신하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단종. 해질녘 이곳에서 단종은 또한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예감하며 그들의 넋을 위로한 것은 아니었을까.



죽은 단종대왕의 시신을 건드리면 삼작을 멸하겠다는 추상같은 어명에도 차마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거역할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시신을 수습하여 선산에 모셨던 영월호장 ‘엄흥도’가 지켜낸 인륜(人倫)의 길이다. 단종 유배길 중 인륜의 길은 배일치 마을~청령포 15.5km이다. 단종이 묵었던 어가 쪽을 향해 인사를 하는 듯한 절묘한 모양새의 청령포 소나무는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몸짓이라고 한다.

옥녀봉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배일치재를 넘고 점말과 갈골을 지나 옥녀봉에 다다랐다. ‘옥녀봉’이란 명칭은 단종임금이 부인 정순왕후를 떠올리며 직접 지은 이름이다. 배일치를 넘어온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점말을 지나 돌고개를 넘고 갈골을 지나 옥녀봉에 이르렀다. 단종은 모양이 동그랗게 두메산골 색시처럼 수줍은 듯한 모습의 산봉우리를 보게 되었고, 이를 보고 한양에 두고 온 정순왕후 송씨의 다소곳하면서도 예쁜 모습이 불현듯 그리워졌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단종임금이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을 때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 역시 부인으로 신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단종은 부인으로 강등된 아내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 둥근 산봉우리를 ‘옥녀봉(玉女峰)’이라 이름 하였다.

청령포

창덕궁 대조전에서 유배교서를 받고 1457년 음력 6월 22일 돈화문을 출발한 단종임금의 유배행렬은 약 천리(千里) 길을 걸어 꼬박 일주일 후인 6월 28일 마침내 유배지인 영월의 청령포에 이르렀다. 이곳은 송림이 뽕뽕이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한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이었다. 서강의 강줄기가 북쪽, 동쪽, 남쪽의 삼면을 말발굽에 박는 U자 모양의 편자처럼 휘감아 돌고, 서쪽은 험준하게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 같은 절해도도(絶海孤島)였다. 이곳에 누구든 가뒀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형이었으니 유배지로서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어린 단종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이곳에서 외로운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 청령포 내에는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흔적을 알리기라도 하듯 금표비(禁標碑)와 단묘유지비(端宗遺址碑), 망향탑(望鄉塔), 노산대(魯山臺), 관음송(觀音松) 등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령포는 수려한 절경을 자랑해 오늘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2008년 명승 제50호로 지정되었다.



다시 보고 싶은 공연, 장릉 낮도깨비



예술로 마음을 잇는 시와 별, 단종과 함께 세계 무대에 오르다

극단 시와 별은 2021년 영월에서 창단한 이래 지역 콘텐츠를 무대 위에 펼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그 중 <진달래장의사>는 2023년 서울 대학로 초연 이후 2024년 재연까지 이어지며, 영월을 찾는 외지 관객들의 발길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에는 오사카 국제 공연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일본 무대에서도 ‘진달래장의사’를 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또한 세계 최대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의 2025년 <코리안 시즌>에 <장릉 낮도깨비_1457, 잠든 소년>이 선정되어 <1457, The Boy at Rest>라는 제목으로 단종 이야기를 전 세계 관객에게 들려준다.





능말 낮도깨비, 슬픔을 어루만지다

〈장릉 낮도깨비_1457, 잠든 소년〉은 2023년 4월 첫선을 보인 창작 복합 뮤지컬이다.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영월 능말 도깨비 설화를 절묘하게 엮어 익살스럽고 따뜻한 도깨비들의 시선으로 무거운 역사를 풀어내어, 관객들에게 특별한 영월 이야기를 전한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틋한 사랑, 사육신의 충절, 엄흥도의 굳건한 지조까지 담긴 이 공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

언제나 고맙고 특별한 관객

극단에게 관객은 언제나 특별하다. 특히 올해 만난 초등학교 남자 관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연을 보러 왔는데, 토요일 공연이 비로 취소되자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공연을 기다려 주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넘버를 따라 부르던 아이의 모습이다. CD를 여러 번 들어 가사를 모두 외웠다는 아이에게 배우들도 크게 감동했다.

사실 이런 관객들이 꽤 많다. 서울과 부산 등 먼 곳에서는 물론 충주, 제천 등 가까운 지역에서도 공연을 보기 위해 몇 번씩 찾아오는 관객들이 있다. 그때마다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다시 찾는 이유가 있는 장릉 낮도깨비

“서울 큰 극장에서 본 공연보다 좋았다”, “공짜로 보기에 미안할 만큼 감동이다”, “이 공연을 다시 보려고 영월을 찾는다”는 관객들의 말은 공연을 계속하는 이유이다. 최근 영월 군민들도 일부러 공연을 보러 온다. 외지인 친구나 가족에게 공연을 소개하며 함께 방문하는 모습은 공연팀에게 더없는 격려다. 그런 따뜻한 응원이 다시 무대에 오를 힘을 준다.

장릉 낮도깨비 공연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역사와 오늘이 만나는 자리이다. 매주 주말 장릉의 숲과 바람 속에서 단종과 함께 관람객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떠나보내는 특별한 진혼을 이어가고 있다.





실경뮤지컬, 단종의 숨결을 담다

사람과 즐거움이 만드는 공연의 새 터전, 영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영월에이치제이(HJ)'는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을 선도하며 〈세종, 1446〉을 비롯해 위인과 예술가의 삶을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들을 국내외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 에이치제이컬처의 첫 번째 지역 거점이다. HJ컬처는 Human(사람)과 Joy(즐거움)의 약자로 예술과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주는 문화 콘텐츠 전문 그룹이다.

영월에이치제이는 본사의 풍부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영월군이 가진 풍부한 문화 생태자원을 공연 콘텐츠로 재창조하여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단순한 공연 제작을 넘어 공연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화합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를 품은 무대, 장릉에 펼쳐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올해 영월에이치제이는 실경뮤지컬 〈단종, 1698〉 제작에 본격 돌입했다. 조선의 어린 임금 단종이 왕위에서 밀려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역사에서 출발하지만, 그를 사랑으로 품었던 정순왕후의 시선을 통해 단종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비극을 넘어 화해와 회복, 포용의 상징으로서 단종을 복원하는 작품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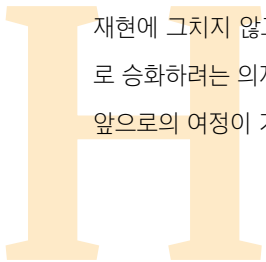
특히 작품의 무대가 될 세계유산 영월 장릉은 실제로 단종의 능이 자리하고 있는 유서 깊은 현장이다. 관객들은 공연장을 벗어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릉 곳곳을 직접 걸으며, 극 중 인물들과 함께 그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독특한 공연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월에이치제이는 〈단종, 1698〉을 통해 단종을 단순한 희생자나 비운의 군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아픔을 딛고 일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존재로 그리고자 한다. 이는 단종의 복권을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을 기리는 문화적 선언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는 제작 초기 단계로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공연 도시를 향한 첫걸음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브레겐츠(Bregenz)는 인구가 2만 명 남짓이다. 하지만 매년 전 세계 관객들이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든다. 화려한 무대와 특유의 독특한 연출 덕분에 ‘세계적 공연 축제 도시’로 자리 잡았다.

영월에이치제이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실경뮤지컬 〈단종, 1698〉을 통해 이런 브레겐츠의 성공을 영월에서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연을 ‘문화 특산품’으로 키우고, ‘영월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공연’,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영월을 찾는 공연’이 되고자 한다.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하고 영월만이 가진 특별한 색채를 더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월만의 차별화된 공연 양식을 완성할 계획이다.



그대에게로 가는길

단종 X 정순왕후

단종, 별이 되다 '별별퍼레이드' _ 평생학습동아리

별별퍼레이드 '천상의 만남'



함께여서 행복한 사람, 이재원 감독

이재원 감독은 영월 주천면 출신이다. 그는 '함께 하는 예술'을 꿈꾼다. "혼자만의 에너지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은 지역 인력들과 협력하여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각 축제의 특색을 살리고 사람들의 조화를 끌어내는 게 그의 감독 철학이다.

단종과 정순왕후, 별이 되어 만나다

58회 단종문화제의 별별 퍼레이드 '천상의 만남'은 단종의 비극을 아름다운 퍼레이드로 승화한 공연이다. 단종과 정순왕후가 하늘의 별이 되어 영월의 희망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아낸 이번 퍼레이드는 단종문화제 60주년을 앞두고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강사를 파견해 주민과 함께 안무를 짜고 연습하면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통해 군민의 결속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이라 더 설렜던 길 위의 예술

이 감독에게 퍼레이드는 단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에 의미를 담고 예술을 입히는 퍼포먼스다. 이 감독은 영월 관풍헌 도로에서 처음 진행한 터라 주민들이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기대와 설렘이 더 가득했던 퍼포먼스로 영월의 도시적 아름다움 덕분에 퍼레이드가 더욱 빛났다고 전했다.

비눗방울과 함께 어린 시절로

가장 특별했던 것은 버블카 퍼레이드였다. "어르신들이 비눗방울 속에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천진난만하게 웃으셨어요. 덩달아 제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죠. 그 순간의 행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이 감독의 말처럼 별별 퍼레이드 '천상의 만남'은 주민들의 미소 속에서 단종문화제가 열린 영월의 길을 밝게 빛냈다.



함께해서 더 빛난 별별퍼레이드

김명수 회장은 영월군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들이 별별퍼레이드에서 퍼포먼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연합회 소속 78개 동아리 중 10개 팀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의상과 준비물을 마련해 열정적으로 참가했다. 회원들은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다.

추위 속에서도 빛난 동아리의 열정

퍼레이드 이후 개막식을 기다리는 동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회원들이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웃으며 함께한 회원들의 인내와 마음에 깊은 감사도 전했다. "퍼레이드 중간에 짧게라도 동아리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퍼포먼스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회원 모두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김 회장은 회원들의 열정이 다음 퍼레이드에서는 더욱 빛날 수 있기를 바랐다.

군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축제

김 회장은 이번 퍼레이드가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단종 문화제가 군민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는 데 좋은 첫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회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준비해서 더 많은 군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평생학습동아리 회장





음식으로 다시 태어난 역사

‘제1회 단종의 미식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단종의 궁중음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요리를 선보였다.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참가자들은 단종에 대한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 음식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녹여냈다.



처음 시도된 음식 테마 축제의 의미

이번 미식제를 주관한 궁중음식문화재단은 단종문화제에서 ‘음식’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축제를 진행한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단종은 궁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궁중 음식 경연과 함께 궁중의 식생활 문화 전시, 단종의 수라상을 재현한 모형 전시 등을 진행했다. 단종 수라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영월 지역 특산물과 지역 명물 음식을 활용해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덕분에 많은 분이 흥미있게 단종의 이미지를 새롭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부

대상 - 단심주안

윤미경, 정완진 / 세경대 호텔조리학과

대상을 받은 단심주안팀은 해물파전, 송어 어선, 더덕 다래 소스 생채, 영월 잣 떡갈비, 영월콩 장떡, 감자 경단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특히 송어 어선과 영월콩 장떡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장떡은 개성에서 유래한 귀한 음식으로 영월 전통시장 장인의 된장을 사용해 세 번 찌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열흘 동안 공들여 준비했다. 또한 건강에 좋은 다래를 잣과 더덕을 넣은 소스로 만들어 현대적 해석이 가미된 궁중요리로 탄생시켰다.

정완진 씨는 유배 길에 고단하셨을 단종께 위로의 한 상을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윤미경 씨는 단종대왕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술 한 잔으로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요리했다며 단종의 미식제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생신상에 탕평채를 올릴 만큼 요리를 좋아했던 윤 씨는 뒤늦게 세경대에 입학해 다시 꿈을 찾았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최우수상 - 단종 한 상

방승모, 권혁선 / 혜전대 호텔조리학과

단종한상팀은 메인 메뉴인 ‘영월 보감 신선로’를 중심으로 ‘개성주악 꼬치’, ‘다래방이 모히또’를 준비했다. 전체적으로 간을 약하게 하고 향신료를 최소화해 단종께 진심으로 대접하는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는 한 상을 차렸다.

팀원들은 “단종께서 실제 드셨던 음식에서 영감을 얻었고, 유배의 아픔과 고독까지 위로하는 한 끼를 차리고 싶었다”고 한다. 수상의 기쁨과 함께 늘 도와주신 교수님과 선배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수상 - 떡이당

한아란 / 청운대 경영학과

한아란 씨는 영월 지역 특산물인 잣과 어수리 나물을 활용한 인절미를 선보였다. 잣 인절미는 고소한 맛으로 단종의 품격과 위로를, 어수리 인절미는 씹싸름한 향으로 단종의 고독과 생명력을 표현했다.

단종뿐 아니라 사육신에게도 바치는 떡을 준비한 한 씨는 궁중음식 개발을 단종과 사육신을 기리는 관광 상품과 연결했다. 고등학교에서 조리를 전공하고 현재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답게 음식의 판매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다.

학생부

대상 - 채우다

박일수, 박성진 / 아옴 단체급식회사 조리사

건강한 맛과 한국의 맛을 음식에 다 담은 채우다팀은 ‘구름 연저육’, ‘가리비 잣즙 냉채’, ‘사과잼 다식 올란’을 선보였다. 특히 연저육은 단종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이고 잣즙 냉채는 궁중음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식이다. 다식은 영월 특산물인 사과를 잼으로 만들어 활용했다. 팀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으며, 평소 대량 조리를 해왔기에 소수를 위한 섬세한 음식 준비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궁중음식의 기품을 지키되 대중에게도 맛과 건강을 전하도록 만든 대상 수상 레시피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선보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최우수상 - 채채

채희정, 김채옥

채채팀은 석류탕, 잣박산, 우태울 편육과 전통주까지 주안상 형태로 구성한 ‘단종의 눈물’을 준비했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흘렸을 눈물과 정순왕후와의 애뜻한 마음을 음식과 술에 담았다. 특히 잣박산은 궁중 연회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간식으로 자초물을 들이고 어수리 향을 더해 만들었다.

음식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았는데 특히 전통주인 ‘생이별주’와 ‘천년해로주’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별과 하늘에서의 영원을 표현했다. 채희정 씨는 현재 발효양조학 석사 과정 중이며, 김채옥 씨는 전통주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음식과 술은 문화만큼 앞으로 음식이 문화로서 주목받는 대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수상 - 망운지정

최영호, 한동욱 / 사제지간

‘단종의 마음을 달래줄 한상차림’을 주제로 비빔밥과 들깨탕을 준비한 망운지정 팀은 원래 12첩 반상을 구성하고 싶었지만, 요리 시간 등 현실적 제약으로 비빔밥 한 그릇에 다양한 나물과 부각 등을 올려 풍성한 맛을 표현했다. 유배 중인 단종의 입맛과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요리한 ‘망운지정’ 팀은 팀 이름에도 위로와 따뜻함을 담았다.

최영호 씨는 미식제가 축제를 관람하는 일반인도 궁중음식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이어져 전통 음식의 가치가 널리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함께 참여한 한동욱 씨는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교수님과 함께 대회에 나와 수상까지 이어져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선시대 국장재현행사 '단종국장'

조선시대 국장재현행사 단종국장

조선조 27대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한 단종, 승하한지 550년 만인 2007년부터 백성의 마음을 담아 국장이 진행되었다. 단종국장은 영조국장도감의례를 참조하여 옛 국장방식 그대로 재현되었다. 단종의 스토리가 담긴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관공헌에서 장릉까지 행렬이 이어졌다. 비운의 왕 단종을 넘어 과거를 담고, 오늘과 세계를 잇고, 미래를 닮는 오십 여덟 번째 단종문화제의 가치를 상징하며 발전과 도약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제58회 단종문화제 단종국장 재현행사에서는 단종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도입되었다. 사육신과 백성들이 단종을 떠나보내는 애절한 마음과 제를 시작하기 전 악귀를 물리치는 방상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선소리를 통해 영월에 울려 퍼지는 상여소리로 단종의 스토리를 전달하였다.



모녀가 함께한 특별한 추억

“아파트에 붙은 광고문을 보고 엄마와 함께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힘들어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행렬에 참여하니 마음이 숙연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참여한 건데, 막상 해보니 좋았어요.”

엄주희 (하송리, 고등학교 2학년)

우연히 만난 특별한 축제

“한국에서 유학 중인데, 친구들과 우연히 영월에 여행 왔다가 단종문화제를 알게 되었어요. 국장 행렬이 축제 중에 가장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왕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뜻밖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른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영월 축제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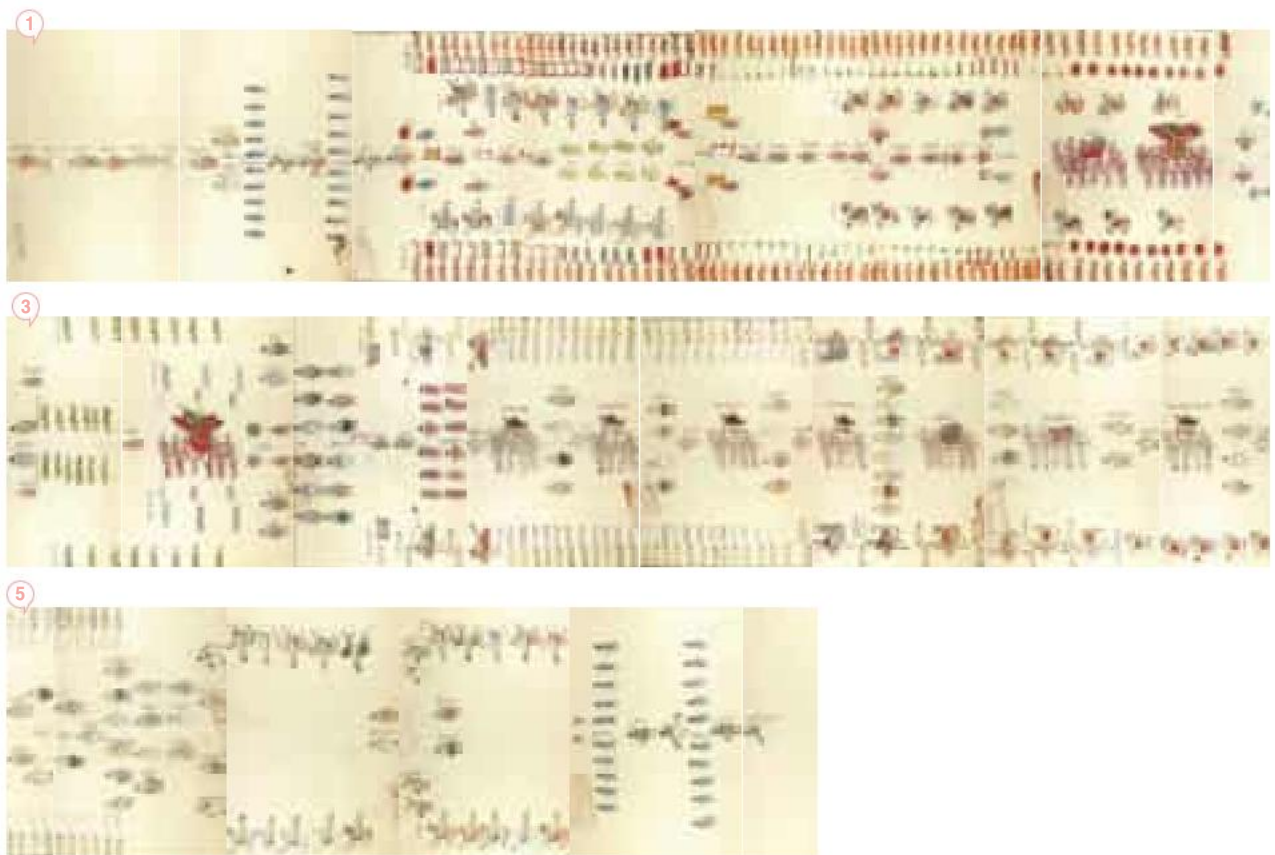
호엔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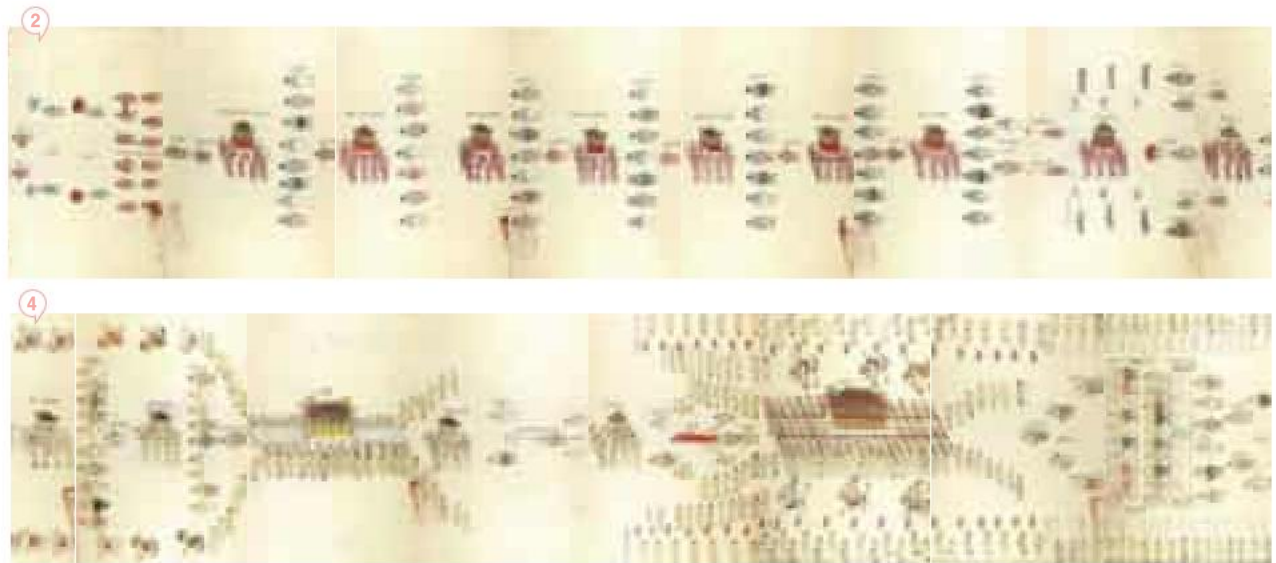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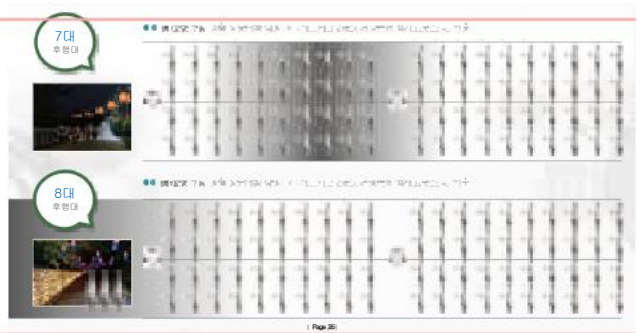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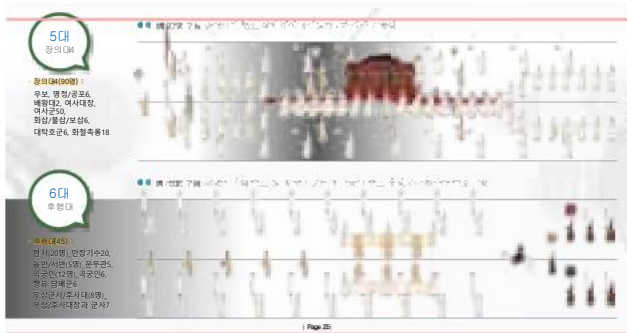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밤

“올해 단종문화제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많이 봐서 좋았어요. 국장 재현 행렬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내년에는 다시 말을 태우는 행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영월은 재미있는 행사도 많고 자유로운 분위기라 참 좋아요.” 강태은 (영월초, 6학년)

뜻깊었던 국장 행렬

“서울에서 친구들과 영월 축제에 참가했어요. 낮에도 다양한 게 많아 피곤했지만, 이렇게 전통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행복해요.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단종문화제에서 한국의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에게 영월 축제를 꼭 추천할 거예요.” 마리아 & 알리사 (러시아)







직접 보니 더 좋네요

“부부가 함께 동해에서 축제를 보러 왔어요. 전에도 왔지만, 국장 행렬은 처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더 축제에 깊이가 생겨 더 좋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놀랍네요. 이런 좋은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윤순강 (동해)

안전한 행사가 최고

“장릉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없이 끝나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단종문화제를 그냥 즐겼지만, 지금은 일로 참여하고 있네요. 축제에 오신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잘 즐기고 가시는 게 제가 축제를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입니다.”

지영선 (장릉 공무원직 근로자)

세계로 나아가는 단종문화제

“외국인 위케이션 그룹을 초청해서 축제를 함께 즐겼어요. 참가자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해서 보람이 컸어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영월을 방문해 문화를 체험하고 관계인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금록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 팀장)







단종의 뉘를 위로하다, 단종제향(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영월 단종제례)

339년의 전통, 단종제향을 이어가는 사람들

1955년 창립 이래 영월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 온 영월문화원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그중 단종제향은 숙종 2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39회를 맞이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다.

단종제향은 매우 엄숙한 의식으로 전통적인 절차나 집사들의 진행 방식이 낯설어 관람객들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이때 사회자는 관람객이 절차의 의미와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설명과 해석을 덧붙여 제향의 본질과 가치를 전달한다. 제향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돕는 것이다.

아외에서 열리는 제향 특성상 날씨로 인한 돌발 상황도 발생한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던 해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이

있지만, 단종제향의 진정성과 여법을 모두가 함께 끝까지 지켜냈다.

외래문화가 급속히 유입되어 전통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단종제향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예절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적 기회다. 1967년에 시작한 단종문화제는 올해 58회를 맞이했다. 이제 단종문화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세계화되도록 내실 있는 구성과 깊이를 더해갈 시간이다. 이에 영월문화원은 단종문화제라는 지역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통해 전통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명길 영월문화원 사무국장

단종제례보존회

단종의 넋을 기리는 사람들

강원특별자치도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월 단종제례를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단종제례보존회. '제향'은 옛 형식과 절차를 최대한 그대로 지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보존회는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한다. 단종의 역사가 계속 기억되도록 전통과 공감이 함께 흐르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온 만큼 제향에 매년 정성을 들인다.

감동을 더한 작은 변화

단종제향의 가장 큰 가치는 단종의 슬프고도 고귀한 역사를 다 시금 기억하게 한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단종 역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례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역사의를 일깨우고 지역 정체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음을 확인한다.

올해는 특별한 시도도 했다. 제향을 보러 온 관광객들에게 떡과 커피, 생수를 나누어 준 것이다. 예산을 아껴 마련한 작은 나눔에 많은 관광객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존회는 이 나눔이 올해 제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의례적으로만 제례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종제향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존회는 단지 제례를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재 단종제례보존회장



역사의 선율로 위로하는 단종의 넋

올해로 창단 26주년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은 강원도 유일의 도립 국악 예술단이다. 도민의 문화 향유와 전통음악 보급을 위해 노력하며, 단종제향에서는 특히 역사와 품격에 맞는 중요제례악을 중심으로 단종의 넋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교적 전통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향에서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제례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강원도 내 주요 제례 중에서도 가장 격식 높은 왕의 제사이기에 음악적으로 심혈을 기울인다. 특별히 준비한 편종과 편경 등으로 단종제향만의莊중한 분위기를 만든다.

전통음악, 미래로 뻗어갈 뿌리

김창환 예술감독은 젊은 연주자들이 역사적 의식을 통해 전통 계승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중음악에 비해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낮아 문화적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이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단종제향은 강원도의 가장 큰 문화 행사 중 하나인 만큼 전통음악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

강원도는 아직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연주자가 타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다. 이들에게 단종제향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그만큼 중요한 전통을 잘 계승하려면 고증 없는 결정으로 전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전통음악에 대한 고증과 해석 문제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단종제향은 과거를 기리는 행사이자 미래를 향한 문화적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김창환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단종의 넋을 기리는 육일무

영월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신문화의 뿌리를 지키는 소명으로 여기며 단종제향에 참여한다. 지역 문화가 전승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길을 만드는 것이 문화원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일무는 무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단종제향에서 봉행되는 제례무인 육일무(현무)는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올리는 의식무용이기 때문이다. 춤 하나하나가 단종 임금님께 바치는 예(禮)이다.

춤으로 되새기는 충절

단원들이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라 준비 과정에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연습했다.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호흡을 맞춘 덕에 단종제향에서 육일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영월군민에게 육일무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각별한 자부심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강단은 팀장은 춤사위에 담긴 진정성과 단종을 향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이 오랜 시간 조상들이 지켜온 충절과 전통의 가치를 되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단종문화제를 통해 충절과 전통의 가치가 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한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단은 영월문화원 팀장



부사행렬(종중 - 현장 및 전화인터뷰)

충절로 이어진 부사행렬 발걸음

단종제향에 앞서 진행된 부사 행렬은 단종과 그를 위해 순절한 충신들의 후손, 영월군민, 관광객들이 모여 역사 속 선조들의 충절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339년을 이어온 단종제향은 부사 행렬부터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이들의 진심이 더해져 더욱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녔다.



“육대 문중에서 사육신의 후손 70여 명이 부사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성대하고 매끄럽게 진행돼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충절과 올바른 역사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박성규 사육신 선양회장 (박팽년 후손)

* 박팽년(1417~1456)은 사육신의 중심인물이자 뛰어난 문장과 충절의 상징으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하였다

“저례의 모든 절차가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배식단 준비부터 행사 안내까지 관계자분들의 성품과 노력이 잘 느껴졌습니다. 주악이 빠진 것은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우 (박팽년 19대손)

“선조가 단종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 세종과 문종께도 학문과 덕망을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단종을 위해 충절을 지키다 순절하신 것은 후손으로서 자부심이자 인류사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종을 보좌했던 충신들도 함께 조명되어 단종문화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더욱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익 (한산이씨 이계 후손)

* 이계(1417~1456)는 단종의 스승으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여 충절을 지키다 순절하였다.



단종로
Danjong-ro

“안동에서 와서 참여한 부사 행렬에서 선조의 충절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안내가 세심하고 자상해 고맙습니다. 직접 걸으며 단종과 선조들의 뜻을 더 가까이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현태 (하위지 18대손)

* 하위지(1412~1456)는 사육신 중 명문장가로 이름난 인물이며, 충절의 상징으로 존경받는다

“영월은 공기도 맑고 풍경도 아름다워 매년 오고 싶은 곳입니다. 부사 행렬을 걸으며 억울하게 희생된 선조들을 떠올리고 추모할 수 있어 후손으로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석문 대표 (성삼문 후손)

* 성삼문(1418~1456)은 사육신의 대표 인물이자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한 뛰어난 문장이었다

“부사 행렬에 참여하며 많은 정성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뜻깊은 분위기에서 잘 다녀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류성원(춘경공 류지세 문중 후손)

* 류지세(생몰년 미상)는 단종 폐위 후 세조의 집권에 항거하며 끝까지 충절을 지킨 인물로 권력보다 도를 따른 충신이다.





자주동천여인, 정순왕후선발대회(여성단체협의회)

변화와 포용 정순왕후 선발대회의 새로운 도전

1984년부터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초창기의 엄격했던 참가 조건을 올해 대폭 완화했다.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나이 제한을 없애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연 것이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단순히 외적인 미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염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위험 속에서도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정순왕후의 자주적이고 당당한 정신을 현대 여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대회다.

김미자 회장은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데다 67세 참가자는 수상 여부를 떠나 '영월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해 무척 뜻깊었다고 전했다. 내년엔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정순왕후의 자주적이고 강인한 정신을 계승하는 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자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장



애뜻한 위로

정순왕후 '장윤이' (남양주)

“정순왕후의 단단한 내면과 당당한 목소리, 지혜로운 모습에 매료되어 선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떨렸지만, 정순왕후가 천상에서 단종과 다시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일 년간 영월과 정순왕후가 지냈던 애뜻함과 단단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붉은 빛

김빈 '윤민정' (대구)

“제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 고른 붉은색에는 정순왕후와 꼭 닮은 열정, 끈기, 당당함과 도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영월은 외가가 있던 곳이라 제게 항상 그리움과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월과 단종문화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강인한 삶

권빈 '신담비' (영월)

“저에게 정순왕후는 자신의 자리를 지혜롭고 당당하게 지켜낸 여성입니다. 열렬결에 참가했지만, 영월에 살며 관객으로만 보던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함께했던 언니들과 엄마 같은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순왕후처럼 더 지혜롭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술로 기억하는 삶의 무게

24년 정순왕후 '남선아' (영월)

“정순왕후를 '영월의 꽃'이라 생각하며, 지난 일 년간 예술을 통해 그녀의 삶을 현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 복식에 전통 가채를 쓰고 일상을 보여주는 사진 촬영과 전시를 했고, 자화상을 그리며 정순왕후를 오늘로 불러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꽤 무거웠던 가채는 여성이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아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순왕후선발대회 특별한 공연!

국내 유일의 여성팜페라팀 아리엘(4인조)

클래식, 가요, pop, 뮤지컬은 물론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뛰어난 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팜페라걸그룹이다.
정순왕후선발대회에서
축하공연으로 넬라판타지아,
맘마미아메들리, 아름다운나라,
풍악을울려라를 선보였다.





정순왕후선발대회 수묵화 퍼포먼스

仁江 申銀淑 신은숙



철학박사(서예미학) :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원광대 동양대학원 강사(역임)
 경희대학교, 세명대학교 외래교수, 예산문화원 문인화 강사
 인강서예문인화연구소 운영(현재)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신사임당·이율곡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외 다수

인강문인화전(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묵의 외출(경인미술관)
 구름이 지나니 달이를 놓다(수덕사·미술관)
 보포르랭의 조용한 아침(한국경제신문사), 묵의 빛(스위스 제네바 로잔),
 문인화 초청전(프랑스 알베르빌), 묵의 숨결(프랑스 낭트상공회의소),
 문인화 초청전(프랑스 아르데쉬), 희망가(프랑스 초핑겔),
 미즈로전(일본 도쿄 독거당), 묵의 속삭임(프랑스 리옹 쌍 달방)
 프랑스 리옹 국제예술가협회전, 인도네시아 초청전 외 50여회

내 안의 꿈은 그것을 언제 그릴 수 있으려나

제가 하는 작품은 자기 철학이 들어있는 작품 세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전 작품과 다르게 탈바꿈을 하기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프랑스에서 작품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화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저는 먹그림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먹그림을 통해 내면의 기를 끌어내고, 생각을 끌어내고 기운 생동한 그림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퍼포먼스 요청을 받아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작품 전시를 할 때는 한 신문기자가 작품을 보고 놀라서 심장이 뛰어 잠을 못 이루었다고 너무 신비한 감흥을 얻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적 소양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사진 한 장 찍을 시간이 없고,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6.25를 겪고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 여유롭게 꽃을 보고 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듯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 침줄다리기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된 후 처음으로 보존회가 침줄다리를 주관해 진행했다.
무형유산 지정은 자부심만큼이나 더 큰 책임을 느끼게 했다.

처음이라 더 힘들고 소중했던 시간

처음 준비하다 보니 사람을 구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심지어 행사 며칠 전, 도움을 주기로 했던 군부대가 갑작스럽게 참여가 어렵다는 연락을 하는 바람에 무척 난감했다. 인력을 급히 다시 구하느라 보존회원들과 함께 동분서주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줄다리기 행사 당일엔 많은 주민이 즐겁게 웃으며 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고생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단종문화제를 잇는 영월의 전통

침줄다리기는 단종문화제와 깊게 연결된 영월만의 독특한 전통이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두꺼운 침줄을 엮고 힘껏 당기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이 행사는 영월 사람들에게 오랜 추억이자 단종문화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볼거리다. 무형유산 지정의 기쁨과 함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커졌다.

미래로 이어지는 침줄

현재 보존회의 인력과 운영 체계는 초기 단계라 매우 부족하다.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존회뿐 아니라 군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후손들도 침줄다리를 계속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때다.

김몽영 침줄다리기보존회장





우승_영월읍

젊은 열정으로 거둔 우승

송대훈 (영월읍)

“우승 비결이요? 젊은 사람들이 열정 하나로 모여서 우승한 겁니다. 모두 직장인이고 사業하는 친구도 있어 바쁜데, 어렵게 시간 내서 와준 모든 분이 정말 고맙죠. 사실 따로 연습은 못 했고, 오늘 처음 모였는데 이렇게 잘했습니다! 앞으로 영월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우리 영월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준 청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준우승_상동읍

야구팀의 끈끈한 팀워크

전영철 (상동고 야구부)

“상동에서 영월까지 거리가 좀 있지만, 이렇게 멀리 와서 준우승까지 하니 뿌듯해요. 대학생 형들과 힘을 겨루다 보니 아쉽게 졌는데, 다음엔 꼭 이길 겁니다. 평소에 야구 훈련을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야구와 침줄다리는 결국 팀워크가 중요하게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준우승했지만, 야구에서는 꼭 우승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종대왕 진혼의식, 영산대재

영산재(靈山齋)는 불교에서 영혼천도를 위한 의식 중 하나로 49재의 한 형태입니다. 불기(佛紀) 약 2600년전 인도 영취산(靈鷲山)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法華經)을 말씀 하실 때의 그 모습을 재현화한 불교의식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

고득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식 절차가 각종 전통문화의 요소를 내포한 음악적, 무용적 요소와 더불어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단종문화제 영산대재에서는 단종의 넋을 달래주고 충신들이 깊은 뜻을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하여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행사내용	비고
09:30~10:00	시련	단종의 혼을 모셔오는 의례
	집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및 전수생
10:00~10:05	삼귀의례	다함께
10:05~10:10	한글반야심경	다함께
10:10~10:15	봉행위원장 인사말	영월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보덕사주지 삼혜스님
10:15~10:30	관불의식	연합회회장, 부회장, 영월군수 외 내빈 다함께
10:30~10:40	육법공양	영월불자
10:40~10:45	내빈소개	
10:45~10:50	추도사	영월군수 최명서
10:50~11:00	후원금 전달식	영월군수 최명서(영월불교사암연합회 불우이웃돕기후원금전달)
11:00~11:05	축사	
11:05~11:15	상단헌화	보덕유치원
11:15~11:25	공연	보덕유치원
11:25~11:35	상단불공(복청계, 바라, 나비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11:35~11:45	진도북	최장미선생님 외 1명
11:45~11:50	영단헌다	영월군수 최명서, 연합회회장 삼혜스님, 부회장스님 외 내빈 다함께
11:50~11:55	무용(지전춤, 살풀이)	최장미선생님 외 1명
11:55~12:00	봉송, 봉안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사홍서원	다함께

보덕사

보덕사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태백산(太白山)자락에 위치한 사찰이다. 사찰은 686년(신문왕6) 의상(義湘)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57년(세조 3)에 단종(端宗,재위 1452~1455)이 노산군(魯山君)으로 작위가 낮아져 이곳 영월로 유배되어 왔을 때 사찰명을 노릉사(魯陵寺)로 바꾸었다가 숙종 31년(1705)에 한의선사와 친밀선사가 대종을 만들어 설치하게 되자 사찰명도 장릉 보덕사로 고쳤다. 그 후 1726년(영조 2)에 지금처럼 태백산 보덕사로 다시 개칭하게 되었다.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1698년(숙종24) 단종이 노산

군에서 복위되었고, 그의 묘도 장릉(莊陵)으로 승격되면서다. 이 때 지덕암 터에 절을 짓고 단종의 능, 곧 장릉의 수호사찰로 삼았다. 당시 예조에서 관문을 내려 장릉수호조포사찰(莊陵守護造泡寺刹)로 지정해 줌에 따라 사찰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2001년 12월 보덕사에서 선혜 스님이 극락보전 보수공사를 하면서 ‘보덕사극락보전중수기’와 ‘태백산보덕사극락전중수상량문’을 발견하였다. 이 기록들에도 보덕사가 장릉수호조포사찰이었음이 나와있다. 1795년(정조19)에 쓰인 이 중수기에 의해 극락보전은 1576년(선조 9)에 지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수기에는 보덕사의 당시 역할이 단종의 능침수호와 ‘조

포조과(造泡造果, 능이나 원에 올릴 제함에 쓸 두부와 과일
일을 만드는 일)' 등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에는 규모가
매우 커서 절에 속한 밭이 1,000석이나 되었고 절에 머무르는
스님도 100명이 넘어 월정사 말사 가운데 가장 큰 절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 때 강원도 경찰학교로 이용되었는데, 이
때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2004년부터 한국전쟁 때 소실된
사천왕문 복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꾸준히 불사가
이어져 현재 보덕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절의 부속암자로 금몽암이 있는데, 단종 임금과 인연이
있는 암자다. 단종이 궁궐에 있을 때 금몽암에 대한 꿈을 꾸다.
이 인연으로 터를 잡고 절을 지어 이름을 '금몽암'이라 했으며,
단종의 원당이 되었다. 1698년(숙종24년) 단종이 복위되었을
때, 보덕사가 원당이 되면서 이 암자는 폐사되었다. 이후 1745년
(영조21년) 당시 단종의 무덤인 장릉을 관리하던 나삼이 옛터에
암자를 다시 세우고 '금몽암'이라 불렀다. 1806년 금몽암은
보덕사의 암자로 귀속됐으며, 1978년 석조여래 입상을 안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태백산신 된 단종의 전설

단종은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上王)으로 있다가 사육신 사건
이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혼령은 잠들지 못하고 영월지역 사도 앞에 나타난다.
활줄을 목에 매고 죽은 단종의 혼령이 계속 나타나자,
영월로 부임해 오는 사도의 죽음도 계속됐다. 마침내 총명한
한 사도에 의해 단종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단종은 한을 풀고
저승으로 돌아간다.

단종에 관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료보다도

전설에서 더 힘을 발휘한다. 전설은 사실의 정확성보다 그
것을 전승시키는 사람들의 감정적 이입이 더 심하다. 정변에
희생된 인물이라는 특수성은 단종의 비극적 죽음에 관한
안타까움과 회한을 더욱 절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듯하다.
영월 지역에서 전승되는 단종 관련 전설은 단종의 유배
과정부터 단종이 태백산신(太白山神)이 되었다고 전한다.
영월 보덕사에 있는 단종의 영정에는 백마를 탄 단종과 그
앞에 머루 바구니를 들고 있는 추충신(秋忠臣)이 그려져
있다. 추충신의 이름은 익한(益漢)으로 한성부윤을 지냈던
사람이다. 추익한은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외롭게 지낼
때, 산머루를 따다가 드리고 자주 문안을 드렸다. 그날도
산머루를 따가지고 단종에게 바치려고 내려오는 길에 연
하리 계사폭포에서 단종을 만났다. 단종은 곤로포에 익선
관으로 정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유유히 태백산 쪽으로 향
하는 중이었다. 추익한이 단종에게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
자 단종은 태백산으로 간다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
다. 그래서 추익한은 급히 단종의 처소로 와 보니 단종은
이미 변을 당한 뒤였다. 추익한은 다시 단종을 만났던 계사
폭포까지 와서 단종을 따라 죽었다. 이리하여 추익한도 단
종과 함께 태백산 신령이 되었다고 한다. 태백산 신령이 된
단종은 살아서의 모든 치욕과 슬픔을 뛰어 넘어 속인이 범
접할 수 없는 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살아서 비극적으로
살았기에 죽어서는 그 모든 슬픔을 초극할 수 있는 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민중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
는 대목이다. 원한을 품고 죽어서 끝내 많은 사람들을 괴롭
게 하는 원혼이 되는 것 보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산 중 하
나인 태백산으로 표표히 가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월간 一心光明 2013.71호 발채

단종 곁을 지킨 세 충신

단종문화제는 비운의 임금 단종을 추모하는 자리지만, 그 곁에서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의미를 갖진 못했을 것이다. 삼충신 추모제는 단종을 끝까지 보필하다 순절한 엄흥도, 정사중, 추악한 세 충신을 가리는 제례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행사라 아쉬움이 크다. 단종을 추모하는 만큼 충신들의 충의 정신 또한 깊이 기억하고 가리는 전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매년 충절사당에서 진행되는 이 추모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이뤄진다. 행사를 준비할 때는 사당을 정갈히 청소하고, 헌관과 집례관들이 입을 통일된 제복, 제물과 제수용품까지 세심히 챙긴다. 준비 과정이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지만, 행사의 엄숙함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다.

기억되고 전해져야 할 이름들

다만 최근 들어 충신 후손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들어 아쉽다. 각 문중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지만, 기대만큼 응답이 없을 때마다 안타깝다. 시대가 바뀌어도, 삼충신 추모제는 단종과 그를 지킨 충신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중요한 행사다.

앞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이 추모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충신의 이름과 정신을 함께 가리며, 충절의 의미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길 바란다.

엄주미 영월문화원 과장



외줄 위에 펼쳐진 흥

단종문화제에서 선보인 공연 주제는 ‘출판 놀이판’이었다. 외줄 위 아슬아슬한 묘기와 함께 풍물놀이, 버나놀이, 사자탈춤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이 어우러졌다. 전통예술이 가진 흥과 열정으로 관객과 연희자가 하나 되어 전통 놀이의 의미를 잘 담아낸 무대였다.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는 언락

공연을 선보인 ‘언락(UNLOCK)’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 전공 동문이 모여 만든 팀이다. 영어로는 ‘잠금 해제’를, 한자로는 ‘즐길 언(彦)’과 ‘즐거울 락(樂)’을 써서 ‘자유롭게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한다’는 철학을 담았다.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통예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그동안 주로 풍물과 버나 공연을 선보여온 언락은 이번 단종문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외줄타기에 도전했다. 첫 시도였기에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공연 당일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 속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관객과 함께 만든 무대

본래 전통문화 공연은 연희자와 관객이 어우러져 흥겨운 장을 만든다. 하지만 현대 공연문화는 관객이 조용히 바라보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라 아쉬움이 있었다. 외줄타기 특성상 관객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관람했지만, 점차 공연의 흥과 활력이 관객석으로 퍼져 나갔다. 다행히 무대 위 열정이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성공적인 공연이 되었다. 언락 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와 형태로 도전하며 전통예술이 현대에서도 계속 생명력을 갖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강 잔디밭 위에 펼쳐진 흥겨운 무대 ‘출판 놀이판’은 언락의 새로운 도전이자 전통문화가 나아갈 힘찬 발걸음이었다.

정재원 언락 대표

판소리로 풀어낸 역사



박양순 명창은 시대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 판소리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이번 단종문화제에서는 '의암 유인석 일대기'를 무대에 올렸다. 유인석 선생은 강원도 출신으로 1895년 을미의병을 일으켜 1915년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한 의병장이다. 특히 영월은 그가 처음 의병을 일으킨 뜻깊은 장소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단종문화제에서 박 명창의 창작 판소리는 의로운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의미를 더했다. 의병장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한 박 명창은 앞으로도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를 더 발굴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싶다고 한다. 창작 판소리로 역사를 예술로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박 명창의 다음 판소리가 기대된다.

박양순 명창 (한국전통판소리진흥회 이사장)

고운 소리로 전통을 잇다

전북대학교 학생들로 꾸려진 ‘고운소리’는 우리 국악과 민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팀이다. 큰 무대 경험이 적어 긴장했지만, 국악을 낯설어하는 어린 이부터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우리 음악의 매력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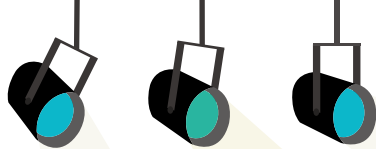
관객들에게 닿은 국악의 매력 덕에 고운소리는 뜨거운 반응과 격려를 받았다. 팀원들은 국악 장르는 현실적으로 공연 기회가 적어 아쉽던 차에 소중한 기회였으며 단종문화제에 깊이 감사했다. 국악을 ‘옛날 음악’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 듣다 보면 국악의 깊고 아름다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고운 국악 소리를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현 고운소리 대표



구성원

가야금(이유민), 아쟁(김준섭), 대금(최진), 장구&소리북(김범진),
소리꾼(이승현, 박유빈, 김규린, 조운현)



단종예술제



흥과 품격을 담은 무대 빅밴드

2006년 창단한 영월빅밴드는 전국을 누비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명성을 얻어왔다. 올해 단종예술제에서도 관객들이 지루할 틈 없이 즐기도록 경쾌한 연주곡을 중심으로 뛰어난 실력의 가수 두 명과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축제 전 정선 자유시장에서 진행한 홍보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쳐 단종문화제의 성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희망과 위로의 클래식 춘천윈드오케스트라

2020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클래식 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 춘천윈드오케스트라는 힘차고 웅장한 행진곡 'Florentiner March'와 'Canon Brass Rock'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단종을 가리는 특별한 무대에 설 수 있어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감성을 담은 울림 원영지

정식 대한가수협회 회원이자 한복 모델로도 활동하는 원영지는 작곡가 이호섭의 곡 '기적'과 '말년복' 가사를 지역민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했다. 영월에서 나고 자란 지역 예술인으로서 무대에 선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초청된 외부 가수들처럼 지역 예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예우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악으로 하나된 무대 박종명

프로피아에서 작사·작곡가로 활동 중인 박종명은 관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무대를 꾸몄다. 자작곡을 부르며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음악을 통해 관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단종문화제가 예상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무대로 가득해 관객으로서도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심 담긴 색소폰 선율 은가비색소폰

은가비색소폰동호회는 중장년층 관객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위주의 무대를 준비했다. 틈틈이 각자 연습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준비한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아마추어지만 지역 축제의 일원으로 무대에 오른 것에 감사하며, 관객들과 주고받은 즐거운 호응이 소중하고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무대에서 꽃피운 열정 청춘라인댄스

무릉도원 문곡13리 주민들이 주축이 된 청춘라인댄스팀은 밝고 경쾌한 라인댄스를 선보였다. 대부분 무대 경험이 없던 어르신들이 함께 공연하며 활력을 얻은 특별한 무대였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무대에 선 주민들의 열정과 뿌듯함을 전했다.



함께 소통하는 매력 한울 오카리나

한울 오카리나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모여 취미로 즐겁게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동호회다. 강원도에서 활동하면서 강원도 아리랑을 연주하지 않았던 게 아쉬워 편곡을 부탁해서 특별히 올해 무대에서 '강원도 아리랑'을 연주했다.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트로트, 가요, 민요 같은 친숙한 곡을 섞어 연주해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관객과 소통한 즐거운 트로트

김동현

트로트 가수 김동현은 자신의 곡과 흥겨운 디스코 메들리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무대를 꾸몄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 덕분에 즐겁고 특별했다며,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공연해왔지만, 단종문화제는 역사적 의미와 주민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 덕에 관객과의 소통을 더 깊게 느낀 무대였다고 한다.



뮤지컬로 고향에 전한 감동

권오성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권오성은 자신이 출연한 뮤지컬의 대표곡과 최근 영월에서 제작한 개인 앨범의 수록곡을 갈라 콘서트 형태로 무대에 올렸다. 어머니와 지인들이 보는 무대라 어느 때보다 긴장했지만, 무대 후 받은 격려 덕에 진정한 효도를 한 것 같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영월의 청년 예술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나가고 싶다고 한다.



현악으로 올린 역사

벨루스 콰르텟

2024년에 창단한 벨루스 콰르텟은 단종문화제에서 클래식 현악 사중주로 친숙한 가요와 '아리랑 랩소디'를 재해석하여 우아하고 깊이 있는 무대를 꾸몄다. 당일 강풍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악으로 단종의 낮을 위로하는 뜻깊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역사와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무대 위 특별한 소통

금화

매년 단종문화제 무대에 오르는 금화는 올해도 관객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친숙하고 흥겨운 곡들로 무대를 꾸몄다. 매년 참여하지만 늘 새롭게 느껴지는 단종문화제는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 특별한 축제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단종의 슬픔을 담은 노래 노수은

14년째 영월에서 농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 노수은은 단종과 정순왕후의 슬픈 이별을 표현한 감성적인 노래로 무대에 올랐다. 단종문화제 주제에 걸맞은 음악을 늘 꿈꿔왔는데 올해 그 기회를 얻어 매우 특별한 무대였다.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배려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활력 가득한 디스코 무대 김재원

동해에서 활동하는 김재원은 요양원 봉사 공연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활기찬 디스코 메들리 공연을 펼쳤다. 흥겨운 분위기로 관객들과 어울리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축제를 통해 영월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고, 공연하러 왔다가 오히려 따뜻하게 휴식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민요로 들려준 강원도 정서 안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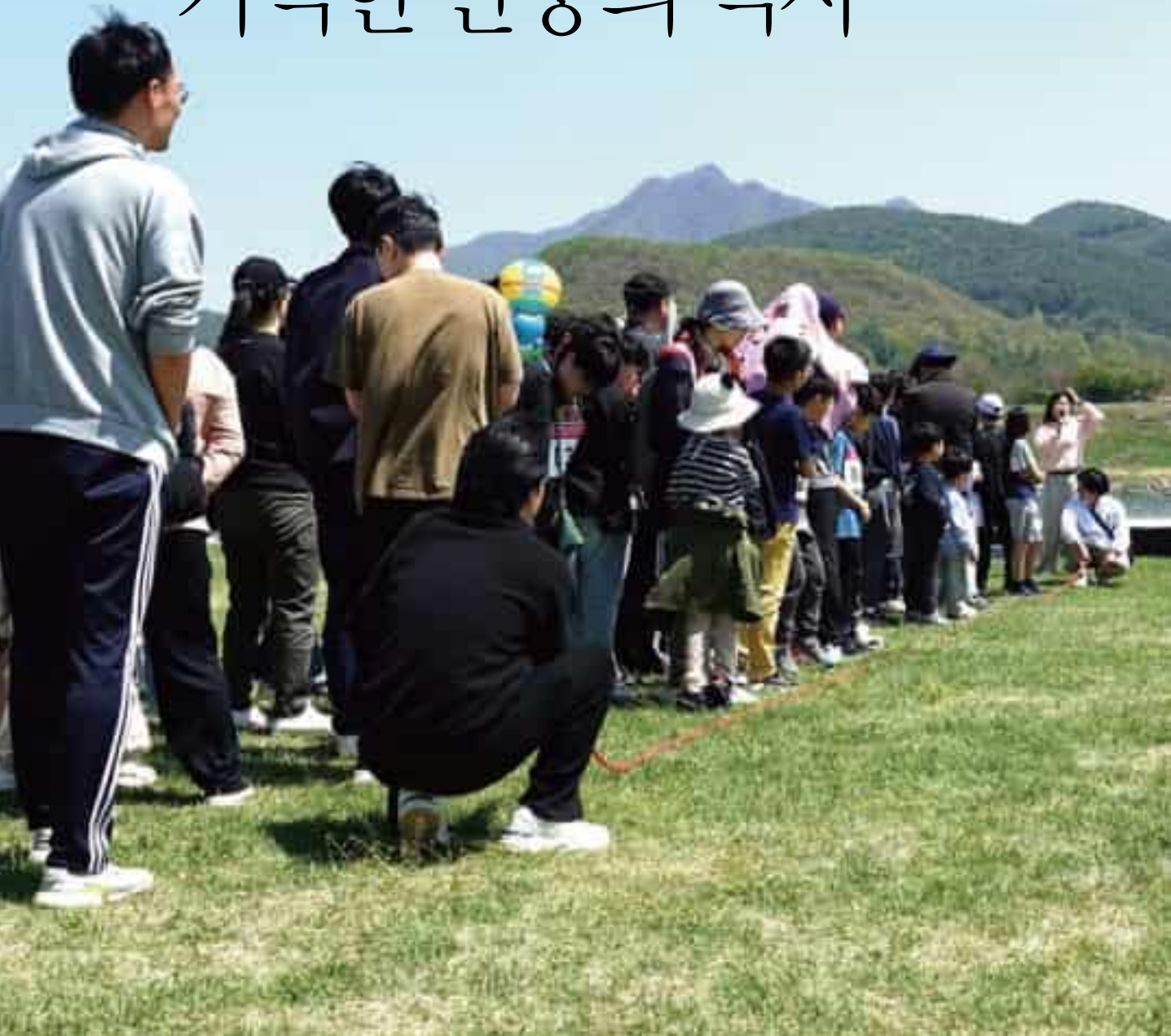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전공한 안태수는 북한에서 유래한 '야월선유가'를 이번 단종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민요를 지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 강원도의 토속 민요를 더 많이 알려 강원도만의 정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꿈을 펼친 신인 가수 강다구

제천에서 활동하는 신인 가수 강다구는 자작곡으로 무대에 올랐다. 큰 축제에서 자신의 음악을 소개할 기회를 얻어 무척 기뻐했다. 우연히 제천 지인들을 만날 정도로 축제에 대한 인근 지역의 관심도 높다는 걸 실감했다. 앞으로도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관객과 자신의 음악을 나누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두가 함께 뛰어놀며 기억한 단종의 역사





단종문화제의 '깨비노리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명랑한 축제의 장이었다. 사회자로 참여하면서 미리 단종에 대한 역사 공부를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이 매우 꼼꼼하게 준비해 온 모습에 놀랐다. 문제를 풀 때의 열정과 집중력이 굉장히 뜨거웠고, 군수님이 개막식에서 하신 말씀을 꼼꼼히 기억해 퀴즈 정답으로 맞추는 참가자도 있을 만큼 지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대단했다.

깨비노리타는 진행 내내 1등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단종문화제가 단순히 왕위에 오른 연도나 사망 연도를 맞추는 퀴즈를 넘어 단종의 슬픔을 함께 가리는 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가족과 이웃이 하나가 되어 퀴즈를 풀고 뛰어놀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가 가진 진정한 의미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영월의 역사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미경 MC

절치부심 끝에 이룬 우승

(OX퀴즈 우승자)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장인어른 닥이 영월이라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매년 단종문화제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종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작년에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못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올해는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했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깨비노리타’는 이름도 귀엽고 잔디밭 위에서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요!

(하반하세계여행학교 청소년)

“학교 활동으로 친구들 12명 정도와 참가했어요.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공연도 보고 다른 체험도 많이 했어요. ‘깨비노리타’는 특히 다 함께 둥글게 손잡고 명랑 운동회처럼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신났어요.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함께한 시간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억에 남아요!”



참여행사 장릉체험

추억을 전하는 단종문화제 체험

추억을 전하는 단종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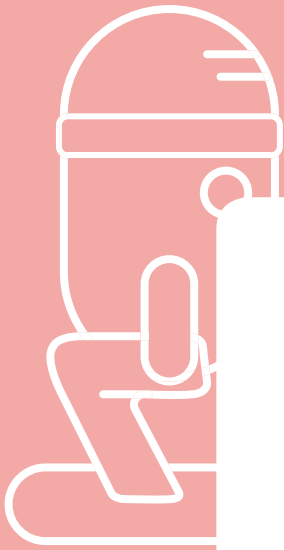
장릉 체험 프로그램은 청령포 솔방울 옮기기, 어린이 페이스페인팅, 전통 팔찌 만들기, 그림톡 만들기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청령포 솔방울 옮기기'는 젓가락 두 개로 솔방울을 옮기며, 아이들이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효정 대표에게 단종문화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특별한 문화유산이라 아이들에게도 그런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종의 역사와 그 의미를 장릉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억하도록 체험을 진행했다.

다가치 지역문화연대 이효정

자연으로 기억하는 역사, 단종의 솔방울

장릉의 소나무 아래 떨어진 솔방울을 젓가락으로 옮기는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단종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랐다. 이 솔방울은 자연 가슴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 단종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에코공작소 이명순



장릉체험 인터뷰

“장릉에 시 쓰기 행사 때문에 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웃기고 재밌단 시를 썼어요. 매년 단종문화제에 왔지만, 오늘이 제일 재밌어요! 초록색 예쁜 풍경이 떠오르는 장릉에서 페이스페인팅 하는 게 제일 기대돼요.”

신천초 5학년 박가은



“장릉에 그림 그리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그림톡 만들기를 했어요. 부모님 선물로 드릴 거예요. 팔찌도 만들어서 이름을 태라라고 붙이고, 제 분신처럼 간직할래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마차초 4학년 최태라

“오늘 그림 그리러 왔어요. 캠핑 가서 아빠랑 동생이랑 놀았던 모습을 그렸는데, 장릉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림톡 만드는 게 제일 좋았어요. 누구한테 줄지는 아직 고민이에요.”

녹천초 3학년 박준우



“장릉에서 예쁜 나무 그림을 그렸어요. 오늘 장릉은 좀 시끄럽지만 재미있고 좋아요. 만들기 체험이 제일 재밌어요!”

신천초 3학년 김민서

“올해 장릉에서 그린 그림은 단종과 정순왕후를 예쁜 봄 풍경 아래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단종은 저한테 영월의 위대한 왕이에요. 친구들에게도 단종문화제가 정말 재밌으니까 꼭 와보라고 소개할래요!”

영월초 3학년 이다은



추억을 전하는 단종문화제 체험

단청, 색으로 기억하는 전통의 가치

단청은 아름다운 장식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목조건축물은 소재 특성상 습기와 벌레 등에 취약하다. 단청은 이런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적 역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상징적이고 미적인 요소가 더해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단청으로 완성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장릉과 범흥사를 비롯한 영월 지역 주요 문화재의 단청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단종문화제에서는 단청의 매력을 쉽게 알리기 위해 건축물 단청 중 가장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양인 '마구리 단청'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참가자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안료를 직접 사용하며, 전통색의 깊이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단종문화제는 이제 단순한 역사 추모 행사를 넘어 모두가 어울리는 문화의 장으로 성장했다. 앞으로 전통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우리 연구소도 단청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지운문화재단청연구소 최문정 대표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승교육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월

“저는 인천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방문했는데, 단청 체험에서 한국 전통의 독특한 색감을 느끼고, 직접 만들고 칠하는 과정이 특별했어요. 영월은 다른 도시들과 달리 관광지 느낌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분위기여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평소엔 교사로 바쁘게 지냈는데, 오늘 하루 편하게 쉬면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Dani, 미국 캘리포니아

깨비, 영월의 수호신으로 기억되다



‘깨비’는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가리는 능말의 도깨비 설화에서 비롯되었다. 옛날 능말의 한 주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도깨비를 만났는데, 그 도깨비는 “이곳은 영험하니 훼손하지 마라”며 단종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이 설화를 기반으로 깨비는 단종의 혼이 깃든 영월의 수호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아이들이 손으로 ‘깨비’를 직접 만들고 꾸미면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이자 단종과 영월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특별한 상징으로 받아들였으면 했다. 각자의 손끝에서 탄생한 강인하고 밝은 수호 도깨비가 아이들의 마음에 단종과 영월에 대한 기억을 오래도록 남겨주기를 기대한다.

김경화 화이통협동조합 교육원장





무지개 도깨비를 만났어요!

“오늘 엄마랑 영월에 처음 왔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지개 도깨비’를 만들게 되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능말 도깨비마을은 아직 못 가봤지만, 다 만들고 가 볼 거예요. 오늘 축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해요.”

인천 장서초등학교 2학년 장승민

단종을 기억하는 달콤한 쿠키 한 조각

영월에 정착한 지 어느새 8년이 흘렀다. 처음엔 아이와 함께 작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베이킹이 ‘단종 캐릭터 쿠키’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로 성장했다. 단종과 정순왕후, 장릉을 지키는 노루와 도깨비까지 총 네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역사 이야기에 달콤한 맛을 입혔다. 코코넛 맛의 단종, 치즈 맛의 정순왕후, 초콜릿 맛의 노루, 바닐라 맛의 도깨비까지 각 캐릭터에 개성과 이야기를 담아 메시지를 전했다. 쿠키와 함께 제공하는 캐릭터 카드에는 짧은 이야기를 담아 책갈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아이들이 초콜릿 펜으로 쿠키를 꾸미며 친근하게 영월과 단종의 역사를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임재원 달콤한 쭈니네 대표

단종문화제 영월학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 1

아기장수형(型) 인물신(人物神)으로서 단종과 요시쓰네 비교 연구

박정애(소설가, 강원대학교 교수)

1. 서론

2025년은 단종이 승하한 지 568주년이 되는 해이며, 1967년에 시작된 단종제는 58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2007년 단종문화제에서 단종국장을 선보인 지 1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강원도 영월군은 지난 58년간 단종문화제를 지역의 문화적 표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니와 특히, 단종의 제향을 넘어 국장(國葬)을 추진한 배경에는 역을하게 귀양 와서 죽은 어린 단종의 한을 지역민이 풀어주고 위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의 제6대 국왕인 단종(端宗, 1441~1457)은 조선 왕조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운명을 지닌 임금이었다.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난 단종은 1448년 8세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고, 1452년 5월 부왕인 문종이 서거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즉위 후 1년 반만인 1453년 10월, 숙부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황보인, 김종서 등 단종의 보필 세력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으며, 이는 단종의 비극적 운명의 시작이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한 후 1455년 윤6월 11일,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으로 물러났다. 1456

년 6월에는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이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청령포에 갇힌 단종은 자살을 강요받다가 1457년 10월 24일에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수습하여 현 위치에 매장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공식 제사도 받지 못하고 찾는 이도 없었다. 이후 1698년(숙종 24)에 이르러서야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복위되고 장릉(莊陵)이라는 능호를 얻게 되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연민하며 지역의 수호신으로 숭배해왔다. 우리 민속에서는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관습이 있었거니와 단종 역시 이러한 전통 속에서 신격화되었다. 단종 복위 이전에는 정치적 이유로 공식적인 제사가 금지되었으나, 지역민들은 비밀리에 단종을 기렸다. 1698년 숙종 재위기에 단종이 복위되면서 단종에 대한 제사가 공식적으로 부활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역민들의 단종 신앙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단종과 관련된 전설과 민요, 민속놀이, 의례, 무속 등은 단종 선양(宣揚)을 지속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단종제는 단종에 대한 지역민의 애뜻한 감정을 반영하며,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단종뿐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겪은 인물, 이를테면 최영이나 남이, 임경업 등은 종종 후대에 의해 신격화되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원령(怨靈) 신앙과 신도(神道)의 결합에 의해 이런 식의 신격화 현상이 더욱 빈번히 목격된다. 그중에서도 혈족 간 권력투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비운의 귀공자 이미지로 우리의 단종과 유사성을 보이는 인물이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 1159~1189)다. 요시쓰네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 가마쿠라 시대 초기의 무장으로 일본인들에게 비극적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의 9남으로 태어났으며, 가마쿠라 막부의 초대 쇼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이복동생이다. 요시쓰네는 원수 헤이케 가문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가마쿠라 막부를 여는 데 큰 공을 세웠으나, 형인 요리토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된다. 요시쓰네는 요리토모의 계속된 추적을 피해 히라이즈미에 숨어 지내다가 1189년 자살로 내몰린다.

요시쓰네의 비극적 생애와 죽음은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약자의 영웅, 즉 ‘호간비이키(判官びいき)’로 숭배되는 등 신화적 변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신격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적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집단 기억의 산물이자 후대의 역사·문화적 필요에 의한 창조적 재해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 광포 설화인 아기장수 이야기는 우리가 산야에서 흔히 마주치는 장군봉이나 장수바위, 용마굴, 장수굴과 같은 지명 유래와 현대의 아기장수 소재 콘텐츠로 오늘날에도 존재감이 큰 설화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춘천에도 금산리에 장군봉, 금병산에 장수바위가 있는데, 안정효의 『은마는 오지 않는다』, 김유정의 『두포전』에서 각각 핵심 모티프로 활용되었다. 영월에서도 도원리, 거운리, 덕포리, 하송리 등에서 유사한 설화가 전하여 내려오고 있거니와 덕포리의 용마굴과 용마암, 도원리의 명마동(鳴馬洞) 등이 전설의 증거물로 거명된다.¹⁾ 아기장수 작품군은 “한국 역사의 일정한 시기 특히 왕조교체를 전후로 한 즈음에 부각되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구원자적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6835&cid=70130&categoryId=70199>, “장사 나고 용마 난다”, 『디지털영월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5199&cid=70130&categoryId=70209>, “용마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5년 4월 18일 검색.

영웅’에 대한 민중의 소망으로 이해”(김수업, 1995)되었다.

본 연구는 단종과 요시쓰네의 비극과 억울한 죽음의 집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신격화 내러티브가 아기장수의 서사 구조와 유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아기장수형 인물신’이라는 개념—즉,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인물이 민중의 염원 속에서 신적 존재로 승화되어 공동체의 기억과 신앙 안에 살아 숨 쉬는 존재를 바탕으로, 단종과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의 신격화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극적 영웅이 각 문화에서 어떻게 집단 기억, 민속 신앙, 사회심리적 맥락 속에서 형성·재해석되는지 살피고, 한국과 일본 전승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단종과 요시쓰네의 신격화 및 민속적 전승 과정을 설명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선행 연구들은 두 인물의 비극적 삶과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변천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들이 어떻게 신화적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단종과 요시쓰네는 모두 권력투쟁의 희생자로서 불의한 죽음을 맞이한 후, 전설화와 신격화를 통해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단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그가 유배된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와 민속 의례, 다양한 장르 수용과 현대적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김효경(1998)의 논문은 단종이 신격화되는 과정을 다각도로 조망하면서 단종의 짧은 생애와 죽음에 대한 연민, 민간의 기억 형성과 재구성 과정, 그리고 집단 정체성의 강화라는 상호작용이 단종 신앙을 형성했음을 밝힌다. 최명환(2006)의 연구는 단종 설화의 형성과 전승 양상을 분석하여, 단종의 유배와 죽음을 기반으로 한 설화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는 단종이 태백산신으로 신격화되는 과정을 상세히 논의하며, 해당 설화가 역사적 사실, 허구적 요소, 신화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형태로 전승됨을 강조한다. 특히, 단종이 정치적 희생자로서 조선 후기까지 공식적으로 억압되었으나, 민중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억되었으며, 복위 이후에는 전설, 민요, 제례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지적한다. 최용신(2011)은 단종 설화의 현대적 전승 양상을 연구하며, 이갑순 씨의 연행본을 중심으로 단종 설화가 현대적으로 재창작되고 변형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는 현대 단종 설화가 비극성과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일반적인 기이한 이야기나 민담적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꿈을 통한 단종의 출현이 현대적 설화에서 두드러지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이 단종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강조한다. 박선애(2018)는 영월 지역 민요를 중심으로 단종애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대왕인산요>, <한양가>, <쌍다리 노래>, <영월팔경가> 등의 민요를 분석하며, 단종의 삶과 죽음이 민요를 통해 서사적으로 재구성됨을 논의한다. 박선애(2020)는 나아가 단종 신화가 현대적으로 수용되는 방식과 단종문화제의 형성 과정에 대해 분석하며, 단종 이야기가 지역 축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종이 청령포에서 자연적 요소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려 했다는 점이 강조되며, 오늘날 민요 및 제례에서 자연적 상징이 신성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홍태한(2009)의 연구는 영월에서 열리는 단종제의 주요 의

레인 대왕궁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는 대왕궁이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한 의례적 행위로 수행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영월의 독창적 무속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대왕궁이 향후 지역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며, 단종 신앙이 현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주한(2018)7)은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를 분석하여, 단종의 비극적 삶과 죽음이 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는 소설에서 영월이 단종의 비애를 담아내는 장소를 넘어 민족 자아를 재건하는 은유적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강조하며, 단종 서사가 조선사를 넘어 민족주의적 담론과 연결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요시쓰네와 관련된 연구는 일본 전통극, 군기물(軍記物), 가부키 등의 문화적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윤지(2012)8)의 연구는 일본 전통극인 노(能)에서 요시쓰네가 어떻게 대중 서사 속 이상적 영웅으로 재창조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요시쓰네 서사가 ‘호간모노(判官物)’라는 독특한 장르로 정착하며, 난세에 고단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일본 민중의 집단 희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최정은(2015)9)의 연구는 요시쓰네 서사가 노뿐 아니라 고와카마이(幸若舞), 인형조루리(人形淨瑠璃), 가부키(歌舞伎), 영화, TV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변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며, 그의 이야기가 약자와 영웅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조합하여 일본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는 요시쓰네 서사가 단순한 역사적 서사를 넘어 창가(唱歌)와 국정교과서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집단 기억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논증한다. 특히, 요시쓰네의 이야기가 교육 시스템과 국가 정책을 통해 민족 정서를 고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의 신화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박은희(2023)는 요시쓰네의 최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을 살펴본다. 전통적인 사료와 중세 문학 작품들을 통해 요시쓰네의 할복 자결과 명예로운 죽음의 이미지가 형성된 반면, 이를 부정하는 생존설과 홋카이도(에조치)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이질적인 결말도 공존함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중적 결말이 요시쓰네라는 인물에 대한 시대별 욕망과 사회적 맥락, 정치적 목적의 반영임을 밝힌다.

한편, 아기장수 설화는 민속학, 구비문학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 이야기 자체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뛰어난 힘과 신이한 능력을 지닌 아기장수가 태어나지만, 부모나 주변인의 선협적 공포와 외부 권력의 억압으로 인해 날개가 잘리고 결국 억울하게 제거된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비범한 탄생, 억울한 죽음, 재생에 대한 열망 혹은 실패라는 세 가지 핵심 구조를 지닌다. 천혜숙(1986)은, 신이한 조짐을 보이는 아기장수를 가족들이 죽이자 용마가 나타나 울다가 용소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제1유형으로, 신이한 아이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앞날을 도모하는데 어머니의 발설로 거사 직전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제2유형으로 보았다. 300여 편을 넘는 아기장수 설화의 각편 채록과 범주화 등 초기 연구가 축적되면서 변이 혹은 응용 양상, 활용법 제안, 다른 설화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권도경(2013)은 아기장수 설화의 서사 가지(narrative tree)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TV드라마 <각시탈>이 이 아기장수 설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서사를 창출했는지를 분석한다. 논문은 아기장수 설화의 변형과 <각시탈>의 내용을 비교하여, 역사적 고찰을 통한 민족 집단의 정체성과 트라우마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정재철(2016)은 아기장수 설화를 기호학적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아기장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 특히 날개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여 모함의 대상이 되며, 이는 당시 사회의 지배 질서와 기득권층의 억압을 상징한다. 콩과 팥 등 곡물은 아기

장수의 죽음 이후 군사로 변모하여 부활을 상징하며, 이는 아기장수를 따르는 민중의 열망과 지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곡물의 변모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민중의 이중적인 열망을 드러낸다. 강봉근(2004)은 중국 조선후 설화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 양상을 탐구하고, 정현정(2018)은 한국 아기장수 설화와 일본, 베트남의 아기장수 설화를 비교 연구하면서 다문화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아기장수형 인물신’ 개념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한 논문은 신동훈(1990)의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와 김수연의 「민간도교의 서사전통과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이다. 신동훈은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두 유형의 설화가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혁과 집권세력에 대한 저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아기장수 설화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와 어머니의 배반이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아기장수 서사는 진인출현설로 흡수되거나 변형되며, 이야기의 중심이 과거의 예고에서 현재의 실현으로 전환된다. 두 설화 모두 민중의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체제 전복이나 이상적 사회에 대한 열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사라진 아기장수’라는 모티프는 진인출현 담론의 기초로 작용하면서, 민중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서사적 장치를 제공한다. 김수연은 제주 민간도교와 결합한 ‘날개 달린 아기장수’를 중심으로 신화적 상상과 집단 내 트라우마의 관계를 탐구한다. 제주도 아기장수 서사는 제주도의 사회역사적 비극 경험과 연동되어 구원자의 능력이 훼손되고 절망하는 공동체의 내상(內傷)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민간도교의 진인 사상²⁾과 결합하여 그 극복과 재생에 대한 욕망을 담는다.

이렇듯 아기장수 설화가 보이는 ‘비범한 탄생 - 억울한 죽음 - 진인 출현’의 구조는 단종이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나 숙부에 의해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민간의 신앙적 기억과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요시쓰네가 그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시기로 몰락한 뒤 전국적으로 신앙화되는 과정과 강하게 상응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해보겠다.

3. 사라진 아기장수는 어디로 가서 무엇이 되었나 : 신격화의 심리적 기제

3-1. 귀종(貴種)의 표박(漂泊)과 민중의 카타르시스

귀종성(貴種性)은 출생의 신이함 혹은 고귀한 혈통, 비범한 능력이나 신체적 표지, 공동체가 인정하는 정통성 등을 통해 표현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특정 인물이 민중의 집단 상상력과 만나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세계 신화와 종교에서 귀종성의 표현 양상은 다양하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

2) 「태평경」은 신선의 계보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첫째를 신인(神人), 둘째를 진인(眞人), 셋째를 선인(仙人), 넷째를 도인(道人), 다섯째를 성인(聖人), 여섯째를 현인(賢人)이라 하고 진인은 땅을 주관한다고 했다. 모종감(牟鍾鑑), 이봉호 옮김, 『중국도교사: 신선을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 예문서원, 2015, 39쪽.

로 잉태된 하느님의 독생자로서, 천사의 수태고지와 동방박사의 경배 등으로 그 귀종성이 확인된다. 불교에서 석가 모니는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다고 하는데, 이러한 탄생기 자체가 부처의 신성함을 내포한다. 우리 설화 속 아기장수는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날개 혹은 비늘과 같은 신이한 신체적 표지를 지녔다. 게다가 아기를 돕기 위한 신수(神獸)로서 용마가 함께 태어났다는 것이 그 귀종성의 징표라 할 만하다. 용마 또한 신이한 기운을 지닌 천마로서, 아기장수와 한 몸처럼 엮여 미래의 구세주로 기능할 운명을 공유한다.

단종과 요시쓰네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귀종성을 체현한 실존인물의 대표적 사례이다. 단종은 개국한 지 50년 밖에 안 된 조선 왕조의 첫 왕세손으로, 당시 세자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났으니 혈통적 귀종성의 정점에 있었다. 후대에는 민중의 상상력이 그에게 부처의 탄생과 흡사한 신성성을 부여하기까지 했다.³⁾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는 헤이안 시대 말기의 이름난 무가(武家) 미나모토 가문의 귀종성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어린 나이에 쿠라마데라(鞍馬寺)에서 수행할 때 텐구(天狗)에게 무예를 배웠다는 전설은 그의 비범한 능력에 초자연적 기원을 부여한다. 이처럼 두 인물은 혈통적인 귀종성 위에 민중의 상상력이 덧입혀져 귀종성이 강화되었다.

귀종유리담(貴種流離譚) 혹은 귀종표류담(貴種漂流譚)은 귀인이 먼 땅을 떠돌며 고난과 역경을 겪는 서사를 의미한다. 중세 문학에서 발견되는 이 서사 양식은 영웅담과 달리 주인공의 승리보다는 비극적 서정성에 초점을 맞춘다. 귀종유리담의 서사 단계는 일반적으로 ① 신이한 출생과 귀종성의 표출, ② 정치적 격변과 추방, ③ 유랑과 표박의 과정, ④ 비극적 죽음과 사후 신격화로 구성된다.

단종의 경우,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나(1단계) 8세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나, 계유정난으로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2단계) 영월로 유배되어(3단계) 16세의 나이에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4단계). 이후 영월 지역에서 산신으로 숭배되며 신격화된다.⁴⁾ 요시쓰네는 미나모토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1단계) 헤이케 가문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형 요리토모의 시기로 권력에서 배제되고(2단계), 일본 각지를 도망 다니다(3단계) 결국 히라이즈미에서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4단계). 사후에는 원령(怨靈)에서 영웅적 신격으로 변모했다.

두 인물은 문화적 재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련한 처지에 놓인 ‘어린 귀공자’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단종은 실제로도 10대 소년이었으나, 요시쓰네가 요리토모의 추적으로 피해 오슈(奥州)로 도망갈 때의 나이는 29세였다. 그럼에도 노 <아타카>에서 요시쓰네를 ‘고카타(子方, 아역)’가 연기하는 까닭은, “애처로움을 배증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인 것이다.”(최정은, 2015, 65쪽) 이렇듯 소년성의 강조는 귀종유리담의 비극성을 강화하고 민중의 연민을 극대화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이론도 단종과 요시쓰네의 신격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공포(φόβος)와 연민(ἐλεος)을 통해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유발한다고 논했다. 공

3) “갑사(甲士) 안계조(安繼祖) · 유자공(兪自恭) · 유자명(兪自明) · 김순동(金順同) · 박미(朴眉)가 홍례문(弘禮門)에 입직(入直)하였는데, 밤중에 유자공이 이르기를, ‘노산군(魯山君)은 오른쪽 옆구리(右脅)에서 탄생하였다.’ 하니, 안계조가 대답하기를, ‘이는 부처[佛]이다.’ 하고, …(하략)….” 성종실록, 성종 3년 임진(1472) 10월 9일자 기사.

4) 박충원이 단종에게 바쳤다는 제문에 이 4단계가 모두 담겨 있다.
“왕실의 자손이요 王室之胄 / 어린 임금이니 幼沖之辟 / 마침 불행한 운명을 만나 適丁否運 / 궁벽한 고을에 피하셨네 遜于僻邑 / 한 조각 청산에 一片靑山 / 만고의 영혼이로다 萬古英魂 / 바라옵건대 강림하시어 庶幾降臨 / 제사를 받으소서 式歆苾苾” 순조실록 순조 8년 무진(1808) 4월 10일자 기사.

또는 운명적 불행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고 연민은 부당하게 고통받는 무고한 이의 고통에 대해 느끼는 깊은 감정적 반응이다. 이 두 감정은 관객이 비극적 사건과 주인공에 몰입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단종과 요시쓰네의 비극적 서사는 이 두 가지 정서를 자극한다. 우선 공포를 보자면, 조선에서 단종의 폐위와 유배는 왕권의 불안정성과 권력 질서의 급변에 대한 집단적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영월 지역에 전해지는 단종의 죽음 이후 관리들이 갑자기 죽는 재앙 설화는 이러한 공포의 구체적 표현이다. 일본에서는 요시쓰네와 요리토모의 형제 갈등이 무사 사회의 근본적 불안정성을 드러냈으며, 막부 초기의 정치적 변동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반영했다. 가마쿠라 막부는 요시쓰네의 원령으로 인한 재앙을 두려워하여 특별한 의례를 발전시켰다. 또한 단종의 어린 나이와 무고함은 민중의 깊은 연민을 자아냈다. 요시쓰네도 신출귀몰한 전쟁 영웅이었다가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비극적 최후를 맞는 모습이 호간비이키(判官顚戾)라는 말을 탄생시킬 만큼 민중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요컨대 단종과 요시쓰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이 죽음이 민중에게 유발한 공포와 연민, 그리고 이로부터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라는 두 인물의 신격화를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

3-2. 재이(災異)와 진혼(鎮魂), 공희(供犧)의 문화적 역동

각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단종과 요시쓰네는 원혼(怨魂)과 원령(怨靈)이라는 신령적 존재로 재해석되는 문화적 변용 과정을 경험하였다.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는 원한이 깊은 영혼이 재이(災異)를 불러온다는 믿음이 존재했다. 이때 재이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정치적,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는 징후로 해석되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재이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에 기초하여 해석되었으며, 특히 통치자의 부덕(不德)이나 정치적 불의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이해되었다.(최봉준, 2021)

단종의 경우, 그의 사사 이후 영월 지역에 발생한 이상기후와 관직자의 연이은 사망은 단종의 원혼이 초래한 재이로 해석되었다. 이는 “군주의 부덕이 자연재해를 초래한다”는 성리학적 재이관이 역설적으로 피해자인 단종의 원한에 적용된 사례로, 정치적 역학 관계의 전환을 보여준다. 중종 대에 박충원이 단종을 위한 제사를 지낸 후 재이 현상이 소멸되었다는 기록⁵⁾은 당대인들의 원령의 작용, 재이, 진혼의 인과적 세계관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렇듯 단종을 위한 진혼 의례는 중종 대에 시작되어 점차 제도화되었고, 산신제, 서낭제, 무속 굿 등 다양한 민간신앙의 형태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종신앙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요시쓰네의 원령은 일본 전통의 어령신앙(御靈信仰)의 틀 안에서 해석되었다. 일본인들은 비운의 죽음을 당한 사

5) 선조(수정실록) 14년 신사(1581) 2월 1일자 기사, ‘전 판서 박충원의 즐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충원은 문명(文名)으로 벼슬 길에 진출하였으나 임백령(林百齡)에게 미움을 받아 영월 군수로 쫓겨났다. 영월에 요사스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관리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산군(魯山君)의 빌미라고 하였다. 그러자 충원이 제문(祭文)을 지어 묘소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문에 ‘왕실의 원자로서 어리신 임금이었네. 청산의 작은 무덤 만고의 쓸쓸한 혼이로다.’ 하였다. 그 뒤로 이 제문을 축문으로 사용하였다. 충원이 6년 동안 군수로 있었으나 끝내 탈이 없었고 요사스런 말도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그를 칭송하였다.”

람의 영귀(靈鬼)가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고 그를 고료(御靈)의 재앙이라 두려워했다. “고료라는 것은 원령에 내포된 개념으로서, 「고(御)」라는 경칭을 원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거칠고 난폭한 영이 부드럽고 온순한 영으로 전환시키는 진혼의 방법이기도 하다. 더불어 원한의 감정이 완화된 영은 절이나 사원에 모셔져서 신격화된 원령을 의미한다.”(최정은, 2015, 85쪽) 가마쿠라 막부는 요시쓰네의 원령이 내릴 재앙을 두려워하여 원령의 분노와 원한을 달래고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서 다양한 진혼 의례를 제도화하였다. 일본의 전통 연극 노에서는 요시쓰네의 원령이 주역(シテ)으로 등장하여 그의 한을 풀어주는 서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원령을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기제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에서 요시쓰네는 겐지(源氏) 가문의 정통이자 영웅으로 요리토모와 동등한 지도자(棟梁, 토료)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묘사된다.

단종과 요시쓰네의 죽음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의미는 공희(供犧)의 개념과 연결된다. 르네 지라르는 그의 저서 『희생양』,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위기의 공동체가 특정 인물을 희생양으로 삼아 내부의 갈등과 폭력을 해소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종교적 제의와 신화, 그리고 사회 구조의 형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Girard, 1986) 이중원은 희생양의 한 예로 역병에 시달리는 테베 시민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전체 시민의 합에 상응하는 부친살해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대역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오이디푸스를 거론한다.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 전체 시민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간주되었다. 오이디푸스 왕은 역설적으로 절대 악인 동시에 절대 선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 왕은 희생양의 자격으로 테베 도시를 구하기 위해 신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은 성스러운 아우라를 덧입게 된다.”(이중원, 2016, 640~641쪽)

단종과 요시쓰네는 각각 세조 체제와 가마쿠라 막부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정당화를 위한 상징적 희생양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이들의 비극적 죽음이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자발적 순응의 형태로 서사화됨으로써, 단순한 정적 제거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공희로 승화되었다.

우선 ‘복덕이를 통해 죽은 단종’ 설화를 살펴보자. 세조는 영월에 유배된 단종을 죽이기 위해 사자를 보내 사약을 내렸다. 그러나 사자는 어린 단종에게 사약을 내밀지 못하고 독약 그릇을 강물에 버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조는 다시 다른 사자를 보냈지만, 그 역시 같은 이유로 자살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단종은 자신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슬퍼했다. 단종은 궁노 복덕이에게 개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시킨 후, 개를 잡는다고 하며 복덕이에게 줄을 당기게 했다. 복덕이가 줄을 힘껏 당겼으나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이상해 방문을 열어보니, 명주 줄은 단종의 목에 매어져 있었다. 복덕이와 궁녀들은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벽에서 강물로 몸을 던져 잇따라 자살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성군의 품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인물들 역시 성군을 향한 충성심으로 생을 바친다는 유교적 덕목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⁶⁾는 이 설화는 공희의 본질을 보여준다.

『요시쓰네 이야기(義経記)』 7권에 그려진 요시쓰네의 최후 또한 요리토모의 권력에 대한 자발적 순응으로서의

6)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 설화는 “2006년 간행된 『강원설화총람』 4권에 수록되어 있다. 2004년 10월 2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로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노재순[여, 88세]에게 채록한 것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6835&cid=70130&categoryId=70199>. 2025년 4월 18일 검색.

자결이다. 야스히라가 습격할 것이니 어서 도망치라는 내용을 담은 모토나리의 편지에 요시쓰네는 이렇게 답장한다.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 도망쳐야 하겠지만 역적 된 몸으로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간들 일본에서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결을 준비하겠습니다. 화살 한 번 쏘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세에는 꼭 극락정토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박은희, 2023, 289쪽에서 재인용)

오늘날에도 단종과 요시쓰네는 제도화된 의례와 문화행사 등을 통해 기억되고 있다. 이들을 기리는 의례는 거룩한 희생양에 대한 공동체의 연민과 죄의식을 정화하는 상징적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3-3. 문화적 트라우마와 집단적 애도의 기제

제프리 알렉산더(Alexander, 2012)는 문화적 트라우마를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그들의 미래 정체성을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경험”으로 정의한다. 단종의 폐위와 유배, 그리고 비극적 죽음은 조선 사회에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라는 문화적 트라우마로 작용하였다. 특히 계유정난으로 인한 정통성 단절과 세조 집권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불안과 집단적 죄책감을 초래하였고, 이는 영월 지역민의 단종 신격화로 이어졌다.

도미니크 라카프라(LaCapra, 2001)의 ‘부재(absence)’와 ‘상실(loss)’ 개념은 요시쓰네 신앙 형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라카프라에 따르면 ‘상실’은 특정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구체적 경험인 반면, ‘부재’는 보다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결여를 의미한다. 요시쓰네의 죽음은 역사적 인물의 ‘상실’과 이상적 무사도의 ‘부재’가 중첩된 사례로, 호간비이기 정서는 이러한 이중적 결여에 대한 멜랑콜리적 애착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요시쓰네가 죽지 않고 훗카이도나 몽골로 도망쳤다는 전설은 트라우마적 상실을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집단적 환상(fantasmatic narrative)으로서, 라카프라가 지적한 “트라우마의 행위화(acting out)”의 실례를 보여준다.

마릴린 허쉬(Hirsch, 2012)의 포스트메모리(postmemory) 개념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선조들의 트라우마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단종 신앙의 시간적 지속성은 이러한 포스트메모리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 영월 지역에서 수백 년간 지속된 단종제와 같은 의례는 포스트메모리를 구체화하고 현재화하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하며, 과거의 집단적 상처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지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의례가 단순한 애도를 넘어 지역 정체성의 핵심 서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요시쓰네 전승에서는 나라타 텍스트(Narrata-text) 개념(Sztompka, 2000)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원(原)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문화적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노, 가부키와 같은 전통 예술 형식에서 요시쓰네의 재현은 트라우마의 미학적 승화를 보여준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후 요시쓰네 이야기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활용된 것은 집단 트라우마가 정치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이는 아스만(Assmann, 2011)이 제시한 문화적 기억의 정치화 과정과 일치한다.

주디스 허먼(Herman, 1997)은 트라우마 회복 과정을 ①안전 확립 ②기억과 애도 ③일상과의 재연결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이 모델을 단종 신앙에 적용하면, 단종의 산신화는 위협적 사건(계유정난)에 대한 안전한 거리 확

보(①), 의례를 통한 기억의 구체화와 애도(②), 그리고 지역 축제와 문화 자원으로서의 통합을 통한 일상과의 재연결(③)이라는 집단적 치유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신앙에서 공식 제도로, 다시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변모하는 과정은 트라우마 치유의 사회문화적 확장 양상을 잘 보여준다.

요시쓰네의 경우, 『헤이케 모노가타리』나 『요시쓰네 이야기』 같은 문학작품은 트라우마적 과거를 재구성하는 치유적 서사로 기능했다. 카루스(Caruth, 1996)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러한 서사는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언어화하는 시도”로서, 패자 요시쓰네가 영웅으로 승격되는 과정은 집단적 무력감을 극복하고 대리적 승리감을 제공하는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신화적 서사의 변이와 민중의 상상력

아기장수 설화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이되며, 공동체의 감정과 상상력이 덧입혀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극적 결말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역-특히 제주도와 전라도-에서는 아기장수가 부모의 살해 위기를 극복하거나 구원의 상징으로 살아남는 해피엔딩 구조가 발견된다. 이러한 변이는 진인(眞人) 출현설과 결합되어, 아기장수가 장차 세상을 구원할 영웅으로 귀환한다는 메시아적 상상력을 내포한다.

엘리아데는 인물의 신화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 바 있다. “역사적 인격이 백성들의 기억 속에 수용되자마자, 그의 역사적 인격은 소거되고 그의 전기는 신화의 규범에 의해 재구성된다.”(엘리아데, 1998, 66쪽) 이와 같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집단기억은 사실성과 구체성을 탈각시키고, 보다 보편적인 전형적 구조로 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기록의 부재로 인한 우연적 귀결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감정과 시대적 염원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시쓰네의 경우, 가마쿠라 막부의 공식 사료 및 당대 문인들의 기록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의 생애에 대한 서사는 민중의 자유로운 해석과 상상에 의해 풍부하게 재구성되었다. 그 결과, 요시쓰네는 호간 비키라는 용어가 상징하듯, 일본 대중문화 속 약자에 대한 동정의 표상이자 비운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그의 생존설은 홋카이도 혹은 만주 금나라로의 피신, 더 나아가 몽골의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전설로까지 확장되면서, 요시쓰네는 이상화된 영웅 서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단종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선 설화적 재구성을 통해 신령적 존재로 승화되었다. 단종의 생애를 둘러싼 실록의 기록은 정치적 금기 속에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공백은 민중의 상상력을 통해 태백산 산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단종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보존이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을 지탱하는 민속 신앙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화화 과정에서 조력자 혹은 주변 인물의 존재는 중심 인물의 비극성과 숭고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유배지에서 단종을 보필한 추익한과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한 엄홍도, 정사충은 그 충절과 헌신을 통해 단종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절절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찬가지로 요시쓰네 결의 승병 무사시노 벤케이는 충성과 무사의 윤리를 대표하는 존재로, 요시쓰네의 서사에 도덕적 깊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보조 인물들의 존재는 영웅의 도덕성과 신성성을 떠받치는 구조적 요소로 기능한다. 그들의 헌신은 민중

서사 속에서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희생과 충절의 가치를 영속시키는 문화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단종과 요시쓰네는 이와 같은 민중적 상상력과 서사적 장치들에 의해 아기장수형 인물신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화적 영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4. 한일 전승 양상의 비교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가는 단종



시모노세키 단노우라 공원에 있는 요시쓰네 동상

단종과 요시쓰네는 각각 조선과 일본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신격화된 인물로, 아기장수형 인물신이라는 공통된 서사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그 전승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 두 인물의 전승 양상을 신앙의 제도화, 문학과 예술을 통한 문화적 재현,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신앙의 제도화 측면에서 단종은 조선 후기에 공식적으로 복위되며 장릉제, 단종제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제의 대상으로 격상되었다. 숙종 24년(1698) 단종 복위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며, 단종제는 영월 지역 주민들의 민속 신앙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요시쓰네의 경우, 일본에서는 어령 신앙과 불교·신도의 혼합적 종교 환경 속에서 원령으로 숭배되었고, 특정 지역에서의 신사 제의보다는 전국적 범위의 문학·예술 전승을 통해 신화화되었다. 요시쓰네를 위한 제사는 막부 초기에는 정치적 안정 목적의 진혼 형태로 행해졌으나, 이후에는 개인적 동정과 애도의 감정을 담은 문화적 기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문화적 재현과 예술적 전승 양상에서 두 인물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종은 민요, 무속, 설화 등 지역

공동체 내부의 민속 장르에서 중심으로 재현되었으며, 그의 이미지 형성은 공동체의 트라우마 치유와 지역 정체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단종 설화는 청령포, 관풍헌, 장릉 등 실제 장소와 결합되어 역사와 공간의 기억을 동시에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반면 요시쓰네는 노, 가부키, 인형극, 현대 영화, TV 드라마 등 일본 전통 및 대중 예술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고, 호간비키카라는 약자 숭배 정서와 결합되어 이상적 영웅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연계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단종의 경우 복위 이전까지는 정치적 금기에 속한 존재였으나, 복위 이후에는 왕조 정통성 회복과 유교 질서의 재확립이라는 명분 하에 그 신앙이 제도적으로 용인되었다. 단종 숭배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과 민심의 조화를 상징하는 의례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지역 축제인 단종문화제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고양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반면 요시쓰네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의 국정 교과서, 창가, 군국주의 교육 등에서 이상적 무사의 전범으로 활용되며, 사무라이 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요시쓰네 생존설이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홋카이도 개척기에 요시쓰네가 애초지(蝦夷地, 지금의 홋카이도)로 도망쳤다는 전설은 아이누 토착문화를 일본화하는 종교·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었다. 요시쓰네는 아이누 신 오키쿠루미의 대체자로 등장하며, 신사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이는 일본 제국이 홋카이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나아가 요시쓰네가 만주로 건너가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전설은 일본의 만주 침략 시기에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 설화는 ‘동양의 대륙으로 진출해야 할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서사적 정당화 도구로 기능하였다. 스에마쓰 겐초와 오야베 겐이치로 같은 지식인들이 이 담론을 퍼뜨렸고, 이를 통해 요시쓰네는 민중의 비극적 영웅에서 국가주의적 침탈의 정당화 상징으로 변모하였다.

이처럼 단종과 요시쓰네는 아기장수형 인물신의 서사구조를 공유하면서도, 그 전승 양상에서는 민속 신앙의 지역성 vs 국가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단종은 지역 공동체의 기억 속에 비극적 성군이자 산신으로 남았고, 요시쓰네는 일본 문화 전반에 스며든 비극적 영웅이자 이상화된 무사의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종교적 기반(유교 vs 신도·불교), 문화 예술의 전통, 정치권력과 민속 신앙의 관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이를 통해 단종과 요시쓰네의 신격화는 흡사한 서사를 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망 속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단종은 민간 제례와 지역 축제를 통해 공동체적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성군이 된 반면, 요시쓰네는 문학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상화된 비극적 무사로 재현되었다. 이때 단종의 신격화는 민속 신앙의 지속성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강화했고, 요시쓰네는 국가 주도의 문화 기획에 흡수되어 사무라이 국가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단종과 미나모토노 요시쓰네를 아기장수형 인물신이라는 서사적 범주 안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비극적 영웅의 신격화가 어떻게 각국의 문화적 기억과 정치적 질서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종과 요시쓰

네는 모두 혈통의 귀종성과 억울한 죽음을 공유하며, 사후에는 민중의 신앙, 예술적 재현, 국가적 기획 속에서 다양한 신화적 형상으로 변이되었다.

단중은 유교적 성리학 체계 안에서 '재이-진혼-공희'의 삼중 구조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수호신으로 거듭났으며, 영월의 제례와 축제를 통해 집단 정체성과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요시쓰네는 일본 고유의 어령신앙과 호간비 이키 정서를 바탕으로 원령에서 이상적 무사로 승화되었으며, 중세 문학부터 현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화 자원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요시쓰네 생존설은 홋카이도 개척과 만주 침략이라는 제국주의적 욕망과 결합되며, 국가 주도의 담론 생산과 유포를 통해 그 상징적 위상을 획득하였다. 이는 아기장수 설화의 '죽음을 넘어 귀환하는 진인'이라는 내러티브가 민중의 희망뿐 아니라 국가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전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두 인물의 신격화는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상징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민속적 상상력, 그리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략적 수용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들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되고 재현되는 살아 있는 문화 코드이며, 비극과 희망, 억압과 저항, 기억과 망각의 교차점에 놓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비교 연구는 역사적 비극을 서사적 구조와 문화적 층위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억의 정치성과 신화화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공동체가 고통의 역사를 어떻게 승화시키며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지를 탐색하는 인문학적 탐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봉근, 「중국 조선족 설화에 나타난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 양상」, 『한국언어문학』, 제52집, 2004.
-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 〈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163호, 2013.
- 김수업,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수연, 「민간도교의 서사전통과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고전문학연구』 51집, 2017.
- 김효경, 「端宗의 신격화 과정과 그 의미」, 『민속학연구』 5호, 1998.
- 박선애, 「영월 지역 민요의 다양한 소통 방식-단중애사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78 권, 2018.
- , 「영월 지역 민요의 현대적 수용 양상-단중애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권 8호, 2020.
- 박은희, 「전쟁(戰場)에서의 자살과 생존-요시쓰네(義経) 최후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결말의 공존」,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2023.
-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권, 2009.
-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권, 1990.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 27호, 1997.

심형준, 「성스러운 인간의 생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윤지, 「能의 判官物 연구 : 그 인물 조형과 호간비이키(判官びいき)」,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노(能)에서의 요시쓰네(義経) 실의기 전설 수용 — 노 <다다노부(忠信)>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89권, 2011.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제48호, 2016.

정재철, 「아기장수 설화의 기호학 해석」, 인문사회 21, 제7권 제3호, 2016.

정현정, 「‘아기장수’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에서의 제안」, 『동악어문학』 제76집, 2018.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1986.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 1979.

최명환, 「단종설화의 전승양상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최봉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재이 DB 구축과 그 의미」, 『역사와 실학』 제75집, 2021.

최용신, 「단종 설화의 현대적 전승 양상 연구 - 이갑순 씨 연행본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43집, 2011.

최정은, 「NHK드라마 『요시쓰네(義経)』에 나타난 영웅 서사구조의 원형과 변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권 2호, 2012.

——, 「요시쓰네 서사의 성립과 변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최주한,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영월 — 부재하는 민족국가의 역사지리적 상상력」, 대동문화연구 101권, 2018.

〈디지털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영월문화대전』, “장사 나고 용마 난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용마암”, 2025년 4월 18일 검색.

〈외국 문헌〉

Alexander, J. C. (2012). *Trauma: A social theory*. Polity Press.

Aristotle. (1996). *Poetics* (M. Heath, Trans.). Penguin Classics. (Original work published ca. 335 BCE)

Assmann, J. (2011).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uth, C. (1996).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Eliade, M. (1963). *Myth and reality* (W. R. Trask, Trans.). Harper & Row.

Girard, R. (1986). *The scapegoat* (Y. Freccero, Tran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Basic Books.

Hirsch, M.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LaCapra, D. (2001).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ztompka, P. (2000). Cultural trauma: The other face of social chang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3(4), 449–466. <https://doi.org/10.1177/136843100003004005>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춘천 강선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2·3

“조선왕 단종 충절의 500년, 천도(薦度) 약속을 지키다.
조선조 단종.사육신, 계유사화 망자를 위한 천도용 법화경 간행

심재학 (성곡대학교수)



〈조선조 단종.사육신, 계유사화 망자를 위한 천도용 법화경 간행〉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1. 강선사범화경 목판본 소장. 연구. 발제자심재학(성운) 약력

- * 강원 춘천산, 강원사대부고 졸업(1980)
- * 동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과 박사수료
- * 정원작가, 가람조경 대표, 강춘추모원 운영(화장문화운동 강원도 허가1호)
- * 춘천시 제7대 시의원, 산업위원장
- * 대한불교범화종강원교구 연화일심회회장, 중앙종회의장역임·현 대한불교범화종춘천 강선사3대 주지, 법화경 목판본 소장자·현,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송곡대학교(춘천)산림.정원 전문교육원 원장
- * 현, 송곡대학교 산림융합과(산업체) 초빙교수
- * 논문: 〈불교 화장문화 연구(동국대 석사), 농촌경관주택 경향연구〉(농촌건축연구회,2010)
- * 연구용역: 산림청 강원권 사회적 약자 정원치유 프로그램 및 정원모델 개발(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사후 활용 기본계획 용역 책임연구원(2023)
- * 저서: 『묘법연화경참의기도집, 법화경 우주최첨단행복비법』(부탄왕실도서관기증서), 『10여시 지관 명상법』, 『그린 융합디자인 경영론』(대학교재 개발)

2. 법화경 2.3권 목판본 강선사 소장 경위

- * 강선사창건주 혜도 대종사(심상봉;1913~2001; 소장자심재학 친조부), 법화사문 스승에게 전수 수행 경전임
- * 조선조 단종 충절, 계유사화 인물 친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전법 오종법사 이행 - 현 강선사계승 법화경 봉행
- * 근거;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동학사숙모전(단종, 사육신, 계유사화 인물 배향)입구관음사창건(1978)법화경봉행, 강원 영월군 상동암자 관음정사(1982)주석 법화경 봉행, 경전 사경, 제본;닥나무 재배.서지 전통 문화 계승



그림 심상봉(혜도 대종사) 자필 이력서



그림 법화경 전7권,혜도 대종사친 필사본

3. 강선사 법화경 목판(2~3권)소장본 서지 요약

-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강선사소장본조사 요약 보고서
- 妙法蓮華經要解 / 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木板本. 황진손서. 卷2~3, 四周單邊 半郭 19.4×14.2cm, 無界, 10行20字, 白口, 無魚尾; 30.0×17.8cm. 소장자춘천 김봉산강선사
- 책명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권수제妙法蓮華經. 표제 법화경(題簽). 판심제法弘序 / 法. 표지 연꽃 보상능화문, 치자 염색, 밀랍사용, 발문 배접 압화. 표화 변상도 위태친, 영산회상 설법도. - 저역자鳩摩羅什(姚秦) 譯; 戒環(宋) 解. - 판사항: 판종木板本. - 발행 정보: 15세기 황진손생존연간(1426~1494). 세조조- 발행지: 미상. - 장정 線裝, 오침안정법. -권사항: 卷2~3. 장 수: 137張(弘傳序: 張次第1張 / 要解序: 張次第2-3(右)張 / 卷2: 張次第(左)-69張, 第2-67張, / 施主秩: 1張). -결락중복: 없음. -광곽형태: 四周單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19.4×14.2cm. - 계선: 無界. - 행자수: 10行20字. - 판구: 白口. - 어미: 無魚尾. - 책크기: 30.0×17.8cm,

- 간기: 없음. - 변상도 시주자: 法華經變相大施主 金貴邊兩主
- 간행질卷末: 冊末: 黃振孫 書. 善文, 戒心 板大施主 大施主 許千孫 大施主 姜一千 등 다수, 幹善 四今, 四郎, 다수 刻手, 里金, 文遠 등. - 기타관각인명정보: 欄外下段: 尹於中, 善文, 熙一, 慧智, 金莫山兩主 靈駕 등 62명.
- 지질: 楮紙(순정 인경지)
- 현토표점방점: 墨書懸吐, 한글현토. - 소장 정보, 소장자: 춘천 검봉산강선사



그림 강선사소장본묘법연화경목판본 권2~3 현황

4. 간행시기 : 서사자황진손생존시기. 또는 계유사화 후 세조조

- 황진손(黃振孫); 1426(세종8) ~ 1494(성종25)
- 세조 원종공신, 선공감정 • 묘법연화경화암사판(1443; 보물) 서사자,
- 강선사소장본서사. 시주질직접 서사
 - 시주질인명: 단종 계유사화 순절 직계가족
- 서사자; 황진손 - 만형 황장손계유사화 순절
- 변상시주자 김(귀)준- 사육신 김문기 숙종간
- 판대시주자허천손- 허조, 허후계유사화 순절 대시주자 강일천
 - 강승계유사화 순절



5. 간행동기: 계유사화 단종, 사육신, 원혼 천도. 극락왕생용

시주질인명	신 분	생물 연대	참여 불서 간행 전적	단종, 계유사화 관계 인물
황진손	서사자 세조조원공공신, 선공감정	1426~1494	1443년 화암사판 강선사소장본	우주 황씨 12대손 황진손만형 황장손; 단종 호종(扈從; 別座), 순절. 숙모전배향
김(귀)준	변상시주자 세종조대광보국 승록대부	세종~? 병조판서	강선사소장본.1547년. 1613년 청룡사판본. 1622년.청계사판 본. 불명판. 변상 시주자	김준; 단종 3년상, 사육신. 김문기 숙종간 동학사숙모전배향
강일천	대시주자	세종~세조?	강선사소장본	금천 강씨 인헌공파24세손 일(-)자 항렬, 동학사숙모전강승(姜昇)배향
허천손	대시주자	세종~세조?	강선사소장본	하양허씨12대손 허조(許稠). 허우許翹 (예조판서, 단종 재위 좌찬성 충신) 순절 동학사 숙모전배향
김문기	김(귀)준과 숙종간 삼중신.사육신	1399~1456	태종실록 간행	세종 예문관감열, 태종실록 편찬, 고명대신. 단종복위사육신 . 동학사숙모전배향
성달생	대호군, 전라관찰사	1376~1444	법화경 서사1405. 안심사. 1422. 대자암 1443. 1477. 화암사판발문	세종 법화경 정서 어명(청룡사) 사육신 성삼문 조부, 파관,파묘 출처; 조선왕조실록
단 종	조선 제6대왕	1441~1457	노산군일기	숙종24년(1698) 단종복권
세 조	조선 제7대왕	1417~1468	간경도감 불서간행다수	계유정란단종왕위찬탈

6. 강선사시주질, 난외 인명 1400년대 판본 참여현황

• 시주질, 난외 인물 총 62명중 1400년대 판본 28명(46%)참여; 시주질12명, 변상도 1명 +난외 15명

인 명	간행년	간행사찰	경전명	시주질	비고
법징(法澄)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말	황진손서
보명(宝明)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1말	시주질,난외 각수 중복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5말	황진손서
	1477	화암사	묘법연화경	책말	성달생발문
	1477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5말	
복금(卜今)	1454	광법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권말	
	1469	화암사	육경합부	권말	
	1449	금사사	육경합부	권말	
설경(雪敬)	1449	금사사	육경합부	권말	
신현(信玄)	1422	대자암	묘법연화경	권7말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7말	황진손서

인명	간행년	간행사찰	경전명	시주질	비고
요명(了明)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4말	황진손서
윤보(允寶)	1441	화암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권말	
의덕(衣德)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말	시주질, 난외 각수 중복
의현(義玄)	1436	동화사	묘법연화경	권7말	시주질, 난외 각수, 중복
	1477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말	
지행(智行)	1443	화암사	묘법연화경	책말	황진손 서
	1477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말	
금비(今非)	1461	진안중대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책말	시주질, 난외 각수 중복
계심(戒心)	1472	진안중대사	묘법연화경	권말	시주질, 난외 각수, 중복
	1493	충청무량사	묘법연화경	책말	
막덕(莫德)	1477	화암사	묘법연화경	권7말	
옥매(玉梅)	1461	진안중대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책말	
한덕(韓德)	1449	개성금사사	육경합부	경말	
	1467	금장암	육경합부	책말	

년대별	검색 인명수(인)	비율(%)	분포 순위
1400년대	28	46	1
1500년대	2	4	7
1530년대	7	15	3
1540년대	5	10	4
1560년대	12	24	2
1570년대	3	6	5
1580년대	2	4	7
1600년대	2	4	7
계	1493	100	

표 학조學祖; (1431-1514): 조선 초기 국사; 간경도감 불서간행 감수

7. 묘법연화경황진손서사 전적및문화재 등록 현황

■ 묘법연화경요해강선사소장본서사자황진손

강선사소장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 卷2-3 목판본

간행연대 : 황진손(黃振孫) 생존기간, 1426(세종 8)~1494년 또는 세조연간.

황진손독자판본

■ 서사자황진손서 불서간행전적 조사목록 및 문화재 등록 현황

1.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不明 조선전기. 보물 제1153호(한솔제지 소장)
2.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花岩寺 1443년(세종 25) 보물 제793호(월정사성보 박물관)
3. 묘법연화경요해 卷3 목판본 상 동, 보물 제793호 같은 판본 (동국대 중앙도서관)

4.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不明 1581년(선조 14). 序 刻, 1583년(선조 16) 속지墨書 後刷, 시주질1443본 짜
집기본
5. 묘법연화경요해 卷1 목판본 不明. 황진손서체계후쇄본
6.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불명, 동국대 소장
7.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15세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서울 심택사)
8.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花岩寺 상 동. 1443년(세종 25) 보물 제793 같은 판본
9.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상동.보물 제793 같은 판본.소장자; 김지현
10.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花岩寺 상 동, 보물 제793과 같은 판본
11. 묘법연화경요해 卷1~3 목판본 花岩寺 상 동. 9·10·11 : 동일 판본· 권수
출처 :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문화재청 홈페이지

8. 강선사소장 법화경 목판본 2-3권 간행 배경 및 동기

(단종, 사육신, 계유사화 순절자가족과 충신이 간행한 천도. 극락왕생 발원용, 현생복락.공덕을 위한 법화경 간행)

1. 묘법연화경(법화경) 대승불교 최고 경전; 일승—乘 중생구제 10여시 진리체계로 과학적, 철학적 체계 제시
2. 법화경으로 중국, 일본과 화친외교로 활용; 동북아 불교의 공동 종교, 사상. 문화로 소통.평화 추구 조선초 태조-성종연간 일본이 사신을 보내와 법화경을 하사할 것을 간청. 조선왕실에서 하사하는 등 법화불교교류 전법(조선왕조실록 66회 법화경 교류 기사) - 배불승유불교필박- 임진왜란 발발원인 -사명당 역할·월인석보 月印釋譜.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조선의 불경 언해서다. 석가모니 생애와 법화경. 약사경등을 수록하였다.
3. 세종대왕 법화사문으로 백성구제를 위한 한글창제를 통한 실제 자각, 개선, 현실적정 행복창조화 한글 국민교본간행 배포 월인석보(석가모니 일대기, 법화경 등)불경 한글언해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나온 한국어 교본을 불교 경전으로 하여 배포하였다. 간행동기는 세조 3년(1457년)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죽자 이를 애통히 여기며 울던 세조가 죽은 아버지 세종대왕에 대한 죄송스런 마음과 먼저 떠난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근 2년 동안에 걸쳐 증보 수정하여 간행하였다는 것. 실제 표방한 편찬 배경이며 현재 정설이다.
두 번째는 길으로는 죽은 부모와 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유정난으로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 죽이고 왕위에 올라 그 손자 심성운(재학)이 소장하고 독송.기도 수행하고 있다.
사육신 등 많은 신하를 죽인 끝에 세조가 얻은 정신적인 고통, 회한과 두려움, 무상(無常)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죄를 씻고 안식을 얻기 위하여 추진 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나무위키 인용) -
4. 강선사소장 법화경은 단종, 사육신, 계유사화 피해자 가족들이 천도를 위하여 세조 연간(단종 3년상기간 추정)에 몰래 간행.유포하였다.
5. 불서간행은통일신라, 고려, 조선조 왕실, 권세가문 망자(영가)의 천도용으로 간행.각 사찰에 배포하여 승려의 수행교

재로 사용하고 독송하게 하여 망자의 천도 및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던 법화영산제등 전통 천도문화로, 신라 원효대성사, 고려 의천대각국 사의 법화천태종을계승하여, 근대 해일정각 대종사가 창종한대한불교법화종 강선사창건주 법화사문 심해도대종사에 560여년간 전승되었고 그 손자 심성운(재학)이 소장하고 독송.기도 수행하고 있다.

9. 대승불교 최고경전 법화경 2-3권.주요 교리 내용

(인도(동이강역)대승경전 성립- 구마라집한역;묘법연화경(406년경). 宋 계환 주해 전 7권; 우주 참 진리; 일승사상, 누구나 성불. 자리이타행으로현생복락, 무상보리)

2권; 제3 비유품; 고해바다에서 탈출 방편에 대한비유와 우주 참 진리 본불의의미와 참된 행복이 무엇이지에 대한 제법 실상의우주 섭리(10여시; 일승성불)를 알려줌.

제4 신해품; 언제,어디서나 증명되는 우주 참 진리를 뜻하는 부처님법을 진실로 믿고 깨달아수행 실천하면 구원 받는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종자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수행하여 발휘하면 고집멸도의세계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인 법화중요를세세생생물려주어 중생을 구제함. 누구나 행복창조주이다.

3권; 제5 약초유품; 캄캄한 밤에 등불이 필요하듯 자신의 불성과 지혜를 증득해야행복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육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6 수기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불성을 자각하고 자리이타행하면누구나 성불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참 진리의 불성을 가지고 있어 자각하고 수행하면 성불 할 수 있다는 약속의 수기를 내린다.

제7 화성유품; 시공을 초월한 우주 세계와 그 법을 보여주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일깨워 새로운 기운이 생겨나 성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여 준다.

10. 법화경 진리. 수행 체계; 텐트루(10여시;통찰,성찰)시스템



11. 우주 참 진리로 행복세계로 이끄는 묘법연화경(법화경)

(모든 중생은 일승(一乘: 십여시, 지관법.육바라밀 등)으로 성불(成佛)할 수 있다.대승불교 최고경전)

- 우주 참 진리 = 본불, 붓다, 공, 묘법, 진여. 十. 卍= 우주행복 묘법공식; 법, 법칙, 정신;삼위(천주.천부,천태) 일체법; 언제, 어디서나 과학,현실 증명
- $k; 10^0 = 1[(1),(2),(3)] = k [n..(+ - \times \div)] * (10^n (\Sigma. Q)) * T =$
- ∞.팔정도. 육바라밀. 지관. 수행, 통찰, 성찰.혁신 = 열반.적정, 행복
- K= 10(상, 성, 체, 역, 작/ 인, 연, 과, 보/ 구경등; 10가지 진리인자 수)공성, 변화. 적정, 지관, 육근참회,
- 육바라밀 = $1(K^n)$; 일승 一乘 = 새로운 상태, 처지 = 十.卍:우주행복 진리체; 성인, 하느님, 아버지,붓다
- K=상수. N= 자연수(실수.실상, 인자,레시피). Σ ;10여시 Q,변수.허수 T;진리 변화. 처지(만족, 불만족). =(즉) ∞조화.
- 질서.상생 = 공(空 $10^0=1$ 乘); 즉. 적정 공영
- Σ ; 십진법의 영역 무한, 모든 전자기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흑체), 기억, 생각, 행위(압축, 인장, 응력, 도전율,
- 프로세스 능력, 에너지, 끝 별(시그마): 佛性體, 중도 적정체; 누구에게나 성불 종자와 문제해결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 卍:우주 행복비밀(묘법)공식 해제 (묘법연화경) 우주존재, 생명, 현상은 10여시가내재되어 묘법으로 경영된다.
- 10 여시; 법화경 방편품①상,성,체,역,작(5) ②인,연,과,보(4) ③ 본말구경등(1)= k1(일승): 10진법의 모체; 예, $10^{-\infty}$ 청정. 10^{∞} 무량대수
- 삼위일체; (1)존재형성인자 법(법신);①상, ②성, ③체,④역, ⑤작 (2)변화연기 법칙(보신); ⑥인,⑦연,⑧과, ⑨보, (3) 중도적정 정신체(응신); ⑩ 본말구경등
- 0공비밀: 공성空性- 입자 = 변화(창조,치유,제거,진화;+-×÷)= 대처,적정, 윤회 10(구경등) ⑩1(상); 선택과 집중에 의해 자신의 처지, 상태가 된다.
- ①제법실상; 우주만상(會三歸一) = 마음,몸(一心三觀) = 삼세(中道寂靜).
- ② 일승묘법; (1)존재형성인자 법= (2)변화연기 법칙= (3)중도적정 정신체
- ③여시삼제;공(空),중(中),가(假),=(1)법.(2)법칙,(3)정신=열반적정(涅槃寂靜).
- ④ 색심실상;색심일체(色心一體),삼제원융(三諦圓融),일색일향(一色一香)
- [나=너, 사랑해]

12. 법화경 목판본 소장

대한불교법화종검봉산강선사(降仙寺)이모저모



영월 유배 이후 단종 기록의 검토

김성태(아주대 강사)

이 글은 단종연구사에서 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했거나 무관심하였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또 일반인에게 상식으로 알려진 영월의 단종 관련 이야기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단종 사후 채 6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음애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월지역사 차원에서 단종의 장지(葬地)인 동을지(冬乙旨)의 지명 유래를 탐구하였다. 더하여 장릉배식단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에 직면하여 영월 백성이 보인 충심(衷心)과 인정(人情)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1. 소설 『단종애사』 속 내용의 사실 여부

1928년 11월부터 1929년 12월까지 이광수의 ‘단종애사(端宗哀史)’가 『동아일보』에 총 17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김동인이 남효온의 「육신전」을 일자 일획을 가감치 않고 충실히 현대어로 고쳐 놓았다고 할 정도로 사실에 충실한 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또 연재 당시 누계 수천 통의 투서가 들어올 정도로 대중이 열광했던 대중소설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종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충신들의 의리와 인정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특히 세조의 가혹한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는 성삼문 등의 절의를 부각시켰다. 현재 우리가 지닌 애처로운 단종·잔인한 세조에 대한 인식, 단종절신에 대한 좋은 평가, 인정과 의리의 강조 등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이 『단종애사』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설을 각색하여 1956년에 제작된 영화 『단종애사』 역시 흥행에 성공하여 단종절신의 충절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데에 한몫을 하였다.

이처럼 『단종애사』는 단종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단종의 영월 유배 생활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도 『단종애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단종애사』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 1) 공녀들은 (단종을 위하여) 백중을 차리기로 결심하였다. 떡가루를 뿜자니 방아가 있나, 떡을 찌자니 시루가 있나, 도라지·고비·고사리가 산에 가득하건마는 일찍 산 것을 보아본 사람이 궁중에 있을 리가 없으니 캐어올 도리가 없었

다, 그래서 늙은 공녀가 인근 민가로 다니며 없는 기구와 물재를 빌어오기로 하였다. 민가에서 기쁘게 빌릴뿐더러 기름, 차조, 옥수수, 버섯, 송기, 열무, 멧나물, 오이, 참외, 수박, 가지, 풋고추 등속을 나도 나도 하고 들고 와서 수두룩하게 헛간에 쌓이게 되었다.

- 2) 금부 도사 왕 방언이 울고만 엎드리어 인제 일이 끝날지 모를 때에 평소 노산군을 따라와 모시던 공생(貢生)¹⁾ 한 놈이 활시위를 뒤에 감추어 들고 노산군의 등 뒤로 달려와서 노산군의 목을 졸라매고 북창 밖으로 잡아당기었다. 노산군은 뒤로 넘어지시어 줄을 따라 끌려가시다가 북창 문턱에 걸리어 절명하시었다. 그동안에 소리도 아니 지르시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시었다. 시녀들이 알고 달려들어 목맨 줄을 끄르고 애써 소생하시게 하려 하였으나 다시 소생하지 아니하시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시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그때에도 수십명 되었다)도 통곡하였다.

공명을 이루려고 노산군을 목을 매어 죽인 공생은 대문을 나서지 못하여 피를 토하고 즉사하여 버렸다. 금부도사 왕 방언은 군사를 명하여 노산군의 시체를 금강에 띄우게 하였다. 그는 만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체도 온전치 못하시리라고 하였다. 노산군의 시체가 물에 들어가 뚱뚱 떠서 흐르지 아니하고 하얀 열 손가락이 뚝뚝 잠겼다 하는 것을 봐요고는 시녀들과 종자들이 모두 통곡하고 사랑하는 임금의 뒤를 따라 물에 뛰어 들어갔다. 밤에 영월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시체를 건지어 어머니 위하여 짜두었던 관에 넣어 부중에서 북으로 오리 되는 곳에 평토장을 하고 돌을 얹어 표하여 두었다.

위와 같이 『단종애사』에서는 영월 백성들이 유배온 단종을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 도운 것으로 묘사했다. 또 왕방언이 사체를 강물에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만류했다고 했다. 이렇게 이광수는 『단종애사』에서 영월 백성을 매우 선량하게 묘사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선한 이미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영월 백성의 충심(衷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겠다.

한편, 『단종애사』에서는 『금계필담(錦溪筆談)』 등의 야사를 참고하여 단종의 죽음을 교살(絞殺)로 기록했다. 그러나 『선조실록』 선조 2년 기사에서는 “(기대승이) 금부도사를 보내어 영월에서 사약(賜藥)하였으니 그 공사(公事)가 지금도 금부(禁府)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영월 사람이 그 일을 기록하여 간직해둔 것이 있었는데, 김취문(金就文)이 관찰사로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라고 기록했다. 이로써 단종은 사약을 받아서 죽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단종애사』에서의 단종 교살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야사에 기초한 소설적 허구라 할 수 있다.

2. 『음애일기』 속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

『음애일기(陰崖日記)』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자(李紆, 1480~1533)의 일기이다. 1509년(중종 4) 9월부터 1516년 12월까지 조정에서 일어난 일 등을 기록하였다. 여기에 1516년 12월에 거행된 노산제(魯山祭)를 계기로 하여 노산묘

1) 공생(貢生): 조선시대 향교에 다니던 생도.

에 대한 조야의 여론 및 저자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 단종 사후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쓰인 기록이라는 점, 치제관으로 노산을 제사하고 돌아온 우승지 신상(申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은 점, 심상한성관윤·형조판서·우참찬 등을 역임한 조정 대신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점 등에서 사료의 가치가 높다. 이에 더하여, 영월 백성의 단종에 대한 충심(衷心)과 충절(忠節)을 기록했기에 영월지역사 연구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분석 대상이기도 하다.

- 1) 병자년(1516, 중종 11년) 12월 25일에 우승지 신상(申鎭)이 노산(魯山 단종)을 제사지내고 돌아왔다. 노산의 묘(墓)는 영월군(寧越郡) 서편 5리 밖 길가에 있는데 모두 무너지고 높이가 겨우 2척 남짓했다. 무덤 옆에는 여러 무덤이 널려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군왕(君王)의 묘(墓)라고 불러왔고 비록 어린애라도 능히 알아낼 수가 있었으며 또 여러 무덤은 모두 돌이 곁에 벌려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그런 것이 없었다.²⁾
- 2) 당초에 노산이 죽던 날에 진무사(鎭撫使)가 와서 형벌하는 것을 감시할 제 핍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고서 시체를 밖에 내버려두니, 읍재(邑宰 군수)와 종인(從人)들은 그 위엄에 겁내어 감히 시체를 거두지 못했다. 이때 군(郡)의 수리(首吏) 엄흥도(嚴興道)란 자가 가서 곡하고 관(棺)을 가지고 가서 염습(斂襲)했는데, 그 관은 곧 관노(官奴)가 만든 것으로 화재가 무서워서 고을의 옥에 갖다 두었던 것을 갖다가 쓴 것이었다. 혹 다른 이론(異論)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즉시 이곳에 장사지낸 것이라 한다.
- 3) 사기(史記)에, “노산이 물려나 영월에 있다가 금성(錦城)이 패했던 말을 듣고 자진(自盡)했다.”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여우같은 무리들이 권세에 아첨하느라고 지어서 한 말이었다. 대개 후일에 실록(實錄)을 편찬하는 자들은 모두 당시에 아첨하던 자들이었고, 계병일록(癸丙日錄)도 자못 이같은 것이 많다. 혹은 말하기를, “노산의 묘(墓)는 충의(忠義)가 있는 무리들이 몰래 시체를 빼다가 옮겨 장사지낸 것이라” 하나, 역시 근거 없이 전하는 말이다.
- 4) 다만 고을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애통해 하고 제물을 차려 제사지내며, 심지어 길흉(吉凶)이나 화복(禍福)을 당해서도 모두 여기 나가서 제사지내서, 비록 부녀자라도 오히려 전해 내려오는 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 5) 정인지(鄭麟趾) 같은 간사한 적신(賊臣)들에게 격동되어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마치지 못하게 했으니, 아, 옛날부터 충절(忠節)의 선비란 반드시 대대로 녹을 받는 귀한 집안에서 나는 것은 아니로다. 당시에 임금을 팔아서 이익을 도모하고 반드시 그의 임금을 지나친 환란 속에 두게 한 연후에야 마음이 쾌했던 자들은 그가 음군(陰君, 염라대왕)을 볼 때에 어떻게 하였겠는가. 한편 촌에 있는 부녀나 마을 어린이들은 마음으로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지 못하고 눈으로 흥변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울분에 쌓여 불평하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소리로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의 성품이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겠다.

『중종실록』 중종 11년(1516) 12월 10일 기사에는 상기 인용문의 초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승지 신상(申鎭)을 보내 노산군(魯山君)의 묘에 치제(致祭)하였다. … 신상(申鎭)이 와서 복명하고, 김안국과 함께 말하다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묘는 영월군 서쪽 5리 길 곁에 있는데 높이가 겨우 두 자쯤 되고, 여러 무덤

2) “丙子十二月二十五日 右承旨申鎭還自魯山致祭來 魯山墓在寧越郡西五里路邊 頽墮高僅二尺許 叢塚傍列 而邑人傳稱君王墓 雖孩幼亦能識別 且諸塚皆以石傍列 而獨此無云”

이 곁에 총총했으나 고을 사람들이 군왕의 묘라 부르므로 비록 어린이들이라도 식별할 수 있었고, 사람들 말이 당초 돌아갔을 때 온 고을이 황급하였는데, 고을 아전 엄흥도(嚴興道)란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추어 장사했다고 하며, 고을 사람들이 지금도 애상(哀傷)스럽게 여긴다.”

이 『중종실록』의 기록과 상기 『음애일기』의 내용을 연결하면, 사실상 영월의 단종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료임에 분명하고, 이는 단종의 무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異見)을 검토할 수 있는 준거라 할 수 있다. 이에 인용문의 내용을 문단별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문단 1)에서는 노산군 무덤의 무덤의 봉분이 쇠락하여 2척 정도만 남아 있었지만, 지역민은 누구라도 그것이 군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더하여 다른 무덤과 함께 고분군 내에 자리했으며, 유독 노산묘만 옆에 석열이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고분군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일종의 선산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무덤마다 석열(石列)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고려시대 무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고려시대 고분군에 매장했다고 추측된다. 한편, 영월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단종이 묻혔던 무덤이 ‘군왕묘(君王墓)’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했는데, 이는 단종을 장사지내는 데에는 엄흥도 일가만이 아니라, 엄씨 동족 단위 혹은 마을 단위로 실행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세조 정권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조 정권이 동학사에서 단종에 대한 초혼제를 한동안 묵인하다가 승인하였던 사실로 뒷받침된다. 또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도로변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한편, 이를 근거로 영월부사로 부임한 박충원의 꿈에 단종의 혼령이 나타나 산속에 묻힌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곳을 수색한 결과 단종의 시신이 발견되어 봉분을 조성했다는 박충원 설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 선다.

문단 2)에서는 진무사(鎭撫使)의 감시와 감독 아래 단종에 대한 형 집행이 이루어졌음과 함께, 노산군이 뽕밭과 강압 속에 자진하였다고 기록했다. 또 노산군의 관은 고을의 옥에 보관해 두었던 것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위하여 마련하여 놓았던 옷칠한 관(棺)을 가져다 매장했다”는 『홍재전서』 등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장례를 대비하여 관재(棺材)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홍재전서』의 기록이 일단은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음애일기』의 기록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 『홍재전서』보다 250년 여년이나 앞선 기록이기에 전적으로 무시하기도 어렵다.

문단 3)는 문단 2)에 대한 논평이다. 여기서 이자(李紆)는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노산군이 자살했다는 실록의 기록은 허위(虛僞)라 역설하였다. 앞의 문단 2)와 연결해 볼 때, 진무사가 직접 나서서 협박과 강압으로 죽음을 강요하였고,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마시게 되었다고 보아야 마땅하겠다. 이는 『장릉지』의 “사약을 가지고 간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 머뭇거리며 차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기록과, 『어계집(漁溪集)』의 “금부도사가 명을 받들어 사약을 가지고 영월로 갔다”는 등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곧 세조는 금부도사를 영월에 보내어 사사(賜死,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사약을 먹여 죽음)를 명령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진실일 듯하다.

문단 4)는 영월 백성들이 노산묘에 제사를 지냈던 점,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로 숭배되었던 점, 단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민간 전래 설화로 전승된 점 등을 보여준다. 아울러 영월 주민들이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하였던 사실도 적시했다. 여기서도 단종에 대한 충절이 엄흥도 개인이나 그의 일가를 넘어 지역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관암전서(冠巖全書)』와 『해동명신지장집략(海東名臣誌狀輯略)』의 기록 즉 엄흥도가 아전과 백성 등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단종을 장사지냈다는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³⁾ 요컨대 호장인 엄홍도가 주도하고, 그의 가족이 주축이 되었지만, 단종에 대한 장례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5)는 『음애일기』 노산군 관련 기록의 백미이다. 노산군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자, 이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억울함에 분통을 토하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박한 인간애의 발로로 노산군의 영혼을 달래고자 했던 영월 고을의 백성들이 참된 충절의 표상이라고 격찬하였다. 영월 백성들이 보인 순수한 마음과 행적이 진정한 충심(衷心)과 인간적 도리(道理)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충절(忠節)의 선비란 반드시 대대로 녹을 받는 귀한 집안에서 나는 것은 아니로다”라는 보편적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단종에 대한 충절은 엄홍도와 그 일가만이 아니라, 영월 백성 모두의 거사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순수하고 참된 충절이 무엇인가를 영월 백성이 행동으로 보였다고 이자(李耆)는 평가하였다.

3. 단종의 영월 유배 연도에 대한 이견⁴⁾

정사에서는 1457년(세조 3) 6월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와 권완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고변이 있었고, 이 사건을 빌미로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영월에 거주시켰다고 했다.(『세조실록』 세조 3년 6월 21일 기사) 그런데 윤순거(尹舜舉:1596~1668)가 영월군수로 있을 때, 군아에 소장된 노릉록을 기본으로 하여 저술한 『노릉지(魯陵志)』에서는 단종의 영월 유배가 1456년 단종복위 모의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그 해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고해 보면, 상왕을 금성(錦城)의 집으로 내보내고, 상왕을 강봉하여 영월에 안치하자고 청한 두 사건을, 『국승(國乘)』에는 모두 정축년(1457)이라고 실려 있는데, 『헌덕왕후 천장지(遷葬誌)』에는 병자년(1456)이라고 하였다. 또 성삼문 등이 피살되고, 노산을 군으로 강봉하여 밖으로 내보냈다는 내용 밑에 또 ‘명년 정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강봉하여 지방으로 쫓아낸 것은 실상 병자년 옥사가 이루어지던 날에 있는 것이다. 야사인 『해동야언』과 『논사록(論思錄)』에서도 성삼문의 일이 발각된 뒤에 노산을 옮겼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모두 거짓말이 아니다. 『금석일반(金石一斑)』에 실린 노산이 안로(安潞)에게 고한 말은, 노산의 죄를 성립시킨 것이나, 성삼문이 죽은 뒤에 영월로 옮긴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 <춘삼월 자규루> 시와 날이 가물어서 비를 빈 두 가지 일로 참작하여 보면, 영월로 옮긴 것은 이미 정축년 봄 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릉지(昭陵誌)』로 증거를 삼아서 금성의 집으로 나간 것과 영월로 옮긴 사실을 병자년에 실어 둔다. 실록에는 두 가지 일을 모두 정축년에 실어 놓았는데, 음애(陰崖)가 말하기를, “이것은 특히 여우와 쥐 같은 무리의 간악하고 아첨하는 기록으로서 후일에 실록을 편찬한 자들이 모두 당시에 세조를 따르던 자들이니, 실록

3) 『冠巖全書』 권22, 記, 越州, 聖蹟記, 莊陵
“十月二十四日 昇遐于觀風軒 郡之戶長嚴興道備棺斂 翌日率吏民葬于冬乙旨”
『海東名臣誌狀輯略』 권2, 莊陵朝諸臣
“翌日, 率吏民同志者 奉葬于郡北冬乙音”

4) 아래의 글에서 전제하였다.
김성태, 『단종절신과 숙모전 배향 인물』, 비천당, 2024.

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한 사실로 뒷받침된다.

이런 『노릉지』의 주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노산군이 영월 유배 중에 관풍헌에 딸린 매죽루(梅竹樓)에 올라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견주어 지었다는 <자규시(子規詩)>의 한 구절이다. 곧 “자규 소리 끊어진 새벽 멧부리에 지새는 달빛만 희고(聲斷曉岑殘月白) 피를 뿌린 듯한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血流春谷落花紅)”라 했으니, 이 <자규시>가 그의 유배 중에 작시(作詩)된 것이 확실하다면, ‘춘곡(春谷)’으로 미루어 정사에서 단종의 유배 연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4. 장릉배식록과 배식단사의 이해와 가치⁵⁾



그림 장릉배식단



그림 배식단사

조선후기인 숙종·영조·정조대에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을 기리기 위한 복관(復官), 증직(贈職), 증시(贈諡), 향사(享祀)와 봉사손명정(奉祀孫命定) 등의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추숭 사업의 완결판으로 시행된 것이 1791년(정조 15) 시행된 장릉배식단의 설치이다. 이 배식단은 단종에게 충절을 바친 신하들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제단으로, 정단과 별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별단은 공로의 다소와 신분에 따라 셋으로 나누었다. 배향 인물은 건립 초기에는 정단 32위, 별단 198위 총 230위였으나, 이후 추가되어 268위로 추배되었다. 이런 배식단의 시행을 위하여 정조는 실록 등을 상고하여 『장릉배식록』을 편찬하고, 제단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장릉배식록』 가운데 현재 장릉 내 배식단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하다.

억울함을 되새기는 제사는 동학사의 실례를 취하고 제단을 만드는 제도는 달천(獺川)의 실례를 모방하되 당시에 절의를 다한 사람들을 합쳐 하나의 사판(祠版)으로 만들어, 본릉(本陵, 곧 장릉) 홍살문 밖에 터를 잡아 매년 한식(寒食)에

5) 아래의 글에서 전재하였다.
김성태, 『단종절신과 숙모전 배향 인물』, 비천당, 2024.

함께 제사를 지내며, 고을 원으로 하여금 집을 하나 지어서 사판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똑같이 제사지낸다는 뜻을 보여야 했다. … 사판은 충신 사판이라 쓰고 제물은 밥은 큰 그릇에 한 그릇, 탕은 큰 주발에 한 주발, 나물과 과일은 각각 한 접시, 술은 한 잔으로 규례를 정하고 제관은 부근의 찰방으로 하며, 예관(禮官)이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만들고 사판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해도에 분부하라. … 상이 또 단종조의 여러 신하가 절개를 지킨 것은 다 같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순위에도 귀천의 차이가 있다 하여, 장차 별단(別壇)을 설치하는 문제를 내각으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도록 하였다. … 별단(別壇)의 경우는 사판 3개를 만들어 계유년·병자년·정축년에 죽은 사람들을 각각 쓰도록 하라. 제사를 지낼 때는 지방에다 성명을 죽 쓰되, 조사(朝士)를 한 판, 맹인·내시·군사·노비를 한 판, 여인(女人)을 한 판으로 해야 한다. 신위의 위치는 충신들의 왼쪽에 두되 조사의 경우는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맹인·무당·내시·군사·노비의 자리는 약간 밑으로 내려야 한다.

이상의 기록으로 현재 매년 한식에 지내는 장릉배식단의 제사는 동학사의 초혼제를 본(本)으로 삼았던 사실, 현재 제단의 제도는 충주 임경업 사당의 그것을 참고했던 사실, 제물의 종류는 밥·탕·나물·과일·술 등 다섯 종류였던 사실, 배식단은 원래 장릉 홍살문 밖에 설치되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배식단의 구조와 배치는 높이가 서로 다른 제단 4개(충신단, 조사단, 환자군노단, 여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공적의 차이와 신분의 고하, 그리고 성별의 구분 등에 따른 것임도 알 수 있다.

현재 장릉 경내에는 장판옥이 배식단과 마주하고 있는데, 장판옥은 단종 충신들의 위판(位版)을 모시기 위한 배식단사(配食壇祠)이다. 충신 32인, 조사(朝士, 관리와 선비) 186인, 맹인·내시·군사·노비가 44인, 여인 6인의 대형 위판 4개가 모여져 있다. 위판의 명칭은 각각 충신위, 조사위, 환관위, 여인위라 새겼고, 각각의 위판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식록 속 단종절신의 이름을 촘촘하게 새겼다. 현재는 목판에 음각으로 이름을 새겼지만, 원래는 지방을 붙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판의 위치는 중앙에 충신위(忠臣位), 우간에 조사위(朝士位), 좌간에 환자군노위(宦者軍奴位)와 여인위(女人位)가 자리한다. 여인위가 좌간에 있는 이유는 음의 세계인 명계(冥界)에서는 음양이 반대이므로 오른쪽을 왼쪽보다 존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앙의 충신위는 무덤의 묘표(墓表)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배식단의 형식을 공적과 신분에 따라 위치와 높이를 달리했듯이 위판 역시 조사위는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하고, 환관위·여인위는 약간 밑으로 내려 안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배식단은 전술했듯이 제단 4개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의 독립 제단이 충신단, 그 남쪽의 3개 1조의 제단이 조사단·환관단·여인단이다. 후자에서 중앙의 2단 제단은 조사단, 그 좌우의 1단 제단은 환관단과 여인단이다. 여기서도 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신단은 3단, 조사단은 2단, 환관단·여인단은 1단으로 만들어 차별을 두었다.

한식 제향 때에는 장판옥의 위판을 각각의 제단 위에 두고 제수를 진설하였다. 위판은 충신단은 동면, 조사단·환관단·여인단은 북면하게 두었다. 물론 제수는 위판 앞에 진설하였다.

우리나라 능원에서 배식단과 배식단사(配食壇祠)가 능역(陵域)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장릉이 유일하다. 한편, 구조와 법식도 정사(正史)의 기록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릉배식단은 희소성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5. 단종의 장지 동을지(冬乙旨)에 대한 검토



그림 1970년대 1:25,000 지형도



그림 『해동지도』 속 장릉의 산세

들을지(冬乙旨)는 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낸 곳으로, 지금 장릉 일대에 대한 조선시대 지명이다. 영월의 단종 관련 기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지명 자체도 생소한 편인데, 현재까지 지명 유래를 다룬 글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기도 하다. 이에 동을지란 지명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발산(鉢山)은 영월의 진산으로 사찰에서 스님들이 쓰는 사발인 발우(鉢盂, 바리때)를 얹어놓은 형상이므로 '발산'이라 하였다. 동을지산(冬乙支山)은 영월 읍내 북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 제6대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있다.(『조선지리지』 속의 영월군.)
- 2) 군 북쪽 5리 동을지(冬乙旨)에 동향한 고분이 실제로 노산의 산소이다.(『음애일기』)
- 3) 임흥도가 이서(吏胥)와 군민 등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단종을) 읍치의 북쪽에 자리한 동을음(冬乙音)에 장사지냈다. 동을음은 지명으로, “들을지(冬乙旨)”라고도 한다.⁶⁾(『海東名臣誌狀輯略』 권2, 莊陵朝諸臣, 寧越府戶長贈工曹參判嚴興道)
- 4) 장릉은 영월 읍치소 북쪽 동을지리(冬乙旨里)에 있다.(『銀臺便攷』 권6, 禮房攷, 陵園墓)
- 5) (단종이 승하하자) 군으로부터 5리에 위치한 동을지리(冬乙旨里)의 신좌을향(辛坐乙向)의 산록에 장사지냈다.(『列聖誌狀通紀』 권7, 端宗恭懿溫文純定安莊景順敦孝大王)
- 6) 중종(中宗) 병자년(1516)에 비로소 치제하고 6호를 정하여 수묘케 하였다.(『冠巖全書』 권22, 記, 越州, 聖蹟記, 莊陵)

우선, 영월의 진산인 발산(鉢山)과 동을지(冬乙旨)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곧 발산의 가지 능선이 동을지이다. 한편, 바로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지(旨)는 산의 훈차이므로, 동을지산은 역전앞과 같이 의미 중복이므로 올바른 지명은 아니다.

6) “率吏民同志者奉葬于郡北冬乙音,【冬乙音, 一作“冬乙旨”, 地名也。】”

다음으로, 장릉 아래의 마을을 동을지리(冬乙旨里)라고 하였다. 장릉 조성 시 마을이 있었는지는 불명하나, 이곳에 수묘호(守墓戶) 여섯 집이 있었다. 이에 동을지리라 일컫다가 나중에 능동(陵洞)으로 부르게 되었다.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영흥리(永興里), 방절리(芳節里), 상덕리(尙德里), 상하송리(上下松里)만이 부내면(府內面) 관할 법정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에도 영흥리에 포함된 자연마을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현재 장릉이 자리한 산록은 동을지, 그 아래의 수묘인 마을은 동을지리라 부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동을지와 동을지리(또는 동을지동, 곧 능동)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동을지(冬乙旨)의 지명형태소에 대한 분석이다. 『디지털한자사전』⁷⁾에서는 “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漢字)로, ‘돌’ 음(音)을 나타내기 위해 「冬(동)」과 「乙(을)」을 합(合)해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동을(冬乙)은 우리말 ‘돌다’를 한자로 표기한 음차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국대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冬乙音’은 두름(돌+음)을 차음한 한국한자어라 하였다. 따라서 “冬乙”에는 우리말 ‘돌리다’ 또는 ‘두르다’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부요소 지(旨)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지명에 나타나는 지(旨)는 『신증유합』(하 55)에서는 ‘ㄹ ㄹ’라 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지봉(龜旨峯), 죽지령(竹旨嶺), 벌지지(伐知旨), 북구지(北龜旨) 등의 고지명 해독을 가능하게 된다. 이들은 대개 봉우리나 고개에 붙여진 이름이다. … 차훈 자 지(旨)는 고지명보다 현재 지명에 더 많이 나타난다. 몇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경북 울진의 지로동(旨老洞)을 현지에서는 ‘마룻골’이라 부른다. 지로(旨老)는 ㄹ ㄹ의 차음표기로서旨에 이어지는 ‘老’는 말 모음 첨기로 덧붙여진 것이다. 현 지명에서 후부요소(어말)로 쓰인 예를 보면, 긴마루(長旨, 경기 광주), 중마루(中旨, 경북 칠곡), 산마룻골(山旨洞, 경남 창녕), 외마룻골(瓦旨洞, 경북 영일), 늦마루(晚旨, 충남 천안), 솟마루(禾旨, 전남 순천) 등이 있다. 참고로 높은 곳을 지칭하던 ‘ㄹ ㄹ’가 변하여 산을 지칭하는 고유어로 굳어지게 되었다.”⁸⁾

이상으로, 동을지(冬乙旨)는 우리말 ‘돌음, 두름’과 ‘마루’가 결합한 지명으로 우리말 ‘두름마루’, ‘두름산’, ‘두루뎌’, ‘두리뎌’를 차음훈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과거 고지도와 현재의 지형도와 연결하여 볼 때, ‘동을지’는 둥근 모양의 산세가 감싸고 있는 지형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6. 정리와 요약

이 글은 단종연구사에서 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했거나 다루지 않았던 주제 또는 사료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또 일반인에게 상식으로 알려진 영월의 단종 관련 이야기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조선전기에 쓰인 『음애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월지역사 차원에서 단종의 장지 동을지(冬乙旨)의 유래를 탐구하였다. 더하여 장릉배식단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에 직면하여 영월 백성이 보인 충심(衷心)과 인정(人情)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7) 네이버 한자사전(<https://hanja.dict.naver.com>)》 “쫄”

8) 천소영, 『한국 지명어 연구』, 이회문화사, 2003, 192~193쪽.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새로운 견해이거나 학술적 의미가 있는 소견을 갖추려 정리하고,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펴려하지 않은 생각을 더하면 같다.

현재 일반 대중의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 그리고 장사(葬事)에 대한 역사 지식은 이광수의 베스트셀러 『단종애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단종애사』 가운데 영월 백성들이 단종의 유배에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은 정황상 역사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야사에 근거한 단종의 살해 과정에 대한 묘사는 소설적 허구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종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음애일기』 등 신뢰성 있는 문헌들을 참고할 때 진무사의 감독과 감시 아래 진행되었고, 금부도사의 존재로 미루어 사약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아야 가장 합리적이다. 요컨대 자살이나 교살은 아니라 사사(賜死)되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영월의 백성들은 단종의 유배 생활을 물적으로 도왔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충심(衷心)으로 그를 애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엄홍도와 그 가족이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홍도와 뜻을 같이하는 영월 백성도 단종을 장사지내는 데에 참여하였다. 한편, 『선조실록』과 『노릉지』에 기록된 영월에서의 단종 관련 사실을 살펴보면, 영월 백성들은 단종의 비운과 세조의 불의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조가 단종과 그를 위해 순절한 충신들을 동학사에서 초혼제를 지내는 것을 묵인하고 나중에는 공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영월의 백성들이 노산묘에 제사를 지냈고, 이를 관에서 묵인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는 『음애일기』의 기록으로 입증된다. 요컨대 단종은 엄홍도가 아주 몰래 암장하지 않았고,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또 그에 대한 제사가 철저히 금지되거나, 제사에 따른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당한 연도와 관련하여 『노릉지』에서는 『세조실록』의 기록과는 달리 1456년 단종복위 모의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라고 하였다. 〈자규시〉가 단종의 유배 중에 작시(作詩)된 것이 확실하다면, ‘춘곡(春谷)’이란 시어로 미루어 정사에서의 단종의 유배 연도는 재고의 여지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능원에서 배식단과 배식단사(配食壇祠)가 능역(陵域)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장릉이 유일하다. 또 구조와 법식도 정사(正史)의 기록과 일치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릉배식단은 아주 희소한 · 특별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릉배식록』 등에 따르면, 장릉배식단의 배향 인물은 동학사 초혼기를 바탕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매년 한식에 지내는 장릉배식단의 제사도 동학사의 제례를 본(本)으로 삼았다. 또 제물의 종류는 밥 · 탕 · 나물 · 과일 · 술 등 다섯 종류였다. 아울러 사편은 현재 목판에 음각으로 이름을 새겼지만, 원래는 지방을 붙였으며, 배식단은 원래 장릉 홍살문 밖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단종의 장지로 널리 알려진 동을지(冬乙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동을지는 우리말 땅이름 ‘두루피’, ‘두루마루’, ‘두리산’을 음훈차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우리말 ‘돌(돌다)’ 또는 ‘돌(두르다)’을 음차 표기한 것이 돌(訖) 또는 동을(冬乙)이며, 산을 뜻하는 山의 고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지(旨)라는 국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착안하였다. 이런 견해는 지명 동을지(冬乙旨)를 우리말 ‘두름(돌+음)’의 차음 표기인 ‘동을음(冬乙音)’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은대편고(銀臺便攷)』의 기록으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현재 장릉이 자리한 곳의 산세로도 입증된다. 요컨대 동을지란 지명은 산으로 사방이 둥글게 둘러있는 장릉 일대의 지형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종문화제 한국문인협회 수필의 날 기념 포럼

인사글

힐조詰朝의 고을에서

영월 단종문화제와 함께 제 25회 수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유치해 주신 영월군 군수님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문화유산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영월군에 감탄하고 먼저 돌마루 천문대를 보았습니다. 별을 보기위해 밤길을 오르면서 세상의 모든 빛을 온전히 버려야만 별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가의 길을 확실히 다 집니다.

그리움에서 시작된 글쓰기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만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열아홉에 고향을 떠난 뒤 뻗속깊이 스며든 그리움을 글로 굶어대며 애를 끓였습니다.

글과 그리움은 모두 ‘굶다’에서 나온 말이니 문자가 없을 때는 벽을 굶어 벽화를 남겼나 봅니다.

전국의 뜻있는 수필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수필의 날을 개최하는 목적은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며 지역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수필의 날을 제정한 윤재천 한국수필학회 회장님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정목일 이사장(사.한국문협수필 분과회장

2007-2010) 으로 다시 지연희 (2011-2018) 이사장으로 ‘수필의날’은 전해내려왔습니다. 어찌보면 숭고하고 격조있는 내림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올해의 수필인 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한국 수필문단에 기여한 원로와 중진 수필가들에게 수필인 상을 시상해 오는 따뜻한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AI가 그럴싸한 수필 한 편 정도는 몇 초안에 써주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수필인을 위한 생산적 일들은, 직접 만나 교류하면서 감흥을 취하는 현장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문학 중흥을 꾀고 수필문학 한류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필인들의 따뜻함으로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수필인 여러분!

제 25회 수필의 날을 유치한 문화의 도시 영월에서 많은 영감을 받기 바랍니다.

깊고도 은근한 정이 있는 영월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겠지요?.

화가 빈센트 반고흐는 ‘위대한 성과는 작은 일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영월에서 머무는 이틀간 이른 아침 새소리의 청량함으로 수필의 날을 보내시기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많아지는 영월에서 행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수필의 날 운영위원장 권남희드림

권남희 수필가 stepany1218@daum.net

1987년 <월간문학> 수필당선

(사)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리더스에세이 발행인

(사)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이사. (사) 한국문학예술 저작권협회 교과서 분배위원

소후출판 대표

수필집

《미시족》《목마른도시》《육감하이테크》《민흘림기둥을 세우다》 등 14권

수필인의 찬란한 비상을 위하여

지연희 수필가

영월은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유적지이다. 더구나 단종의 기구한 슬픔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고장이다. 이처럼 뜻 깊은 문화예술역사의 흔적을 배경으로 수필의 날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영월군에 감사드린다.

2025년 제25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권남희 회장은 2019년 회장에 당선된 후 다시 연임을 하면

서한 해도거름 없이 수필인의 친목과 수필문학의 빛나는 성장을 위해 각 지역의 다채로운 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1박2일의 수필의 역사를 짓기 위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고 있다.

영월군 유적지 탐방은 영월군이 내장하고 있는 한반도 습지, 청령포, 영월선돌, 장릉, 슬로시티 김삿갓면, 별마로 천문대 탄광문화촌 역사를 조명하게 된다. 또한 (사)한국문인협회 김호운 이사장님의 기조강연과 공광규시인, 김윤송 지리산문학관 관장이 심포지엄을 주재하며 한국수필가협회 최원현 명예 이사장이 좌장을 맡게 된다.

어느 해 보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영월군은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제25회 수필의 날을 기념하여 단종제 퍼레이드 참석과 영월문화유적 탐방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감사드린다.

지연희

한국수필, 1982년, (수필) 월간문학 1983년 (수필). 시문학 2003년(시) 신인문학상 당선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회장역임, 한국수필가 협회 이사장역임. 한국시인협회 회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역임, 계간「문파」문학 발행인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소감

오래도록 빛날 수 있게

안윤자

뜻하지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7월이면 제가 등단한 지 만 34년이예요..

그땐 젊었고 정목일 선생님을 비롯하여 문단 선배님들은 너무 높게만 보였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좀 오랜 공백기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수여한 이 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 받은 문학상입니다.

그만큼 상과는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기쁘고 영광입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슬슬 진짜로 상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그간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받으셨던

이 상의 수상자가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의 수필인상”이 연륜을 더하면서 더 오래 빛날 수 있게

저 또한 좋은 수필로 답을 하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운 한국문협 이사장님,
그리고 권남희 수필분과 회장님을 비롯하여
수필작가 선생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가 참으로 따스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無名の 빛

안윤자

폭설 내린 날, 자하문로 서촌 길을 걷고 있었다. 대낮인데 쏟아지는 눈발에 가리어 북악의 영봉이 보이지 않는다. 눈 속으로 눈이 떨어져 녹는다. 차가웠다. 휘휘 훑날리는 눈송이가 오래된 이 동네에 살다가 떠난 이들의 흔백같이 느껴졌다. 참말로 그럴지도 모르지. 기이한 기시감에 상기된 채로 길을 걸었다.

서촌은 해가 넘어가는 지대. 옛사람들이 서산西山이라 부른 인왕산 밑 마을이다. 주산인 북악 아래 조선왕조의 법궁이 있는 경복궁 서쪽 동네. 효자동과 청운, 채부동을 비롯하여 통인, 궁정, 누하동 등 십여 개나 되는 법정동이 맞물려 있어 어느 골목은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 동 이름이 달라져 어리둥절했었다.

권부인 청와대로 인해 개발권에서 떨어져 아직도 미로처럼 엉킨 골목들에는 옛 잔재가 소복하다. 물정이 상전벽해 되었는데도 돌변한 세상을 등지거나 한 듯이 상흔처럼 박혀 있는 작고 허름한 바람의 파편들.

이 동네를 걸을 때마다 내 발걸음은 비좁은 골목길로 빨려 들어가서 배회하곤 했다. 예전에 여기 살았었던 사람처럼 향수에 이끌리어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을 뒤편 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구한말 선교사가 세운 낡은 교회당 담벼락에다 얼굴을 갖다 대보기도 했다. 으음 이 정도의 골목길이면 가마가 드나들 수 있었겠군, 회억 같은 상념의 나래를 펴가면서.

궁궐 담과 경계를 나눈 이 동네는 건국 초, 중기까지만 해도 왕족들의 궁가와 권문세가의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이 즐비한 세겨지였다. 태조 이성계 아들들, 특히 다섯째 태종 이방원의 집 솥을대문이 이 근방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저만치 통의동 길가의 표석으로 보아서는.

피 울음 같은 상흔을 새기고 막이 내린 2024년의 상심을 밀어놓은 채 다시금 열린 새해. 작년에 세상을 뜬 이들은 더는 볼 수가 없는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하건만 눈보라에 가려진 부연 시야처럼 시대의 현실은 암울하다. 삶은 연습이 불허된 일회성의 실존일진대 현실의 무대가 하 이리도 수상하니.

바깥세상은 대명천지건만 나는 종종 이 현란한 거리에서 길을 잃는다. 닳아빠진 내 안의 회로가 미로로 빨려들기 때문이다. 거죽이 벗겨져 나간 자리에 돋은 생살을 만지기가 때로 두려웠다. 빛을 잃은 시대, 온기가 사그라든 막장의 암흑속, 내 안의 무명이 내 두 눈과 심장을 얼어붙게 한다.

산수 수려한 인왕산 수성동계곡은 도성 안의 명승지로 꼽혔다. 송석원, 청풍계, 필운대를 품은 서촌에는 왕족들 궁방이 즐비했고, 유유자적한 무릉도원이었으며 궁에서 폐출된 늙은 궁인의 거처가 속속 박혀 있었다, 제아무리 총애를 받았

을지연정 임금이 승하하면 궐을 나와서 죄인 팔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후궁들이 제 한 몸을 의탁하다가 사그라진 절간과 처소가 있었고, 조선조 중기쯤부터 풍류에 눈을 뜬 중인 그룹이 풍광을 찾아 모여들어 예술의 꽃을 피운 위향문학의 근거지기도 하다. 민족의 빛이 사멸한 20세기 암울했던 식민지 치하의 경성시대. 이른바 일그러진 유포피아 패러다임을 추구한 아티스트들이 속속 여기 서촌에다 등지를 틀었다.

총독부 관사와 친일파 저택이 줄지어 위용을 뽐낸 서촌. 두고두고 매국노의 대명사가 된 윤덕영은 인왕산 밑 옥인동에 2만 평의 아방궁을 지었다. 황금과 대리석, 옥을 쳐바른 으리으리한 이 양옥은 속칭 벽수산장이라 불리었다. 이백 평이나 되는 연못을 파놓고 희희낙락 뱃놀이하며 매국의 대가인 세도와 부귀영화를 그는 여한 없이 누렸을 것이다. 어디 윤덕영뿐이겠는가. 풍광 수려한 옥인동 일대는 거의 이완용이 사들인 개인 영지나 다름없었다니 말이다.

서촌의 길목에는 노천명을 비롯하여 나혜석, 염상섭, 현진건 등의 작가가 살은 기록과 아방가르드 문학의 대표주자인 시인 이상의 집터 일부만이 아직도 잔재한다. 이광수, 천경자, 이중섭, 박노수 등 거장들의 흔적이 이 거리, 저 구석 등지에 묻어 있다.

도가적 화풍과 미감을 선보이며 생전의 박노수 화백이 사십 년간이나 살았고 회화 작품을 남긴 옥인동 박노수 미술관도 실은 윤덕영이 시집간 딸을 위해 지어준 집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 대표적인 절충식 문화주택으로 벽수산장 터 일부라는 이 가옥에서 손수 정원을 가꾸고 흙냄새 맡으며 박노수는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왕가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술에 눈 밝은 여향인과 20세기 이후의 현대 작가들을 품어준 인왕산 자락. 그 정기가 어린 서촌은 가히 서울 문학과 예술의 1번지라 할 만하다.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거리에 눈발이 휘몰아친다. 충녕대군이었던 세종대왕이 걸어가고, 이완용이 걸었으며 이중섭이 물감을 감싸 안고 걸어난 길. 역사의 가쁜 호흡처럼 눈보라 훑날리는 이 오래된 노상에 내 작은 발자국이 찍힌다. 가없는 신화가 부연 눈발 되어 훑날리는 날, 난무한 빛에 시름을 앓다 백태가 낀 세상의 이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오늘도 광화문에선 난세의 데자뷰 같은 함성이 울려온다. 환청처럼 아득히. 혼돈 그 너머에는 무엇이 우릴 또 기다리고 있는가.

안윤자 수필가. 시인

1991년 <월간문학> 신인상 등단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전 서울의료원 의학도서관장

월간사보 편집장. 사사편찬위원장. 대표에세이문학회 회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복지위원. 펜클럽.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가톨릭문인회.

은평문협. 수필문우회 회원. MUNPA 동인

수상 : 2020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공모 대상

수필집 : 『벨라멧다의 노래』 『사대문 밖 마을』 그 외 공저

시집 : 『무명 시인에게』

역사장편소설 : 『구름재의 집』

논문 : 『윤동주 시 연구』 외

기업사 집필 : 『서울의료원 30년사』 『경동제약 30년사』

크나큰 격려이자 수필의 창작 문학화의 에너지

은 종 일

우리나라 수필 문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수필의 날을 제정하고, 다양한 문학 행사, 강연, 백일장 등 기념행사를 해 온 지 어언 ‘수필의 날 영월행사’가 25회째를 맞습니다.

그간 기념행사 중에 시상하는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자를 보면서 매번 저와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경칩 전날 산책길에서 영월행사 ‘올해의 수필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상을 받는다는 것이 외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현대수필 1백 년의 현주소는 양적인 풍요입니다. 3천여 명에 이르는 수필가, 30여 개에 이르는 수필 전문지, 연간 1만여 편에 이르는 발표 작품에서 수필 문학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수필과 신변잡기의 사전적 정의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편에선 수필의 창작적 진화를 모색하고, 다른 한 편에선 사실의 소재만으로 수필 작품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 편 끝에는 상상에 의한 창조 과잉인 암시슴의 뿔이 보이고, 다른 한편 끝에는 신변잡기로 덧칠한 사족이 보입니다.

현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름한 혁명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 장르의 뒤섞임인 크로스오버 crossover, 잡종(혼성)을 낳는 하이브리드 hybrid 현상입니다. 문학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학 장르 간의 통합과 융합은 수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당면 현안의 인식과 성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작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처음도 끝도 수필의 문학화일 것입니다.

본 ‘올해의 수필인상’은 저에게 크나큰 격려이자 수필의 창작 문학화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상자로 뽑아주신 여러 심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은행나무

은 종 일

팔다리가 또 잘렸다. 두 번째 잘림은 얹힌 데 덮친 고통이었다. 소음과 매연과 먼지로 귀, 눈, 코, 목의 통증까지 보탬다. 사방으로, 그것도 교대로 미끄러져 가는 차량의 무리 때문에 눈이 팽팽 돌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하철공사를 한다며 밤낮으로 폭약을 터트려서 노루잠마저 설쳤다.

사 년여가 지나자니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못 살 것만 같았던 이곳의 삶도 서서히 익숙해졌다. 여생을 저당 잡고 살아

보자며 무진 애를 썼다. 지금 되돌아보면 깜깜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다.

마천루들이 중천을 찌를 듯이 키 재기를 하는 도심의 십자 대로에서 새로운 21세기 세상을 살고 있다. 내 생일은 정확하지 않다. 들어온 바로는 조카의 왕위를 뺏고 죽이고, 충신들마저 참살한 그 못된 임금 세조가 죽은 해라고 했다. 보물 2호로 중앙박물관에 누워있는 보신각종이 태어난 그해라고도 했다. 그해가 세조 14년이고 보면 내 나이는 올해로 오백 마흔일곱 살인 셈이다.

나를 두고 그냥 노거수老巨樹라고 부르고들 있지만, 표석에다 딱하니 새겨놓은 이름은 ‘상동은행나무’이다. 내가 본 시 살았던 상동에선 ‘내 발밑에 물을 뿌려주는 사람에게는 불끈불끈 힘이 생긴다.’라는 전설의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곳이 은행나무마을이다.

나는 은행나무마을에서 오백여 년을 묵새기며 살았다. 두 손 비비며 기도하는 민초들의 기원에서 켜켜이 뻗 소박한 소망도 헤아렸다. 수십 대대를 이어오면서 겨금내기로 모여들어 나누는 객적은 이야기에서, 때론 담뱃대를 바닥 돌에 두드리며 가래려는 시시비비에서 세상사를 읽었다. 구순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애환에서부터 당파싸움에 이골이 난 조정의 난맥상, 게다가 나라의 번고와 전란의 참살들까지 앓은뱅이 용쓰듯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였다. 울가망하게 지내 온 세월이 그저 아슴아슴하기만 하다.

분단 후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감성적인 통일론이 비등했던 그 해 나에게도 경사가 있었다. 대구시로부터 ‘지정보호수’라는 품계를 받은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왔다. 세워놓은 입간판을 보고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번 더 봐주고 지나갔다.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걸 그때야 실감하였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품계를 받고 몇 년이 지나서부터 괴상한 소문이 들렸다. 그건 동서로 넓은 길을 새로 내는데 내가 방해물이요,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수호신이 아니라 네 탓이라며 눈을 부라리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대를 이은 긴긴 세월의 연緣을 매몰차게 끊으려는 세상인심에 슬펐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뜻을 모아 새로운 삶터를 마련하려는 입소문 때문에 시나브로 부아를 삭이며 억지로라도 마뜩해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포크 레인과 불도저가 금속성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발밑에 달라붙었다. 팔다리가 잘리고 새끼줄, 고무줄에 묶여 처참한 몰골로 인근 정화여자중고등학교의 뜰로 옮겨졌다. 코뚜레를 잡힌 듯 낮선 곳에 끌려와서 잘린 상처를 치유하며 재생의 뿌리를 내리느라 죽을 고생을 하였다. 그래도 어린 소녀들이 보내는 고운 눈길이 위로이자 활력소가 되어 낮선 곳에서 새 삶을 익혀가고 있었다.

그런데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학교가 도심 밖으로 옮겨지고, 나의 삶터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넌더리 나는 두 번째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젓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아니라 공해에 잘 버틴다며 내몬 곳이 여기 범어네거리이다.

피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유전자의 대물림으로 원초적인 생존 수단인 의식주의 해결에 몸과 마음이 묶여있던 그들이 나를 두 번씩이나 내몰았다. 그것도 넓은 도로를 뚫고, 고급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면서. 말로만 들어봤던 ‘한강의 기적’이란 압축성장의 발전상을 여기에 와서야 보았다. ‘다이내믹 코리아’란 유.무형의 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달라진 삶의 체제나 방식들에서 아연실색하였고, 푼터분하고 진번질한 민초들의 행색에 놀랐다. 2002년 한일월드컵 거리 응원 때는 붉은 악마로 명명한 오만 명이 넘는 응원의 함성에 화석같이 굳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전율하였다. 그것

은 내가 오백여 년 만에 처음 본 풍요와 역동적인 힘과 자긍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환시 같은 기적이었다.

본시 오백여 년을 지탱하던 몸체는 죽어 화석처럼 굳었고, 뿌리에서 일어난 새로운 다섯 줄기가 노거수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 나를 바라보면서,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생물자원이란 고정관념보다 신구新舊의 조화, 생생과 사死의 공존이라는 인간의 삶으로의 공명을 더욱 소망해 본다. 영광은 고통 속에 감추어진 보석이란 것을 온 몸으로 드러내면서 말이다.

은종일 약력

- 등단 《한국수필》 수필 등단(2005), 《창작에세이》 평론 등단(2015), 《문학시대》 시 등단(2017), 《문장》 평론 등단(2023)
- 저서
 - 수필집 『거리』(2005), 『재미와 의미 사이』(2010), 『춘화의 춘화』(2014), 『아린』(2020), 『스케치북 펼쳐다』(2024)
 - 시집 『사소한 자각』(2017), 『허공 도장』(2020)
 - 평론집 『현대수필의 창작과 비평』(2022)
- 수상 한국수필작가회문학상(2015), 박종화문학상(2020), 대구문학상(2020), 한국수필문학상(2024) 달구벌수필문학상(2025)
- 경력
 - 현직 사)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2017-현재), 사)한국문인협회 이사(2019-현재)
 - 대구교대 수필과지성 창작아카데미 운영위원장, 원장(2006-현재)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김호운(소설가,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을 모신 사적 196호 장릉과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를 비롯한 역사 문화유적과 동강의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영월에서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가 주관하는 제25회 ‘수필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한국문학사에 큰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최명서 영월군수님과 영월문화관광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사)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권남희 회장님과 간사님들을 비롯한 수필가 회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초에 일주일간 수필분과 주관으로 이집트에서 해외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끝이어서 이곳 영월에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그 저력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는 문학울, 특히 수필의 외연을 확장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꿈이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머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25년 제58회 단종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준비한 ‘수필의 날’ 행사를 이곳 영월에서 개최하게 된 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해 한국문인협회는 이곳 영월에서 개최한 제27회 김삿갓문학제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전국 문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문학 활성화를 위해 영월군이 후원하는 제20회 김삿갓문학상 공모 행사를 한국문인협회, (재)영월문화관광재단, 강원일보가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라는 건, 심포지엄 주제를 내고 김병연 선생이 걸어온 문학 및 사회 문화 업적을 새로운 인문학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초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난고 김병연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훌륭한 선비요 학자였으나 시대를 잘못 만나 전국을 방랑하며 주유했던 분입니다. 수많은 글을 남겼으나, 그 글을 시로만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문학을 포함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20회 김삿갓문학상을 전국 규모 공모로 진행했으며 시뿐만 아니라 소설과 수필, 시조 등 전 장르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문학 속에 난고 김병연 선생을 부각하려 노력했습니다. 난고 김병연 문학이 시뿐만 아니라 수필, 칼럼, 산문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인협회의 이와 같은 활동은 문학이 사회 문화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곳 영월에서 난고 김병연 선생을 중심으로 문학제와 문화제를 함께 여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문학은 하나의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가 통섭하고, 더 나아가 인접 여러 예술을 융합하여 총화의 예술을 이룰 때 그 기능과 역할이 완성됩니다. 이번 제58회 단종문화제에서 ‘수필가의 날’ 행사를 함께 여는 것 또한 문학과 문화의 접목으로 더 밝고 넓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필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달리 직접 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과 체험, 사물을 관조한 감상, 상상의 여백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문학 예술의 필터를 거쳐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하므로 수필은 누구에게나 쉬 다가갈 수 있으며, 함께 동화할 수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독자가 문학의 주인이 되어 향수(享受)하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문학은 그 역할과 기능을 완성하게 됩니다. 문학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문학이 새롭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강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문화의 중심에 올려놓는 쾌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문학이 이처럼 우리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 모두 인식하였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활동 하나하나가 역사와 문화 발전의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문학은 그런 개인의 삶에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주어 변화시킵니다.

한 편의 수필과 같은 훌륭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 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앓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 반칠환 시 「새해 첫 기적」 전문

이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수필이 시가 되고 소설이 되며, 시가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섭 문학이 독자를 문학으로 초대하는 길이 됩니다. 어느 시인께서 말한 “향기는 맡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는 말 속에 이러한 문학의 통섭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혼탁한 세상이 보입니다. 이 시를 수필로 옮겨보면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 위에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지위로 서 있습니다. 이를 구부리고 꺾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높낮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빗댄 시입니다. 마지막 구절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에서는 이런 굽은 모습을 바로잡는 ‘기적’을 일러줍니다. 움직이지 않은 이 바위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아무 말 없이 움직임 없이 앉아 있는 바위가 우리가 가야 할 낯선 길을 일러줍니다.

2. 독서는 삶을 이끄는 에너지다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명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문학을 이해하자면 반드시 책 읽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즉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에너지는 ‘관계(關係)’입니다. 이 관계가 풍성하면 삶의 질 또한 상승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관계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와 동무들과의 관계, 사회에 진출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사건과 사물과의 관계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관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상과의 만남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은 넓고 깊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돌아다녀도 지구 전체를 볼 수 없으며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삶의 질량(質量)이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이 ‘관계’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는 새로운 세상과 낯선 사건과 인물들이 있으며, 이를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낯선 세상에 한 번 여행가고,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체험을 이렇게 문학작품과 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따라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삶의 질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 읽는 일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지식은 물론이고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읽기의 목적은 공부가 아닙니다. 즐기는 오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여행 하며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음악과 여행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즐긴 뒤 얻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책 읽기는 미리 공부라 여깁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지겨워합니다. 올바른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책 읽기에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낯선 세상을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먼저 찾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책 읽는 일이 즐거울 겁니다.

3.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제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으면 문학인들도 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양을 높인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등의 말은 막연한 개념 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양을 높이며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학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개념 정리 이상의 그 무엇을 눈앞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효용 가치를 쉬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문학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예술 장르이면서 음악이나 미술처럼 쉽게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동화책을 사달라고 한 적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 책 속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하며 돌아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책 한 권보다 쌀 한 되박이 더 귀하던 시절을 당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뒷날 내가 소설가가 되고 난 뒤 『한국문학의 위상』(김현, 문학과지성사, 1976)이라는 책을 읽고 어머니의 그 말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작고하신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은 이 책에서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장 들머리에 ‘역설적이게도’라고 미리 적은 건 ‘써먹지 못하는’ 그걸 써먹는 게 문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입니다. 문학은 당장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거나 힘이 될 수는 없지만, 쓸모없는 것이기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거나 노예로 만드는 건 쓸모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그 ‘쓸모있는 것들’ 뒤에 감추어진 허상을 쓸모 없는 문학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억압의 사슬을 풀고 자유 공간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며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 해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줄 압니다. 문학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정신적 영양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일일이 영양소를 찾고 재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는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당장 무엇이 내게 도움을 주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가 쌓이면서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정신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문학의 힘이자 문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맛다’ ‘틀리다’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인류가 달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어릴 때 얻은 계수나무 한 그루와 토끼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꿈과 희망은 과학으로 증명되거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꿈이 오늘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라 정확한 출처는 찾지 못했으나 문학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이야기라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한꺼번에 “물이 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린이

에게 “너는 왜 대답하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그제야 “봄이 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한 어린이들은 과학으로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한 아이는 과학의 잣대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눈이 녹는다고 곧바로 봄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과학으로 눈을 본 게 아니라 겨울과 봄이라는 계절을 이해하며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계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 어린이는 ‘눈’을 체험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 어린이의 대답에 문학의 참 기능과 역할이 스며 있습니다. 과학과 산술이 배제된, 인간의 감정에서 만들어진 옹고 그림이 잣대가 된 걸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학이 가진 기능과 역할입니다. 문학은 이렇듯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줍니다.

끝으로 이양하 수필가의 「신록예찬」을 음미하며 마무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 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 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하지 아니한가?

- 이양하 수필 「신록예찬」 중에서

이양하 수필가의 이 작품을 음미하다 보면 문학의 향기가 저절로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 문학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그날까지 훌륭한 작품으로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수필가 회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김호운
소설가

(사)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78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단편소설 『유리벽 저편』이 당선되어 등단. 장편소설 『표해록(漂海錄)』, 『바이칼, 단군의 태양을 품다』 등, 소설집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청소부』, 『사라예보의 장미』 등, 콩트집 『궁합이 맞습니다』(전2권) 등, 에세이집 『연꽃,미소』, 인문학 저서 『소설학림』 등 작품집 30여 권 출간. 한국소설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녹색문학상. PEN문학상, 둔촌이집문학상,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리더스에세이문학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문학진흥정책위원 역임. 현재 국립한국문학관 자문위원, 국제펜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 산림문학회 고문,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역임.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

- 공광규/ 시인, 문학박사

1. 서론; 영월문화관광사업의 현재

인구 3만 7천의 작은 지자체 영월군은 영월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는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게시되고, 영월문화예술회관 로비에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팸플릿과 가이드 책자들이 진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월간 《살기 좋은 영월》(발행인 영월군수)에서도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언급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지자체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관광 행정과 사업 건수가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영월군의 대표적 행사는 4월에 개최하는 ‘단종문화제’와 10월에 개최하는 ‘김삿갓문화제’다. 단종문화제는 조선 제 6대 임금인 단종의 고향과 충신들의 넋을 추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제다. 1967년부터 단종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다가 1990년 제24회 때부터 단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3일간 행사를 치르고 있다.

김삿갓문화제도 다양한 행사를 자랑할 만하다. 프로그램 수가 <영월 김삿갓> 뮤지컬 공연 등 23종이나 된다. 김삿갓문화제 기간 중인 10월에 시행하는 읍면 가을축제도 다양하다. 24년의 경우 동강변 일대에서 벌이는 <제5회 동강 붉은 메밀꽃 축제> 등 11종이나 된다. 지역예술인 지원사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활발하다. 영월문화관광재단에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후원한다. 2024년의 경우 연중 37종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필자는 관민이 ‘문화도시 영월’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영월에 박물관과 전시관만 해도 33개가 되었다.(『영월군지』(2019) 제2권 416~438쪽 참조) 특히 행정의 유연성과 관민의 연대가 끈끈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간 보여준 김삿갓면(2009년) 한반도면(2016년) 무릉도원면(2016) 등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만 봐도 그렇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려 한다.

2. 본론; 이야기를 확장하자

2-1. 단종과 김삿갓 이야기를 국제 콘텐츠 시장에 진출시키자

현재 영월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브랜드는 조선 6대 왕 단종과 조선조 풍자시인 김삿갓이다. 두 인물의 비극성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미 전국적인 이야기로 굳어졌다. 한마디로 영월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 대표 이야기

가 된 것이다. 이들의 비극적 삶은 문학, 음악, 영화, 드라마까지 반복되어 창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용되고 언급 될 것이 분명하다.

대표 상품(빅 브랜드)인 단종과 김삿갓의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키우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다. 이야기를 키워 국제 콘텐츠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야기 기초 마련이 필요하다. 이야기 창작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내외 공모방식이 답일 것이다. 공모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된다. 거액의 상금이면 더 좋다. 만족할만한 작품이 없을시 당선작 없음 처리하면 된다.

이야기를 영화와 뮤지컬, 오페라, 웹툰 등 창작물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것이다. 단종의 비극적 사건은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만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뮤지컬 〈명성황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왕실의 이야기이니 무대도 화려할 것이다. 영월의 수려한 산수도 볼만할 것이다.

김삿갓의 비극미 역시 이야기를 만들기 나름이다. 그의 풍자와 해학은 우리 2천년 문학사에서 독보적이다. 김삿갓 이전과 이후에도 그만한 기행의 시인은 없다. 김삿갓 이야기를 국제 콘텐츠 시장으로 확장시켜보자. 지난 2019년 웹툰 〈방랑시인 김삿갓〉이 140만 명의 조회를 기록한 적이 있고, 영월군은 책자로 발간한 경험이 있다.

2-2. 엄홍도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키워보자

지금은 민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꼭 왕이 스토리의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왕실과 지배 계층의 권력투쟁 희생물인 왕의 비극성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다. 역사는 당대에 재해석 되어야 한다. 당시 호장이었던 엄홍도의 인간상은 오늘날에도 상당한 가치를 갖는다. 엄홍도는 임금을 의리로 모시는 충신이기도 하지만 착한 선인이자 의리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의인의 표상이다. 따라서 엄홍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영월 호족으로 양반가의 신망 있는 인물이 멸문지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고 고뇌했을 상황은 의미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엄홍도는 1404년(태종 4)에 태어나 1474년(성종 5) 2월 26일에 졸하였다.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 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을 때 이 고장 호장직에 있었다. 조선시대 호장은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관리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향리직의 우두머리였다. 해당 지방관이 추천하면 중앙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호장은 보통 가문에 세습되거나 향리들 중 명망 있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고령인 자가 추대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양반 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층이라고 보면 된다. 같은 신분 간에 통혼이 이루어 졌다.

단종을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섬긴” 엄홍도가 단종을 만난 것은 단종이 왕에서 물러난 다음 해인 병자년인 1456년에 늦은 봄 유배지 청령포에서였다. 단종이 홀로 앉아 자규子規(두견새) 시를 읊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사육신이 꿈에 나타나서 마치 살았을 때와 같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다고 한다.

단종이 문득 깨어나 일어나 울면서 매우 슬퍼할 때에 엄홍도가 산마루에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청령포에 등불이 환하고 또 무슨 울음소리가 나므로 가 봐야겠다.” 하고는 옷을 벗고 강을 건너 곧바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기침을 하니, 울음을 그치고 묻기를 “너는 누구이며 깊은 밤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라고 하였다.

엄홍도가 대답했다. “신은 본 군의 호장인에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감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단종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와서 묶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네가 찾아왔으니 그 정성이 기특하다. 이제야 초야에도 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엄홍도는 매일 밤 비바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문안을 드렸다. 그해 여름 큰 장마로 인해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읍 영흥리 관풍헌에 침소를 옮기게 되었다. 밤마다 객사 동편에 있는 자규루(당시는 매죽루였는데 나중에 자규루라 불렀다)에 올라가 자규시를 읊으면서 지냈다. 그러던 중 금부도사 왕방언이 가지고 온 사약을 받고 승하였다.

단종의 옥체는 동강 물에 던져지고, 시녀는 동강 절벽에 몸을 스스로 던졌다. 그곳이 낙화암이다. 이때는 매우 추운 겨울이었다. 엄홍도는 군수에게 단종의 장례를 청했으나 세조를 두려워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엄홍도는 즉시 서강과 동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대기하였다가 시신을 인양했다. 미리 준비한 관에 봉안하고 가족들과 같이 운구하여 영월군 서북쪽 동을지산(冬乙之山, 지금의 장릉)에 안장하고 자취를 감췄다.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뒤인 1516년(중종 11) 비로소 그의 충절이 조정에서 논의되고 어명으로 노산묘를 찾아 수축하고 능전사청을 건립하였다. 이후 여러번 추증을 거쳐 1876년(고종 13)에 충의공忠毅公의 시호諡號를 내렸다.([『영월향교지』, 영월향교, 2020, 502~504쪽 참조])

2-3. 영월향교 컨테츠와 이야기를 확장하자

향교문을 활짝 열자. 향교 설립의 중요한 목표였던 교육기능을 살려 영월향교(강원도 문화유산 제100호)를 평생교육 기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향교는 오늘날 공립중고등학교 정도의 격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보면 된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였다. 지방향교 설립은 고려 태조 13년(930년)에 평양에 학교를 세워 6부생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시원이다.

조선 태조는 즉위 원년(1392년) 각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지방수령들의 능력평가 일환이었던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정하고 교육에 대한 임무를 크게 강조했다. 수령칠사는 농업과 상업을 성하게 하고, 인구를 늘리고, 학교를 일으키고(學校興),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소송을 간명하게 하고 등등이다. 학교흥, 즉 학교를 일으켜 가르치는데 향교가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태조 7년(1398년)에는 성균관 준공과 함께 지방향교의 설치를 촉구하였고, 태종 13년(1413년)에는 각 향교 관리를 위한 학전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행정 단위마다 향교가 설립되었다. 전국에 360개 향교로 체제와 기능을 완비하였다고 한다. 『영월향교지』(2020, 49쪽 참조)에서는 영월향교 건립시기를 전하는 자료가 명확히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영월군지』(2019, 383쪽 참조)에서는 영월향교가 1398년(태조7)로 건립되고 대성전에 성현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영월향교지』 53쪽에 25위 위패 봉안 설명과 그림이 있으니 다른 부분은 고증이 필요하다.

조선 건국 후 1488년(성종 17년) 당시 전국에는 329개의 향교가 있었고, 임진왜란과 6.25 전쟁으로 많은 향교가 불타고 중건되었지만, 현재는 전국 23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00여 곳은 재원이 없거나 적어서 춘추 석전제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다.(유교신문, 2022.12.14.)

그런데 전국에 산재한 대개의 향교문은 닫혀있다. 사람들 발길이 뜸해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기와가 내려앉는 등 쇠락의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문화도시에 기반하고 있는 영월향교는 향교문이 열려있는 곳이다. 음력 2월 상정일과 8월 상정일에 석전대제와 충효교실을 열고, 성년례를 하고, 노인을 모시고 잔치를 여는 기로연을 한다. 김삿갓(김병연) 기신제를 지낸다. 향교 나름대로 사업이 활발하다. 여기에 몇 개 더 아이디어를 낸다면 다음과 같다.

〈엄홍도학교〉를 열면 어떨까?

엄홍도는 영월의 충의忠義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반면에 그에 대한 행적 발굴이 너무 적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단독 책 한 권 안 나온다. 엄홍도는 유교의 절의사상을 실천한 인물이다. 영월이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진 것은 엄홍도와 같은 충의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영월군지』 제2권 220쪽 참조) 불의는 참아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못 참는 세태다. 정의도 의리도 없고 선인도 드물다.

집안의 멸문을 각오하고 위급한 처지에 처한 왕에게 측은지심을 발휘한 선한 인간, 단종과 인연이 되고부터 충심을 배우고, 왕이 죽었을 때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한 의리를 배우고, 왕이 죽었을 때 군수에게 왕의 장례를 권유했다. 세조의 권력이 두려워 군수가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이 시체를 직접 챙겨 암매장을 하고 숨었다. 당시 나라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의리와 용기란 무엇일까? 정당이나 각급 행정 단위, 기업 조직, 학교 교육에서도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일 것이다.

〈기로학교〉를 확장하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청년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초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복지도 중요하다. 향교에 기로연耆老宴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과거 왕실에서도 있었다. 노인을 잘 모시는 관습이다. 현재 영월향교에서도 기로연 행사를 하고 있다. 기는 60세 로는 70세를 말한다. 왕실에서도 기로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영월을 포함한 국내외 거주자 중 60세 이상은 기로학교에 입학하도록 허용해서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면 어떨까?

〈향교스테이〉를 하자.

불교사찰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지역민 대상 뿐 아니라 해외와 원거리 거주자의 숙박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형의 향교스테이는 어떨까? 향교는 원래 유생들이 먹고 자면서 공부하는 스테이였다. 기숙학교였다. 명륜당에는 스승이 묵고, 동재와 서재에 유생들이 기숙했다. 향교스테이가 엄홍도학교, 기로학교를 프로그램으로 품어도 좋다.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들도 스테이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향교 문을 활짝 열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향교를 드나들며 벽과 기둥을 만지고, 공자와 현인들의 위패를 직접 친견하고 친숙해지도록 하자. 필요하면 대성전에 봉안한 25인의 간단한 전기를 쉬운 문장으로 발간해 방문자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향교는 모델대회나 패션쇼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극과 지역의 노래자랑도 향교 마당에서 해보자.

2-4. 영월향교와 별마로천문대가 이야기 연대를 해보자

적어도 6백년 전후에 건립한 영월향교와 2001년 개관한 별마로천문대는 어떻게 이야기 콘텐츠로 만날 수 있을까? 도덕, 윤리,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인간의 도덕적 삶을 강조한 공자와 별과 천체를 관찰하는 천문대도 만날 수 있다. 북두칠성이 이야기가 연결고리다. 향교에서는 천체와 천문을 이야기하고 천문대에서는 유가 경서에 나오는 천문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아래 그림 가운데 첫 번 째는 규장각에 소장된 궤수적홍 채색화다. 공자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린 성적도 중 ‘궤수적홍’을 규장각에 소장된 고서화 중 걸작으로 소개하고 있다. “『공부자성적도』는 1741년에 조선 왕실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됩니다. 전시 면은 「궤수적홍(跪受赤虹)」으로 유학의 완성을 신비로운 기적으로 표상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규장각사계》, 2020.12. 19쪽)

두 번째 그림은 『제천향교지』(제천향교, 2003)에 보이는 성적도 99번 ‘궤수적홍’ 그림과 글이다. “99. 궤수적홍: 꿇어앉아서 붉은 무지개를 받아들이다. 공자께서 육경六經의 수정과 서술을 마치시고는 재계齋戒하시고 북두北斗를 향해서 고유告由를 준비하시는데 갑자기 붉은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황옥각문黃玉刻文이 되므로 공자께서 무릎을 꿇고 받으셨다.”(316쪽)

육경은 시경, 서경, 예기, 악경, 역경, 춘추를 말한다. 유교의 경전은 육경에서 출발하며, 악경은 일찍이 없어져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심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고유는 사삿집이나 나라에서 큰 일이 있을 때 신명에게 알리는 것이다. 황옥각문은 누른 옥에 글자를 새긴 원판이다.

세 번째 그림은 공자의 일생을 그림으로 그린 「성적지도 聖蹟之圖」(『곡부공씨유적보감』(상), 2016) 총 36장 중 32번째 장이다. ‘궤수적홍’(무릎 꿇고 붉은 무지개를 받다)인데 ‘북두성’ 별자리가 나온다. “-한문 생략 - 공자는 저작이 완성된 후 몸을 정결히 하고 북두성을 향해 완성을 고하려고 할 때, 갑자기 붉은 무지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노란 옥이 되었다.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공자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일을 하고, 하늘의 법에 순응하여 온전한 충성으로 만들어냈다.” 공자는 무릎을 굽혀 절을 하고 받았다.” (323쪽)

《규장각사계》(2020) 채색화

『제천향교지』(2003) 흑백화

『곡부공씨유적보감』(2016)(상) 채색화

공자와 북두칠성 이야기는 중국 작가 가란柯蘭(1936~)이 지은 『공자家 이야기』(선, 2010)에도 나온다. 가란의 어머니는 공부에서 자라 북경으로 시집을 온 공자의 7대손 공덕성이고, 그의 아버지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의 스승이자 유명한 역사학자 가소민(中國正史 25史의 하나인 新元史 저술)이어서 공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작가다.

“사람들은 또한 공부의 건물이 하늘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풍수에 의하면 공부의 지세는 ‘전청룡, 후백호, 좌주작, 우현무, 명칠성, 암팔괘’라고 한다. 명칠성은 지상의 7채 건물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분포된 것을 가리키는데, 그중 하나

가 바로 피난루避難樓다.(중략)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공부는 북두칠성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성공이 매년 음력 8월 초나흘에 북두칠성을 향해 접북두接北斗라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것은 공부와 하늘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또 이렇게 해야 공부가 대문의 대련對聯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수명을 함께 한다同天並老’고 할 수 있다.(『공자家 이야기』, 195~196쪽)

가란은 공부의 접북두 의식이 성대하고 장중한 공자의 제사에 비하면 극히 신비스럽다고 소개한다. 이 제사의식에는 외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 공자를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인 괴성魁星이라고도 한다. 괴성은 『효경孝經』에서 문장을 관장하므로 하늘에서 문관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공자는 바로 하늘의 괴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고, 이 때문에 공묘에 있는 공자의 장서루藏書樓를 괴문루魁文樓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정보만 해도 공자를 대성전에 모시는 향교와 천문대와 이야기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향교와 천문대가 서로 이야기 교환을 통해 천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고 옛 전적 속에 문자로 인용되었는지 정리해 인쇄물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풍부한 향교와 천문대 여행이 될 것이다.

또 영월문화원 홈페이지에서는 영월지역 민속신앙 중 칠성신七星神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칠성은 북두칠성의 신으로 가문의 번영과 만사형통, 풍년을 기원해서 모시는데 제주祭主는 집안의 부인으로서 할머니들이 맡는다. 보통 칠성은 집 뒤뜰에 장독대 옆에 많이 모시는데 고사를 지내는 날은 주로 칠월칠석날 밤이 되며 그 앞에 자리를 펴고 떡시루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는다. 그리고 촛불을 밝힌 다음 동서남북을 향해 각각 일곱 번씩 절을 한 다음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축원한다.”

위 사례처럼 북두칠성을 우리 민족, 더 좁혀서 영월의 민속신앙과 연결하고, 외국의 문화와 설명해도 흥미가 있을 것이다. 북두칠성은 중국(방향 관측과 농경)과 일본(길 찾기와 영혼의 안정과 평화), 인디언 문화(가족의 술과 농사일정)와 그리스 신화(보호와 안전), 아랍문화(항해 지침)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3. 결론; 이야기 생산 토양을 만들자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는 기조로, 영월의 대표 브랜드이자 빅 서사(이야기)인 단종과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를 국제 콘텐츠 시장에 진출시키고, 호장 엄흥도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키워보며, 강원도 문화유산 100호인 영월향교 콘텐츠를와 이야기를 확장하고, 영월향교와 별마로천문대가 이야기 연대를 해보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다. 여기서 더 추가하자면 폐광지역과 영월기담을 모아 이야기화(스토리텔링)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우리는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리며, 이야기는 도시와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야기는 광물을 캐거나 공장을 지어 먹고 사는 방식보다 수명이 길다. 산업 변천의 역사가 말해준다. 폐광 중심지역인 영월과 주변의 시군 상황(영월군의 경우 1970년 인구수 123,668명에서 1990년 64,588명 2010년 40,674명 2025년 현재 37,000

여명으로 감소[『영월군지』 제 2권, 99~100쪽 참조], 자동차공장지대였던 미국 디트로이트, 섬유산업이 중심이었던 대구, 조선산업이 몰려있던 거제가 사례로 보여준다.

관광 소비자에게 상품을 각인시키려면 인상 깊은 브랜드 스토리를 짜내야 한다. 지나간 이야기든 새로운 이야기든 어떤 소재로도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행정은 이야기를 생산하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농부 역할을 해야 한다. 지령이 개체수가 부족하면 적극적 외입도 가능하다. 외입은 내부 지령이를 긴장시키고 토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조건만 만들어주면 지령이는 외입이 가능하다.

영월군 관민은 국내외 공모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와 외입 가능한 지령이를 채집하고, 지역에 깃들여 사는 지령이, 즉 이야기 발명자(크리에이터, 문화예술인)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광규

시인. 문학박사. 2016년 월간 《동서문학》 등단. 시집 『담장을 허물다』 『서사시 금강산』 『서사시 동해』 등과 시그림책 『흰 눈』 등 9권. 중고등교과에 수필 「맑은 슬픔」과 시 「별국」 「얼굴반찬」 「소주병」 「별 닛는 나무」 「새싹」 등 게재

단종문학의 4강 8목

김윤송(지리산문학관장)

1. 들머리

〈논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그 아미(蛾眉)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魂)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일제강점기와 해방분단, 격동하는 현대사에 대쪽같은 절개와 지조를 지닌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1897~1961)가 지어 지난 50년간 교과서에 수록되어 널리 잘 알려진 자유시 〈논개〉를 읽으면 누군들 절의의 화신 논개의 충혼을 아름답이 추앙하지 않겠는가.

왜 이리 장황하게 논개를 서술하는가 하면 논개라는 캐릭터와 지금의 주제 단종이라는 캐릭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 다 눈물의 샘이기 때문이다. 논개는 논개의 충절이라는 주제로 소재로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되었고 단종은 충신들의 충성 대상으로 많은 문학작품이 창작되었다.

논개라는 임진왜란의 대표 여성은 절의의 화신으로 국민 누군들 모르겠는가. 논개는 문학작품을 창작한 적이 없고 남아 있는 것도 없지만 그를 기리는 그를 노래한 수많은 문학작품은 끝없이 창작되어 애송, 애독되고 있다.

단종도 마찬가지로 비극의 군주로 충성의 대상으로 사육신, 생육신과 더불어 국민 누군들 모르겠는가. 단종은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비극적인 시가 3수가 남아 있고 그에 못지 않게 그를 기리는 그를 노래한 수많은 문학작품은 끝없이 창작되어 애송, 애독되고 있다.

그러나 단종을 노래한 작품이 변영로의 〈논개〉보다 더 문학성이 뛰어나고 국민애송시가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

마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춘원 이광수의 명작 <단종애사>보다 더 뛰어나고 잘 알려진 논개 관련 소설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없을 듯하다.

논개 관련 작품을 모아 논개문학이란 주제별 문학장르를 정립할 수 있듯이 단종 관련 작품을 모아 단종문학이란 주제별 문학장르를 정립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기도 하다. 단종문학이란 단종을 주제로 소재로 창작한 문학작품의 총칭이다. 주제별 문학장르이다.

단종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단종문학을 단종어제의 문학, 단종충신의 문학, 단종유적의 문학, 단종주제의 문학 등 4강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분하여 원운문학, 차운문학, 육신문학, 충신공신문학, 성적문학, 유적문학, 운문학, 산문학 등 8목으로 세분하였다.

2. 단종어제의 문학

2.1 원운문학

열성어제 제2권 / 단종대왕(端宗大王)○시(詩)

<영월군의 누각에서 지음[寧越郡樓作]>

달 밝은 밤 두견새 우는데 / 月白夜蜀魂啾1)
시름겨워 누각에 기대었네 / 含愁情倚樓頭2)
네 울음소리 슬퍼 나 듣기 괴롭구나 / 爾啼悲我聞苦3)
네 소리 없으면 내 시름없을 것일 / 無爾聲無我愁
이 세상 괴로운 이에게 말을 전하니 / 寄語世上苦勞人4)
춘삼월 지구루에는 부디 오르지 마소 / 慎莫登春三月子規樓5)

또

원통한 새 한 마리 궁궐에서 나온 뒤로 / 一自冤禽出帝宮
외로운 몸 외딴 그림자 푸른 산속을 헤맨다 / 孤身隻影碧山中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들 길 없고 / 假眠夜夜眠無假
해마다 한을 끝내려 하나 끝없는 한이네 / 窮恨年年恨不窮
산봉우리에 울음소리 끊어지니 새벽달이 비추고 / 聲斷曉峯殘月白
봄 골짜기에 피 흐르니 붉은 꽃이 떨어진다 / 血流春谷落花紅
하늘은 귀 먹어서 하소연 못 듣는데 / 天聾尙未聞哀訴

청령포 단종 어소에 시판이 하나 더 있는데 압운은 冤, 魂, 園, 喧, 門으로 평성(平聲) 원운(元韻)이다. 압운, 평측, 대련이 맞지 않다. 청령포 시판 <어제시(御製詩)>는 생략한다.

『열성어제』란 책은 역대 조선국왕의 문학작품을 모아 수록한 책이다. 거기에 단종의 시 작품 2수가 실려 있으니 <영월군의 누각에서 지음[영월군루작(寧越郡樓作)]>이다. 한 수는 육언4수, 칠언1수, 구언1수의 장단구 사(詞)인데 자규사(子規詞)라 하고 한 수는 칠언율시인데 자규시(子規詩)라 한다. 자규시를 번역한 것으로 대표적인 단종 주제 시라고 할 만한 것이 중앙일보 [시가 있는 아침]에 실린 이근배 시인의 번역시 <단종 ‘자규시’>이다.

<단종 ‘자규시’> / 이근배

나는 한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짜지을 그림자도 없는
외로운 몸 산속을 떠도네
잠 못드는 밤이 가도 밤이 와도
잠은 오지않고
한(恨)뻗힌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한은 끝이 없구나
새울음 끊긴 새벽
산마루에 달빛 걸려 있고
피땀한 봄 강물에
지는 꽃이 더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내 애끊는 소원 듣지 못하고
슬픈 내 귀에 소쩍새 울음만 들리는 것이냐
-단종(端宗)(1441~1457) ‘자규시(子規詩)’ 중

2.2 차운문학

濯纓先生文集續上 / 詩○七言律詩 / <追廣魯陵御製子規詩 庚戌(1490, 성종21)>

錦水眉山憶舊宮。一聲聲在亂樹中。佳人停繡驚春暮。孤客挑燈坐夜窮。
萬里愁添芳草綠。千年淚洒落花紅。不如歸去歸何處。叫閣無由達帝聰。

단종의 어제 칠언율시 <자규시>의 원운은 宮, 中, 窮, 紅, 聰으로 모두 평성 동운(東韻)이다. 차운은 같은 압운을 하는 것으로 탁영 시는 단종 시와 같은 宮, 中, 窮, 紅, 聰 운자를 썼다.

濯纓先生文集續上 / 詞 / 追賡魯陵御製子規詞

血吻紅竟夜啾。哀聲苦故垂頭。向風說落花怨。憑雨傳芳草愁。寄語老地荒天羈旅人。慎莫登三更月子規樓。

<자규사>의 원운은 啾, 頭, 愁, 樓이고 탁영 차운시의 운도 같은 啾 頭, 愁, 樓이다. 탁영이 살았던 성종시대가 태평성대이긴 하지만 단종을 노래한 시를 짓는다는 것은 세조에 대한 불복이고 불충이라고 논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감히 차운시를 지은 것을 보면 탁영은 초 의제를 단종에 빚대어 지은 풍자문학 <조의제문>의 작가 그 스승 점필재 김종직과 같이 단종의 숨은 충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단종의 충신 삼정승의 하나인 정분의 전기 <정분전>을 지은 일두 정여창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3. 단종충신의 문학

3.1 육신문학

단종 충신의 대표적인 존재가 육신이다. 육신은 사육신만을 지칭했으나 영조 이후 생육신이 설정되면서 사육신으로 구분하여 불리게 되었다. 육신이란 생육신으로 불리워진 추강 남효온이 전기자료로 창작한 문학작품 <육신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추강은 계유정난(1453, 단종1)의 희생자 허후의 전기 <허후전(許誦傳)>과 병자사화(단종복위운동, 1456, 세조2)의 희생자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의 <육신전(六臣傳)>을 서술하였다. 나중에 『역대요람(歷代要覽)』이란 책에서 둘을 묶어 칭하여 칠신(七臣)이라 하였는데 계유정난의 희생자와 병자사화의 희생자는 다르므로 일괄 칠신으로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1.1 사육신의 문학

사육신 중 박팽년의 시조 <금생여수(金生麗水)라 한들>, 성삼문의 시조 <낙락(落落) 장송(長松)>, 이개의 시조 <까마귀

눈비 맞아) 등은 모두 세조가 육신들에게 형신할 때에 김질(金磧)을 시켜 술을 가지고 옥중에 가서 옛날 태종이 정몽주에게 불러준 노래<하여가>를 읊어 시험하니, 성삼문은 정포은의 노래<단심가>로 답하였고, 박팽년과 이개는 모두 스스로 단가(短歌)를 지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조와 절의를 지킬 것임을 답한 것이다. 성삼문도 나중에 따로 자기 시조를 지은 것이다. 성삼문과 박팽년의 단가나 정몽주의 단심가는 모두 선비의 일편단심을 강조한 절의가이다.

사육신의 시조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어 일괄 소개한다.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진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夷齊를 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싯것인들 그 뉘 땅에 낫더니 -성삼문-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박팽년-

창안에 뿔는 쫓불 놀과 이별하였관대
길으로 눈물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저 쫓불 날과 같아야 속 타는 줄 모르는도다 -이개-

客散門扃(손은가고문은 닫고)하고 風微月落할제
酒甕(술독)을 다시 열고 詩句 훑부러니
아마도 山人得意는 이뿐인가 하노라. -하위지-

간밤에 불던 바람 눈서리 차단말가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핀 꽃이야 일러 무삼하리오. -유응부-

초당에 일어 없어 거문고를 베고 누워
태평성대를 꿈에나 보려 했더니
문전의 수성어적(數聲漁笛)이 잠든 나를 깨와라. -유성원-

추강은 <육신전>의 논평에서 은삼동육(殷三東六)이라 하여 중국 은나라 3명의 인자 곧 기자, 미자, 비간의 삼인(三仁)과 병칭되는 존재로 동방의 육신을 거론하였으니 육신을 대단히 높이 추앙한 것이다.

3.1.2 생육신의 문학

관란 원호(元昊)의 시조

간밤의 우뚝 여흠 슬피 우리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리 네리라.

매월당 김시습의 고소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생육신의 대표인물 매월당 김시습이 단편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남겼는데 거기에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가 실려 있다. 이 소설은 남주인공 홍생이 평양 부벽루에서 천년전 기씨녀와 만나 시를 주고받은 사연을 묘사한 것이다. 기씨녀는 바로 망명객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기자조선 준왕의 딸이다. 신선이 된 공주이다. 혼령은 아니다. 이 소설은 결국 세조의 왕위 찬탈을 기씨녀의 신세에 비겨 은연중 풍자한 것이다.

추강 남효온의 전기문학 <육신전>

추강은 병자사화(단종복위운동)의 희생자 6인의 전기인 <육신전>과 함께 계유정난의 희생자 허후의 삶을 기록한 <허후전(許誦傳)>을 남겼는데 당시 시회에 저촉되는 목숨을 건 저작이라고 하겠다. 용기가 대단한 문인의 지조가 아니면 창작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시에 걸렸다면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같이 반세조 역적으로 몰릴 위험성이 높은 문학작품이었다.

추강 남효온의 공거문 <상성조대왕서(上成宗大王書)>(소릉복위소(昭陵復位疏))

문종의 비로 단종의 모후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고로 서거하였다. 그 능이 소릉이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해하려 할 때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보복할 것이라고 한 뒤 바로 세조대왕의 세자가 별세하였다. 세조가 귀신의 장난이라고 분노하여 소릉을 파헤치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신주를 종묘에서 내버렸다.

추강은 25세 때(1478, 성종9) 성종대왕이 재앙 때문에 구원하자 유학으로서 상서하여 ‘소릉복위’를 주창하며 왕후의 존호를 회복시키고 예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사홍과 정창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시 사람들 ‘광생(狂生)’이라 지목하자, 이때부터 세상에 뜻을 끊고 생육신의 길을 걸었다. 한문사대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은 추강의 <육신전>을 읽고, <서육신전후(書六臣傳後)>을 지어 사육신 현창을 하지 않는 나라를 개탄하였다.

3.1.3 심육신(心六臣)의 문학

점필재의 처남이자 제자인 매계 조위는 점필재 문집을 편찬하면서 첫머리에 <조의제문>을 수록하였다. 그 사실로 연산군에게 처벌된 것이다. 탁영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조의제문>을 수록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조의제문>은 사람파에 있어 자기정체성의 상징이요 충의정신의 경전이였다.

사육신처럼 죽어야만, 생육신처럼 은거해야만 육신인가. 벼슬하면서도 심적으로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유적불처럼 심정적으로 육신이요 자취는 문인관료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유자광의 모함처럼 반역자의 심보는 아니다.

점필재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지은 사람파의 대종사이다.

매계 조위는 <조의제문>을 점필재 문집 첫머리에 수록하여 처벌됨

탁영 김일손은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수록하여 처형됨. 단종대왕의 <자규사>와 <자규시>에 차운함.

수헌 권오복은 역시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수록하고 『청구풍아』의 성삼문과 이개의 인물평을 직필이라고 예찬하여 처형됨

일두 정여창은 단종 충신 삼상신의 일인 정분의 전기 <정분전>을 지어 무오사화 때 문초를 당하고 귀양감

허백당 용재 성현(成俔, 1439~1504)은 추강의 <육신전>에서 무신 유응부를 뺀 문신 오신(五臣)을 <용재총화>에서 높이 평가함

이들은 자취는 벼슬아치이지만 심정적으로 육신이라고 볼 수 있다. 벼슬하면서도 육신의 충분(忠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사육신, 생육신에 이어 심육신(心六臣)이라고 명명하여 그 충의정신을 기린다.

점필재 김종직의 풍자문학 <조의제문>

점필재가 <조의제문>을 지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무오사화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조의제문>에 거상중 여행한 기록이 있다고 효자가 거상중 외출할 리 없다고 <조의제문>은 점필재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자기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세조 때 벼슬하고 세조를 부정하는 점필재의 충의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조선 전기에는 거상중 외출은 절대불가 규칙이 아니었고 조선 후기처럼 엄격히 하여 운동부족으로 급사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다.

점필재의 처남이자 제자인 매계 조위는 점필재 문집을 편찬하면서 첫머리에 <조의제문>을 수록하였고, 그 사실로 연산군에게 처벌된 것이다. 탁영 김일손이 『성종실록』에 <조의제문>을 수록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조의제문>은 사람파에 있어 자기정체성의 상징이요 충의정신의 경전이였다.

일두 정여창의 전기문학 <정분전>

<정분전>은 일두 문집에 수록되지 않고 연산군일기에만 기록된 일문이다. 단묘조(端廟朝)에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이로는 삼상신(三相臣), 생육신(生六臣), 사육신(死六臣), 칠현신(七賢臣)이 있는데, 우상(右相)인 충장공(忠莊公) 정분(鄭本)은 바로 삼상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전기를 기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 일두의 <정분전>

이다. 그 아들 공주파 정지산(鄭之産)은 칠현신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정분전>은 열전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았다. 장흥파에선 정분의 아들이 정광로(鄭光露)이다.

3.2 충신공신문학

단종대왕의 충신은 육신이 대표적이다. 단묘조(端廟朝)에 절개와 의리를 지키며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이로는 삼상신(三相臣), 생육신(生六臣), 사육신(死六臣), 칠현신(七賢臣)이 있었다. 그 외에도 수백 명이 넘는 인물이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정조대왕 때 그 모두를 현창하여 집대성하여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에 268명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그중에 없는 이가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다. 단종이 영월로 귀양갈 때 호송한 금부도사도 있고 사약을 갖고 간 금부도사도 있는데 왕방연은 둘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

7월에 금부도사(그 이름은 없었다.)가 노산군을 영월 서강 청령포(淸泠浦)에 모셔다 두고 밤에 곡탄(曲灘) 언덕 위에 앉아 슬퍼서 노래를 지었는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맘 같도다. 울어 밤길 예도다.” 라 하였다. 《병자록》○ 용계(龍溪) 김지남(金止男)이 금강(錦江, 영월동강)에 이르러 여랑(女娘)의 슬픈 노래를 들었는데, 대개 도사가 지은 것이었다.

왕방연의 시조 <단장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맘 같도다. 울어 밤길 예도다.

이 노래를 듣고 눈물 짓지 않은 이가 없는 단종 충성에 대한 대표 시조이니 왕방연도 단종 충신이라고 하겠다. 왕방연의 시조는 당시 슬픈 유행가처럼 전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한역시조로도 유행하였다.

용계(龍溪) 김지남(金止男, 1559~1631)의 한역시조 <단장가>

용계는 1608년(광해군즉위년)에 강원도도사를 지냈으므로 그때 영월 노산군묘를 참배했을 것이다. 왕방연의 시조를 듣고 한시로 번역하여 남겼을 것이다. 그 한역시조는 다음과 같다.

“千里遠遠道, 美人離別秋. 此心無所着, 下馬臨川流. 川流亦如我, 嗚咽去不休.”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된 뒤 단종으로 추존되는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은 단종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조수정 실록에 전 판서 박충원의 줄기가 있다.

전 판서 박충원(朴忠元)이 졸하였다. 충원은 문명(文名)으로 벼슬길에 진출하였으나 임백령(林百齡)에게 미움을 받아 영월 군수로 쫓겨났다. 영월에 요사스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관리가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노산군(魯山君)의 빌미라고 하였다. 그러자 충원이 제문(祭文)을 지어 묘소에 제사를 올렸다.

그 뒤로 이 제문을 축문으로 사용하였다. 충원이 6년 동안 군수로 있었으나 끝내 탈이 없었고 요사스런 말도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그를 칭송하였다. 그 낙촌비각이 장릉 경내에 있다.

낙촌 박충원의 노릉 축문

王室之胄 왕실의 원자로서
幼沖之君 어리신 임금이었네.
一片靑山 청산의 작은 무덤
萬古孤魂 만고의 쓸쓸한 혼이로다.

낙촌 박충원(朴忠元, 1507~1581)은 처음으로 노산군묘를 정비하고 제사한 벼슬아치로서 단종의 공신이다.

동토 윤순거의 기록문학 <노릉지발(魯陵誌跋)>과 <노릉지덕암중건기(魯陵旨德庵重建記)>

노서 윤순거의 아우인 동토 윤순거(尹舜舉, 1596~1668)는 65세 때(1660, 현종1)에 영월군수로 부임하여 노산군묘 일명 노릉(魯陵)의 사적을 모아 엮은 『노릉지(魯陵誌)』를 저술하고, 지덕암(旨德庵)을 중건하고 그 기문<노릉지덕암중건기(魯陵旨德庵重建記)>을 창작한 공신이다.

이괄의 난에 전사순국한 부친 이증로를 참수한 원수 이수백을 백주에 죽여서 복수한 이문웅은 용서되고 벼슬하여 영월군수에 이르렀다. 군수 시절 『노릉록(魯陵錄)』을 편찬하였다. 동토가 이를 산삭, 증보하여 『노릉지(魯陵誌)』를 편찬한 것이다. 발문에서 사육신의 설원과 표창을 희망하였다.

지덕암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몽금암(禁夢庵)이라 했고 1610년(광해군2)에 중수하고 노릉암(魯陵庵)이라 하였고, 새로 중건한 다음에 지덕암이라 하고 중건기를 지은 것이다.

4. 단종유적의 문학

4.1 성적(聖蹟)문학

관암 홍경모의 기행문학 <월주성적기(越州聖蹟記)>

박물학자 이제 홍양호의 손자로 같은 박물학자가 된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함경도 조선태조의 유적인 <풍패성적기>와 단종대왕의 유적인 <월주성적기>를 남겼다. <월주성적기>는 영월의 사대 성적 장릉(莊陵), 관풍

현(觀風軒), 자규루(子規樓), 청령포(淸冷浦)를 소개한 글이다.

단종대왕은 임금이므로 그 관련 유적은 성인 성자를 붙여 성적이라고 한다. 공자도 성인이므로 공자의 사적도 성적이 라고 한다. 관암 홍경모는 52세 때(1825, 순조25) 3월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월을 순찰하며 단종 사대 성적을 봉심 하고 기문을 지은 것이다. 장릉을 서술하며 아전이 암매장하였다는 설과 소년승이 시신을 훔쳐 강물에 던져버리고 현 존하는 능은 가묘일 뿐이라는 설 등 두 설을 소개하였다.

죽석 서영보의 기록문학 장릉 <영천입석기 신해년(靈泉立石記 辛亥)>

죽석(竹石), 죽석관(竹石館) 서영보(徐榮輔, 1759~1816)는 신해년(1791, 정조15) 2월에 어명으로 강화도에 가서 『세 조실록』을 상고하여 왔으니, 단종 사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그해에 영월 자규루를 중건하고 이어서 박팽년의 후 손 박기정을 영월부사에 승진시켜 보내어 단종 사적을 탐문해 보고하라 명하였다.

영월 장릉에는 제정(祭井)이 있는데 그 깊이가 몇 치 정도 되는데, 큰 가뭄이나 홍수에도 물이 불거나 줄지 않고, 한식에 제향(祭享)을 올릴 때마다 물이 팔팔 솟아나와 영월(寧越) 사람들 사이에 기이한 일로 전해지고 있는 기적의 샘을 서 술한 것이다.

이계 홍양호의 기록문학 <자규루 상량문(子規樓上樑文)>과 번암 채제공의 <자규루 상량문(子規樓上樑文)>

관암의 조부 이계는 68세 때인 1791년(정조15) 2월 6일 정조의 명을 받고 <자규루 상량문(子規樓上樑文)>을 지었 다. 자규루는 강원도 영월부(寧越府)의 객관(客館) 남쪽에 있는 누각으로, 원래 이름은 매죽루(梅竹樓)이다. 단종이 왕위 에서 쫓겨나 영월에 머물 때 자주 올랐던 누각으로, 단종이 이곳에서 두견새 소리를 듣고 자규사(子規詞)를 읊었는데 가 사가 매우 슬퍼 영월 사람들이 이후 자규루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쌍계(雙溪) 이복원(李福源)의 기록문학 <중건자규루기(重建子規樓記)>

경은 이맹전은 매월당 김시습과 추강 남효온과 같은 생육신의 일인이다. 쌍계는 <경은이공시장(耕隱李公諡狀)>과 <물계서원비명(勿溪書院碑銘)>도 지었는데 물계서원은 창녕 성씨 9현을 함향하는 서원이다. 거기엔 사육신인 매죽당 성 삼문과 생육신인 문두 성담수가 배향되어 있다.

4.2 유적문학

단종유적은 영월이 제일 많고 관련 유적도 모후 현덕왕후 소릉 및 왕후 정순왕후 송씨의 능 사릉에 얹힌 사연도 많다. 단종이 시해당하자 시녀들이 영월군 금강 바위 위에 올라가 투신한 곳이 백제 수도 부여와 같은 낙화암(落花巖)이다. 강 이름도 같아 금강이고 금강 낙화암 위에 지은 정자가 금강정이다.

매산 홍직필의 칠언절구 〈낙화암〉

錦江秋色正鮮新。恨水滔滔咽萬春。落盡巖花何日發。月中環珮有歸人。

금강의 가을 빛은 새롭고 고운데
한스런 강물 도도히 만년을 우네
떨어진 바위 꽃은 언제나 필 것인가
달빛에 꽤옥 소리 돌아가는 시녀인가

〈충신추계 추익한선생 신도비(忠臣秋溪秋益漢先生神道碑)〉

추계는 전설적인 인물로 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한성부윤이란 고위직을 지냈다는 것은 역사에서 찾기 어렵고 단종설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참작할 뿐이다.

강원도 영월읍 태백산 보덕사(報德寺)라는 절에 안치되어 있는 단종의 영정에 얹힌 이야기이다. 그림에는 백마를 탄 단종과 그 앞에 머루 바구니를 들고 있는 추충신(秋忠臣)이 그려져 있다. 또한 신령이 된 충신 엄홍도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는 태백산 일대의 서낭당 뒤에 가시가 있는 엄나무가 많다는 사실을 전설화한 것이다. 즉, 엄충신이 죽어서도 단종을 지키기 위해 사후에 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5. 단종주제의 문학

5.1 운문학

소악루 이유의 연시조 〈자규삼첩(子規三疊)〉

子規(자규)야 우지 마라 우려도 속절없다
울거든 너만 우지 날은 어이 울니는다
아마도 네 소리 드를 계면 가슴 아파 호노라

어엿븐 냇 님군을 심각하고 겹노 우니
호놀이 시계거든 너 어이 우리시리
날 업슨 霜天雪月(상천 설월)에는 놀노 후여 울니던다

不如歸不如歸(불여귀 불여귀)니 도라갈만 못한거는
어엿분 우리 님군 무스일로 못 가신고

至今(지금)에 梅竹樓(매죽루) 든 빗치 어제론 듯하여라

소악루(小岳樓) 이유(李潏, 1675~1753)는 장릉 참봉(莊陵參奉)·금부 도사(禁府都事)·감찰(監察) 등을 역임하였고 동북 현감(同福縣監)을 지낸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소악루는 이유(李潏)가 양천 현아(縣衙) 뒷산 기슭 강변에 세운 누각이다. 1994년 강서구 가양동에 복원되었다.

3대 시조집인 김수장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실려 전한다. 총 3장의 연시조인데 작자가 영월 장릉 참봉이던 57세 때(1732, 영조8) 불행했던 단종을 생각하고 지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2 산문학

백호 임제의 고소설 〈원생몽유록〉

조선 중기 백호 임제가 지은 한문 단편소설. 임제 자신을 투영하는 원자허라는 인물이 꿈 속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역사적 사실을 비판하고, 사육신의 절개를 칭송하는 몽유록계 소설이다. ‘입몽-좌정-토론-시연-각몽’ 구조가 최초로 등장하여 몽유록 장르의 전범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명은 김수민의 고소설 〈내성지〉

「내성지」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의 선비인 명은(明隱) 김수민(金壽民, 1734~1811)이 24살 때인 1757년(영조 33)에 창작한 한문소설이다. 조선의 단종과 충신 열사들, 명나라의 건문황제와 충신 열사들이 지금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인 강원도 내성에서 만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잔치를 열어 시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주인공인 무명자가 꿈을 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몽유록의 형식을 갖는다. 김수민의 문집인 『명은집(明隱集)』 권18에 수록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녹봉(鹿峯) 유언일(劉彦一, 1725~1797)은 함양 심진동 출신의 대학자이다. 녹봉서당 주인이다. 1795년(정조19) 9월 당시 남원 땅 현재 장수군 선비 명은(明隱) 김수민(金壽民, 1734~1811, 자字제옹濟翁, 본관부안)이 안의삼동을 유람하고 유숙하였다.〈김윤승수필집, 나는 유교신도입니다, 소후, 2024〉

저자 미상의 고소설 〈연화몽(蓮花夢)〉

「연화몽」은 1928년 회동서관에서 간행한 넓은 의미의 몽유록계 고전소설이다. 단종의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당시 단종조의 역사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에 김시습이 단종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충절을 포상하는 내용은 이 소설의 주요 의미를 확인케 한다.

춘원 이광수의 현대소설 『단종 애사(端宗哀史)』

『단종애사』는 이광수가 1928년 11월 30일부터 1929년 12월 1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 역사소설이다. 총 217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930년 회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단종애사』에 대한 평가는 단종의 비극을 식민지 현실의 알레고리로 받아들여 이광수의 민족주의를 재확인하는 긍정적 입장과 어리고 유약한 단종의 패배를 인간 공통의 숙명으로 일원화하여 결국 세조로 대변되는 패권 정치를 승인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이 논쟁점을 포함해 『단종애사』는 고전에 값하는 풍부한 해석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규희의 아동문학 <어린 임금의 눈물>

이규희 글, 이정규 그림의 <어린 임금의 눈물>은 이주홍아동문학상 수상작이다. 이규희는 1978년 중앙일보 소년중앙 문학상에 동화 <연꽃등>이 당선된 작가이다. 평이한 문장으로 단종애사를 서술한 것이다.

6. 날머리

김삿갓문화관 / 김윤승

김삿갓도 한반도도 여기에는 면이 서네
무엇을 기념하기 잘하는 고을이네
세계의 문화유산 남긴 단종 면은 안 세우나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에 있는 단종 유적이니 유적이 있는 남면을 단종대왕면으로 개칭함이 어퍼하리. 이미 경주시 양북면은 2021년 문무대왕면, 여주시 능서면은 2022년 세종대왕면으로 개칭되었다. 단종대왕면에 단종문학관을 설립한다면 금상첨화의 문화유적이 될 것이다.

기왕 바꾸는 김에 영월군 북면도 곤드레봉과 곤드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곤드레면으로 개칭함이 좋겠다. 김삿갓문화관에서 시행하는 김삿갓문학상은 상금도 없지만 수상자 시비를 필수 건립하여 볼거리,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천년 유적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단종문학이란 필자가 만든 신조어이다. 단종문학이란 단종대왕의 어제문학 <자규사>, <자규시>를 비롯하여 단종 충신들의 문학작품, 단종유적에 관한 문학작품, 단종을 주제나 소재로 창작한 한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작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단종문학은 단종의 주요 유적이 있는 강원 영월이 중심일 것이나 유적은 전국에 산재하고 전국 시민들이 관련 작품을 창작하여 허다하니 광범위한 문학분야이다.

단종문학은 단종이 어제시를 짓기 전부터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희생된 사육신의 순절 절의가를 비롯하여 생육신의 충절을 읊은 작품 및 후대인의 단종추모 작품을 총망라한다. 고전문학엔 시조가 많고 가사도 있으며, 한문학엔 몽유록

소설 및 한시, 제문, 서발, 기문, 유람록 등이 많고, 현대문학엔 춘원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비롯한 소설, 아동문학, 희곡, 시가 등이 있다. 영월군이 주도하여 단종문학을 집대성, 체계화, 정립하고 현창하길 바라며 마친다.

김윤송 (본명 김윤수)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전대학교 대학원 동철동문화 회장

한국고전번역원 총동문화 회장, (사) 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 성균관 부관장, 지리산문학관 관장,

대전대학교 철학과 객원교수 역임, 시조시인, 명예 자연치유학박사

번역문학 《월명총시문》(1999), 《고문선역》《다산시문집》, 《조선왕조실록》 등 국역에 참여하다

중국 공자문화 학술답사단 활동

한시집《함양구경》의 다수

2025년 수필의 날 영월 단종제 심포지엄 질의토의

발제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에 대한 질의문

홍역선

1. 영월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 현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보고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박물관과 전시관만 해도 33개소가 되고 연중 37종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인구 37,000 명의 작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서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협심과 노고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단종문화제와 김삿갓문화제와 같은 대서사시를 비롯하여 동강축제와 같은 관광산업에 힘입은 결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에 문학 분야는 외면적으로 백일장, 시낭송대회 등의 역할에 머물러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 이는 문학이 언제나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 나가는 배경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발제자께서는 문화관광 기획자의 입장에서 ‘문화도시 영월’의 지속과 성장을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테면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는 발제 아래 ‘단종과 김삿갓 이야기의 국제 콘텐츠 시장 진출, 엄홍도 이야기의 확장, 영월향교의 콘텐츠, 향교와 천문대 이야기 연대’ 등으로서 이들은 주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이야기의 확장성을 담당하게 될 우리 문인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구체적인 제안들이다.

질의1. 영월군에서 만약 발제자에게 내년에 기획과 운영의 책임을 한 가지 맡긴다면 위의 여러 콘텐츠 중에 어떤 안을 당장 실행해 보고 싶은지요? 37,000여 명의 군민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가성비를 고려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 영월향교에서의 다양한 콘텐츠화는 적극 검토되어야 제안이다. 유림과 군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안이기 때문이다. 영월향교는 조선 태조 때 건립되어 700여 년 동안 영월을 지켜온 공간이다. 어쩌면 발제자가 제안하는 콘텐츠를 모두 수용할 수 곳일 수도 있다.

전국에 향교가 234개소 있다고 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대개의 향교 문이 닫혀 있다고도 하였다. 대부분 재정 때문이다. 향교의 문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기본적인 관리재정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콘텐츠가 과제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비 부담 등으로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크지 않다고 한다.

늘 문이 열려 있는 향교로는 수필박물관과 마주 서 있는 대구향교를 들 수 있겠다. 담당자로부터 현황을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구향교에서는 평일에 9개의 프로그램(해동소학, 심경, 삼국유사, 시전, 맹자, 한문기초, 논어 서예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600여 명이 수학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청년유�회 등 산하단체에서 20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지역의 초중학생 5,000여 명의 인성체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의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문교양과 인성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이다. 역시 대구에 있는 구암서원은 민속놀이, 모형 건축물 조립하기 등등의 콘텐츠로 발 빠르게 진화하여 대구향교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다.

물론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와의 단순비교는 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향교가 별다른 특화사업도 아닌 인문 교양, 취미,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영월향교는 단종, 엄홍도, 김삿갓이라는 특성화 콘텐츠가 깔려 있기에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역시 문제는 프로그램이다.

발제문에 들어 있는 영월향교의 활용 방안 중에 엄홍도학교가 눈길을 끈다.

엄홍도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다. 문학적으로 스테디셀러가 가능한 콘텐츠다. 엄홍도는 영월 엄 씨 문중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고, 군청에서도 적극적인 편이다. 군청에서는 장릉 후편에 엄홍도 기념관을 건립하여 충의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화재로 전소되고 난 뒤에 신속히 복원함으로써 군청과 문중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엄홍도의 송모 유적지로 경북 문경시 산양면에 충절사와 상의재가 있다. 이처럼 엄홍도 이야기는 문인에게 스토리텔링의 확장성을 자극하는 화소가 틀림없다.

다만 애매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굵고 짧은 스토리로서 확장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단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발제자에게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질의2. 향교에서든, 엄홍도기념관에서든, 어느 공공장소에서든 엄홍도학교를 개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넣을 것이요? 어떤 다양한 교과목이 있는가요?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교육장이 될 묘책이 무엇인가요?

홍역선

영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수필학 전공), 《대구수필》로 작품 활동(1994),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중등 교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관장, 대구수필작은도서관장. 계간 《수필세계》 주간. 수필지 『꽃그늘에 숨어 얼굴을 붉히다』, 『대구수필문학사』 등. 대구시문화상(문학부문), 대구문학상 등

이야기 확장에 대하여

우효순

공광규 시인님의 ‘사람들은 이야기에 끌린다.’를 읽으며 우리 뿌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월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인상 깊었습니다. ‘단종문화제’와 ‘김삿갓문화제’ 개최는 물론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등 지명을 변경한 대목에서 특히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영월과 같은 강원도, 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양구와 인연 맺은 지 20여년 되어갑니다. 영월에서 맞이하는 수필의 날. 같은 강원도이기에 양구문화관광사업에도 관심 주며 이야기를 따라 갔습니다.

강원도 영월은 비경을 간직한 산간 오지마을로 꼽힌다. 깊은 산골에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청령포에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단종이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장릉에 묻히기까지 곳곳에 많은 흔적이 남았고, 그 자취를 따라가면 슬픈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단종이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중 임금을 의리로 모시는 충신이자 의인 엄홍도가 있다. 단종이 사약을 받고 옥체가 동강 물에 던져지자 서강과 동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시신을 인양하고 준비해간 관에 봉안한 후 장릉에 안장했다. 그 이후 자취를 감춘 엄홍도.

김삿갓 역시 끌리는 이야기다.

김삿갓 본명은 김병연이다. 그의 조부 김익순은 함흥 중군으로 전관된 신입지에서 흥경례 반란군의 급습을 받고 생포 항복하게 된다. 항복사실을 은폐하려다 발각된 김익순은 역모죄로 몰려 참수를 당한다. 가족은 살려주기로 하여 살아 남은 김병연이 20세 되던 때, 영월 도호부에서 열린 향시 백일장에서 ‘역적 김익순을 논박하라’는 시제를 날카롭게 비판해 1등으로 급제한다.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되고, 조부를 비난한 시로 1등 함을 수치로 여겨 삿갓으로 얼굴 가리고 각지를 방랑하며 방랑시인이 되었다.

단종과 김삿갓처럼 영월이 품고 있는 비극적 역사가 오랜 시간 거치는 동안 전국적 이야기가 되었다. 영월의 굵직한 작품을 더욱 키워내 국제콘텐츠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단지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줄만한 양념 스토리 창작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수필은 일상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산문형식으로 쓴 글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영월과 마찬가지로 양구에도 옛 이야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창작성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특히 동양권 문화가 갖는 신선함으로 역사를 다룬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월 이야기 확장으로 국제 콘텐츠 시장 진출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려면 토지 평탄작업하고 곡식을 심듯, 이야기 거리를 더 찾아내거나 창작해서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 실존했던 것 같은 단단한 기초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만이 아닌 상상 속의 여러 가치를 표현 하다보면 허구성을 담게 되고 역사 왜곡 경계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필과 허구성 그리고 역사 왜곡의 경계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효순 약력

2006년<수필춘추>수필등단. 2025년<시인정신>시등단

한국문인협회, 강원문인협회, 한국수필가협회, 한국시낭송협회 양구지부 회원.

양구문학회, 양구수필, 수필춘추 운영위원. 솔향문학회 회장. 양구시문학팀 팀장.

수필춘추 문학상수상 저서: 수필집 <제비꽃길을 걸으며> <솔향오솔길>공저 외

김윤송의 <단종문학의 4강8목>에 대한 질문

류인혜

단종문학이란 단종의 어제 시를 비롯하여 단종 충신들의 문학작품, 단종유적에 관한 문학작품, 단종을 주제나 소재로 창작한 한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을 아우르는 모든 문학작품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지닌 단종문학을 정리해 주어 감사합니다.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단종을 기리는 자리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단종의 시 원운(宮, 中, 窮, 紅, 聰)과 (嗽, 頭, 愁, 樓)를 차운해서 쓴 濯纓(탁영)先生の 한문 시도 인상 깊었지만, 어려운 한시를 번안한 이근배 시인의 <단종 자규시>에서 더욱 이해가 쉬웠습니다.

또 단편적으로 외우던 사육신의 시조를 대하여 반가웠으며, 전설처럼 전해오는 충신들의 이야기와 수백 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춘원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와 아동문학 <어린 임금의 눈물>까지 비운의 왕 단종을 기리는 수많은 작품을 대하며 애달픔의 감성이 깊은 우리의 정서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정조대왕이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던 인물 268명의 명단을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에 수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발제문의 서두에서 논개의 충절을 이야기하면서 특정인을 기리는 문학작품의 창작을 말했습니다. 수필가들이 이곳 단종의 주요 유적이 있는 영월에 와서 단종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영월군에 단종문학관이 설립된다면 우리 수필가들의 말을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요. 단종을 주제로 수필 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종문학이란 단종을 주제로 소재로 창작한 문학작품의 총칭으로 발제자가 김윤송(지리산문학관장) 만든 신조어이다. 단종문학의 정립을 위하여 단종문학을 단종어제의 문학, 단종충신의 문학, 단종유적의 문학, 단종주제의 문학 등 4강으로 분류하고 다시 세분하여 원운문학, 차운문학, 육신문학, 충신공신문학, 성적문학, 유적문학, 운문학, 산문학 등 8목으로 나누었다.

단종어제의 문학

원운문학에서는 『열성어제』에 단종의 시 작품 2수가 실려 있다. 자규사(子規詞 영월군루작寧越郡樓作)와 칠언율시

자규시(子規詩)이다. 쉽게 번안한 이근배 <단종 ‘자규시’>도 소개한다

차운문학은 濯纓先生文集(1490년 성종21)에서

단종의 어제 칠언율시 <자규시>의 원운은 宮, 中, 窮, 紅, 聰으로 모두 평성 동운(東韻)이다. 차운(次韻 한시에서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따서 시를 지음)은 같은 압운(押韻) 시가를 짓는데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 또는 그 운)을 하는 것으로 탁영 시는 단종 시와 같은 宮宮, 中中, 窮窮, 紅紅, 聰聰 운자를 썼다.

濯纓先生文集續上 / 詞 / 追賁魯陵御製子規詞

<자규사>의 원운은 嗽, 頭, 愁, 樓이고 탁영 차운시의 운도 같은 嗽추, 頭두, 愁수, 樓루이다. 탁영이 살았던 성종시대가 태평성대이긴 하지만 단종을 노래한 시를 짓는다는 것은 세조에 대한 불복이고 불충이라고 논죄할 수 있다.

단종충신의 문학

육신문학

육신이란 생육신으로 불린 추강 남효온이 전기자료로 창작한 문학작품 <육신전>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추강은 계유정난의 희생자 허후의 전기 <허후전(許誦傳)>과 단종복위운동으로 벌어진 병자사화(1456 세조2)의 희생자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의 <육신전(六臣傳)>을 서술하였다.

정조 때 편찬된 실학자 이극익은 역사서 『연려실기술』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에 정난(靖難)에 죽은 여러 신하의 시조를 단가로 소개하며 사육신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이 지은 단가를 서술하였다.

생육신의 시조 관련 원호(元昊)의 시조와 생육신의 대표 인물 매월당 김시습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린 고소설 <취유부벽정(醉遊浮碧亭記)>이 있다.

생육신의 전기문학

추강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은 병자사화(단종복위운동)의 희생자 6인의 전기인 <육신전>과 함께 계유정난의 희생자 허후의 삶을 기록한 <허후전(許誦傳)>을 남겼다.

남효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용재 성현(成俔, 1439~1504)은 수필집 <용재총화>에서 성삼문 · 박팽년 · 이개 · 유성원 · 하위지 같은 이는 모두 걸출한 사람들이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모두 주살(誅殺)을 당하여서 저술한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애석해하였다.

탁영 김일손(金駟孫, 1464~1498) 선생은 조선 송종. 연산군 때의 문신이며 학자, 사관, 시인이다. 본관은 김해이며, 자는 계윤, 호는 탁영(濯纓), 소미산인(少微山人)이다. 시호는 문민(文愍)이다.

추강 남효온의 공거문 <소릉복위소昭陵復位疏>

단종의 모후인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고 산고로 서거하였다. 그 능이 소릉이다. 추강은 25세 때(1478년) 성종 대왕이 재앙 때문에 구원하자 유학으로서 상서하여 ‘소릉복위’를 주창하며 왕후의 존호를 회복시키고 예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육신전후書六臣傳後>는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이 추강의 <육신전>을 읽고, 국가에서 사육신을 존대하지 않음을 개탄하여 쓴 글이다.

충신공신문학

단종대왕의 충신은 육신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수백 명이 넘는 인물이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정조대왕 때 그 모두를 현창하여 집대성하여 『장릉배식록莊陵配食錄』에 268명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그중에 없는 이가 금부도사 왕방연(王邦衍)이다.

왕방연의 시조 <단장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맘 같도다. 울어 밤길 예도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강원도 도사를 지냈던 용계(龍溪) 김지남(金止男, 1559~1631)은 영월 노산군 묘를 참배하여 왕방연의 시조를 듣고 한역 시조 <단장가>를 남겼을 것이다.

“千里遠遠道, 美人離別秋。此心無所着, 下馬臨川流。川流亦如我, 嗚咽去不休。”

낙촌 박충원의 노릉 축문

王室之胄 왕실의 원자로서 幼冲之君 어린신 임금이었네.
一片青山 청산의 작은 무덤 萬古孤魂 만고의 쓸쓸한 혼이로다.

낙촌 박충원(朴忠元, 1507~1581)은 처음으로 노산군 묘를 정비하고 제사한 벼슬아치로서 단종의 공신이다.

노서 윤선거의 아우인 동토 윤순거(尹舜舉, 1596~1668)는 65세 때(1660, 현종1)에 영월 군수로 부임하여 노산군 묘 노릉의 사적을 모아 엮은 『노릉지魯陵誌』를 저술하고, 원찰 지덕암(旨德庵)을 중건하고 그 기문 <노릉지덕암중건기魯陵旨德庵重建記>을 창작한 공신이다.

박물학자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1774~1851)는 기행문학인 함경도 태조의 유적인 <풍패성적기>와 단종대왕의 유적인 <월주성적기>를 남겼다. 이는 영월의 사대 성적 장릉(莊陵), 관풍헌(觀風軒), 자규루(子規樓), 청령포(淸冷浦)를 소개한 글이다.

단종유적의 문학

성적(聖蹟)문학

단종은 임금이므로 그 관련 유적은 성인 성자를 붙여 성적이라고 한다.

관암 홍경모 52세 때(1825, 순조25) 3월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월을 순찰하며 단종 사대 성적을 봉심하고 두 가지 설의 기문을 소개했다. 관암의 조부 이계는 68세 때인 1791년(정조15) 2월 6일 정조의 명을 받고 <자규루상량문자規樓上樑文>을 지었다. 자규루는 단종이 영월에 머물 때 자주 올랐던 누각으로 강원도 영월부(寧越府)의 객관(客館) 남쪽에 있는 누각이다.

1791년 2월 6일 윤사국의 장계를 통해 자규루 중건을 앞두고 발생한 여러 기이한 현상을 들은 정조는 관중추부사 쌍계(雙溪) 이복원(李福源)에게 <중건자규루기重建子規樓記>를 짓도록 하였고, 좌의정 채제공(蔡濟恭)과 이조 판서 이계홍양호(洪良浩)에게 <자규루상량문자規樓上樑文>을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

유적문학

단종유적은 영월이 제일 많다. 관련 유적도 모후 현덕왕후 소릉 및 왕후 정순왕후 송씨의 능 사릉에 얹힌 사연도 많다.

신해년(1791, 정조15) 2월에 어명으로 강화도에 가서 『세조실록』을 상고하여 왔으니, 단종 사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영월 장릉에는 제정(祭井)이 있는데 그 깊이가 몇 치 정도 되는데, 큰 가뭄이나 홍수에도 물이 불거나 줄지 않고, 한식에 제향(祭享)을 올릴 때마다 물이 솟아 나와 영월(寧越) 사람들 사이에 기이한 일로 전해지고 있는 기적의 샘을 박팽년의 후손인 박기정이 보고하자 임금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 ‘영천(靈泉)’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돌에 글씨를 써서 세우게 하였다.

죽석(竹石) 서영보(徐榮輔, 1759~1816)가 기문 <영천입석기靈泉立石記>를 지었다.

충신 추계 선생 신도비 <忠臣秋溪秋益漢先生神道碑>

전설적인 인물로 단종을 따라 죽은 추계 추익한과 죽어서도 단종을 지키기 위해 사후에 가시가 있는 엄나무가 되었다는 엄홍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며 정선군 여양리에 노산군(단종)을 모신 서낭당이 있는데 이것에도 전설이 전한다.

단종주제의 문학

윤문학

소악루 이유의 연시조 <자규삼첩자子規三疊>은 김수장의 『해동가요(海東歌謠)』에 실려 전한다. 소악루(小岳樓)는 이유(李潐)가 양천 현아(縣衙) 뒷산 기슭 강변에 세운 누각이다. 1994년 강서구 가양동에 복원되었다.

산문학

조선 중기 백호 임제의 고소설 <원생몽유록>은 한문 단편소설로 임제 자신을 투영하는 원자허라는 인물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비판하고, 사육신의 절개를 칭송하는 몽유록계 소설이다.

명은明隱 김수민(金壽民, 1734~1811)의 고소설 <내성지>는 명은이 1757년(영조 33)에 창작한 한문소설이다.

춘원 이광수의 현대소설 『단종 애사端宗哀史』는 단종이 태어나 산간 영월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이광수가 1928년 11월 30일부터 1929년 12월 1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 역사소설이다. 총 217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930년 회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규희의 아동문학 <어린 임금의 눈물> 이규희 글, 이정규 그림의 <어린 임금의 눈물>은 이주홍아동문학상 수상작이다. 평이한 문장으로 단종애사를 서술한 것이다.

류인혜 柳仁惠 innhea@hanmail.net

《한국수필》 1982년 겨울호 수필 <하늘> 초회추천, 1984년 봄호 수필 <우물> 추천완료

《현대시조》 1985년 봄호 시조 <아침> <숲> 초회추천, 1985년 여름호 시조 <낮도깨비> 추천완료

역임 한국수필작가회 창립발기인, 총무, 부회장, 제9대 회장, 한국수필가협회 자문위원, <한국수필> 편집위원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사무국장

현재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수필작가회 고문, 한국수필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계간문예> 기획위원

작품집 1987년 8인집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교음사

1993년 수필집 《풀처럼 이슬처럼》 풀잎

1999년 수필집 《움직이는 미술관》 선우미디어

2004년 시집 《은총》 선우미디어

2006년 수필집 《순환》 선우미디어

2006년 테마에세이 《나무이야기》 선우미디어

2008년 ‘류인혜의 책읽기’ 《아름다운 책》 북나비

2014년 수필선집 《마당을 기억하며》 수필과비평사 · 좋은수필사

2018년 ‘류인혜의 나무이야기’ 《나무에게 묻는 말》 수필세계사

2022년 수필집 《수필이 보인다》 북나비

2023년 수필집 《나무를 읽는다》 북나비

2023년 수필선집 《불러보고 싶은 이름》 북랜드

수상 1999년 제18회 한국수필문학상

2007년 제23회 펜문학상(수필부문)

2014년 제11회 한국문협작가상

2022년 제9회 송헌수필문학상, 제8회 한국문학인상

단종문학에 대한 질의문

오차숙(계간현대수필 발행인)

단종문학의 정립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한 정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운승 관장님께서 들머리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단종문학 4강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종어제의 문학에는

원운문학과 차운문학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특히 단종어제의 문학에서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제6대 단종에 대한 작품은 충신들의 충성대상으로 많은 문학작품이 탄생되었지만, 누구보다 단종은 비극적인 군주로서 그 당시 유배지 영월에서 자규사와 자규시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규사와 자규시의 차이점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2) 단종충신의 문학에는 대표적인 문학이 육신문학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충신들이 사육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21대 영조 이후에 생육신이 설정되었다고 하니, 그 경로와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 단종유적의 문학에 대해서는

단종대왕은 임금이므로 그 관련 유적들을 성인 성자를 붙여 성적(聖蹟)이라고 했다는데, 그 시기에 관암 홍경모는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월을 순창하며 단종 시대 성적을 봉심하고, 기문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암 홍경모는 단종의 룡인 장릉을 서술하며 단종대왕 시신을 아전이 암매장되었다는 설과, 소년승이 단종의 시신을 훔쳐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설, 그 결과 현존하는 장릉은 가묘라는 설이 있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그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단종주제의 문학에 대해서 어쭙고자 합니다. 단종주제의 문학에는 운문학과 산문학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문학에서는 그 대표적인 것이 '자규야 우지마라 우려도 속절없다' 로 시작되는, 소약루 이유의 연시조 <자규삼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을 사모하며 쓴 글로는 사육신, 생육신, 심육신의 작품 외에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할 시조나 소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5)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은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육신전을 지은 남효온, 사육신과 밀접한 관계였지만 그의 밀고로 거사가 들통 나게 한 김질, 단종이 영월로 귀양갈 때 호송했던 왕방연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6) 마무리 하며

관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날머리에 대해서 어쭙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김삿갓문학관에 대한 작품을 소개하며,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에 있는 단종 유적이라 유적이 있는 남면을 ‘단종대왕면’으로 세우면 어떨까 하셨는데, 그러면 금상첨화 유적지가 될 것 같아, 앞으로 유적지가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종문학’은 관장님께서 만든 신조어라 하셨는데 그 범위도 앞에서 제시했듯, 어제문학, 충신문학, 유적문학, 주제문학을 총칭하고 있어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단종이 어제시를 짓기 전부터,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희생된 사육신의 순절 절의가를 비롯해 생육신의 충정을 읊은 작품, 그리고 현대소설 이광수의 <단종애사>까지 집대성하고 있어, 문학을 하는 우리들에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이쯤에서 질의를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차숙

현재, 『계간현대수필』 발행인

1995년 『창조문학』 시, 1997년 『현대수필』, 수필, 평론으로 등단

한국 펜클럽 본부, 한국문인협회 이사

수필집 : 『콘크리트 속의 여자』, 『태풍이라도 불었으면』, 『번홍화』, 『가면축제』, 『음음음음 음음음』, 『흔적 아닌 것이 없다』 외.

선집 : 『장르를 뛰어넘어』, 『감성에 말을 걸다』, 『밭줄 위에서 추는 춤』

시집 : 『레일 이탈을 꿈꾸고 싶은 날』, 『아름다운 구속』

평론집 : 『수필문학의 르네상스』, 『실험수필 코드읽기』, 『현대수필의 프리즘』, 『윤재천 수필문학론 엮음』

석사논문 : 『윤재천 실험수필론』 연구

인연(因緣)을 그리다

김호운(소설가 ·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는 자신의 장편소설 『인생』의 서문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인생에 대해 달관했다든지 소설가의 말이라고 해서 사유의 깊이를 더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곱씹는 건 아니다. 그의 소설 『인생』을 읽고 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소설 『인생』은 원 제목이 『活着(활착)』이다. 중국어로는 ‘후어저’라 읽는다. 活+着로 구성된 문장어다. 活(huó)은 ‘살다’라는 동사며 着(zhe)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다. 따라서 活着은 ‘살아가는 것’ 또는 ‘살아가는 채로 있다’는 뜻이다. 우리말의 명사 ‘인생’과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 식물을 옮겨 심었을 때 뿌리가 잘 내렸다는 의미로 쓰는 ‘활착(活着)’에 가까운 말이다. 인생이란 살아 있으니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소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중국어의 活着와 같은 단어를 찾기 쉽지 않아 ‘인생(人生)’이라고 번역했으나 活着의 의미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삶이란 ‘인연을 그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 인생은 그렇게 마치 캔버스(삶)에 인연을 그려가는 일이다. 참한 인연을 만나면 참한 그림이 되고 못난 인연을 만나면 못난 인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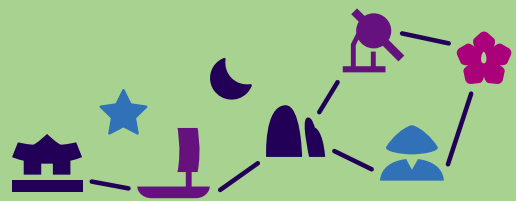
20대 후반에 만난 내 인연을 그린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월간 『백조』 기자로 취직해벗어나지 못해 어리보기 하게 기자 노릇 하느라 무척 힘들게 지낼 때였다. 조경희 수필가에게 청탁한 원고를 받으러 갔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기자가 원고를 직접 받으러 가든지 필자가 신문사나 잡지사로서 와서 원고를 전달해야 했다. 조경희 수필가는 당시 한 국일보에 근무했다. 신문사로 사진 기자와 함께 찾아갔다. 신문사 편집부에서 짧은 인터뷰를 하고 원고를 건네받고 원고료를 드렸다. 원고료가 든 봉투를 받아든 선생님은 원고료에서 돈을 꺼내더니 나와 사진기자에게 만 원씩 주는 게 아닌가(당시 원고료는 3만 원이었다). 극구 사양하며 일어서는데 기어이 붙잡고 그 돈을 손에 쥐여 주면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못 하니, 초밥으로 점심 사드시고 돌아갈 때는 꼭 택시를 타세요” 했다. 당시 화폐 가치로는 1만 원으로 초밥을 먹고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신문기자 생활을 해본 조경희 수필가는 잡지사 말단 기자의 고달픔을 그렇게 위로하고 보듬어 주신 것이다. 그날 사진 기자와 나는 일식집에서 초밥을 먹으며 잠시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 용돈으로 남기자며 허름한 식당으로 가 순두부찌개로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회사로 갔었다.

난생처음 경험했던 이날의 감동은 꽤 오랫동안 갔다. 이날 받은 감동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살자는 다짐으로 바뀌었다. 물질로 배풀며 살만큼 나의 생활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으로도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상대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내 삶의 지혜가 이때 싹 텔다.

농부는 콩을 심을 때 세 알을 심는다고 한다.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땅 벌레가 먹고, 남은 한 알이 농부의 몫이다, 이것이 농심(農心)이다. 조경희 수필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 에피소드는 내게 이런 ‘농심’을 심어주었다. 생활이 팍팍해질 때면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떠올린다. 그러면 마치 청량제처럼 여유가 생기며 마음이 맑아진다.

- (사)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수필극을 위해 작품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원명화 각색과 연출 -

달달영유권 다종 문화



달마다 새롭게

달달영유권

제1회 전국궁도대회 _ 영월군 궁도협회

전국에서 모인 궁수들

영월군의 화합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전국 단종문화제 궁도대회’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궁수들이 함께한 의미 깊은 자리였다. 영월군궁도협회는 1963년부터 전통 스포츠인 궁도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영월의 궁도정인 ‘금호정’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한 엄기종 회장은 전국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영월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에서 진행되던 궁도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개최한 이유는 궁도 특성상 이틀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이 영월에 머무르며 지역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 기간 영월에 머물며 지역 관광도 즐기고, 충절의 고장 영월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엄 회장은 앞으로 이 대회가 영월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기종 영월군궁도협회장

단체전 수상자

동덕정 (일반부 1위, 권덕명 대표)

국궁을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제1회 전국 단종문화제 궁도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단종문화제를 알고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국궁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앞으로 단종문화제가 전통 스포츠를 널리 알리는 큰 축제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삼척시청 (실업팀 1위, 김기석 대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정말 뜻깊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전부터 단종문화제에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으니 더 특별합니다. 국궁은 저에게 늘 새로운 도전이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영월이라는 도시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따뜻한 정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개인전 수상자

각궁부 1위 (조성광, 안산 광덕정)

“이번 대회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각궁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활이라 다루기도 어렵고 승단 과정 또한 오래 걸리는 종목이거든요. 국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단종문화제 궁도대회 1회에서 각궁부 1위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처음 방문한 영월은 풍경도 아름답고 행사 분위기도 좋아 다음에도 꼭 다시 찾고 싶습니다.”

여자부 1위 (이영순, 보성 청학정)

“남편과 함께 참가했는데, 저만 1위를 차지했네요. 강원도 대회는 처음인데 영월로 오는 길부터 너무 아름답고 주민분들의 따뜻한 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회 운영도 매우 체계적이었고 봉사자분들도 항상 웃으며 친절히 해주셔서 편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단종문화제가 앞으로도 궁도계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대회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장년부 1위(안인기, 삼척 죽서정)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활이 기억에 남아 오랜 지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번 전국 규모의 제1회 단종문화제 궁도대회에서 장년부 1위를 차지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의미 있는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정말 기쁩니다. 영월에서 보낸 이 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노년부 1위(김민종, 삼척 해망정)

“단종도 더 깊이 알고 지역 축제도 즐기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까지 얻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국궁은 저에게 정신 수양의 도구이자 인생의 활력소예요. 영월에서 먹었던 메밀전과 다슬기 요리도 너무 맛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함께 준비해주신 해망정 사두님과 사범님, 회원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절과 인륜을 잇는 전통혼례

영월향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의 교육 및 제향 기관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통 예절 교육과 충효 정신 확산에 힘쓰고 있다.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예식

전통 혼례는 가족 중심의 가치와 인륜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심각한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웨딩홀이 없는 영월에서 향교는 혼례를 위한 실질적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한 첫 혼례, 결혼 10~20주년을 맞은 부부의 리마인드 혼례,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혼례는 가족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전통을 계승하는 뜻깊은 의례이다.

충절의 고장에서 이어가는 전통

전통 혼례는 충절로 알려진 영월의 지역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된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 268명을 배출한 영월에서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 정신과 공동체 가치를 알리는 상징성을 갖는다. 영월향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지역과 국가에 충실한 인재를 양성하는 공익적 가치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도 결혼을 원하는 주민이나 결혼을 추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소와 인력을 제공하여 영월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월에 충효공원이 조성되어 단종과 충신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기념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엄인영 영월향교 전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삽니다

이경상 · 이선자 부부

이경상 님

“제 아내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마음과 뜻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날 지켜줘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살겠습니다.”

이선자 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스무 살에 결혼했으니 벌써 오래됐죠. 그때는 옆집에서 가마를 빌려 잠깐 식만 올렸어요. 오늘 이렇게 전통혼례를 다시 하니 옛날과 많이 달라 새롭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멋진 혼례인 줄 알았다면 자식 다섯 명 모두 오라고 했을 텐데, 큰딸만 왔어요. 조금 서운하지만, 사진을 많이 찍어 오래 기억하려고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에게 참 잘 해줬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사위 김일환 님

“장인어른, 장모님은 인자하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평생 오로지 자식밖에 모르신 분들이에요. 오늘날만큼 두 분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빛나시는 것 같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

조태윤 · 김연자 부부

조태윤 님

“한 번쯤 이런 전통 혼례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 아내는 저에게 행운이자,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좋은 시간을 우리 가족 모두의 기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고맙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자 님

“남편은 늘 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늦게 들어와도 늘 일이 있겠거니 하고 믿을 수 있었죠. 화려한 꽃보다는 한결같은 소나무처럼 늘 든든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장녀 조은재 님

“부모님의 결혼식에 자녀로서 참석하게 된 게 정말 영광이에요. 저희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녀 조은아 님

“제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부모님 결혼식을 보다니 정말 뜻깊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막내 조병완 님

“저는 아직 결혼 한 번 못 했는데, 부모님은 벌써 두 번째 하시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절과 효, 세대를 잇는 배움의 장

요즘 아이들의 인성 부족을 탓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른들이 먼저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데 있지 않을까 싶다. 영월호문화원은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호 교육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예(禮)’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절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다

충절만세 골든벨은 단종문화제의 정신을 살려 충절과 호, 인의예지의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관내 5개 중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가족, 주민들이 참여해 충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른 아침부터 문제집을 손에 든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든벨 문제는 영월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롭게 지역 문화재를 알게 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향후 더 많은 영월군민에게 문제 내용을 배포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 대회는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자리였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영월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다.

이순복 영월호문화원 총무

1등 권승아 (석정여중 3학년)

“학교 친구들과 주말마다 모여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을 하게 돼 정말 기쁘고 뿌듯해요. 특히 고구려 시대 호와 충을 가르친 기관을 묻는 ‘태학과 경당’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 분야의 과학자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요.”

2등 이예담 (석정여중 3학년)

“역사 선생님과 주말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가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마지막에 ‘태학’을 ‘학당’으로 잘못 적어 틀린 게 많이 아쉬웠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도 이런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3등 신혜연 (석정여중 2학년)

“학교 선생님과 사촌들과 함께 공부하며 준비했어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라는 문제에서 ‘존경’을 ‘존중’이라고 써서 틀린 게 가장 아쉬워요. 역사를 원래 좋아했는데 이번 골든벨을 통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상금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마을이 함께 만들어낸 행복한 건강체조

영월중앙로터리클럽은 2012년 창립 이후 지역사회 봉사와 문화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약 2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 화합 건강 체조 경연대회'는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귀한 자리다.

올해는 단종문화제와 함께 진행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특히 하송1리에서 참가한 96세 어르신이 한 달 넘게 연습에 매일 나오시고, 대회 당일에도 끝까지 율동을 완주하시는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이 체조 경연대회는 단순히 우승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면서 마을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퇴근 후에도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강사님들과 공무원분들의 노고 덕분에 대회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종문화제와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신재현 영월중앙로터리클럽 33대 회장



우승팀 인터뷰 - 하송1리 경로당

함께 빛어낸 값진 우승

저희 팀은 경로당 회원 48명 중 20명 넘게 참여했는데, 평균 연령이 57세이고, 최고령은 96세 어르신이세요. 처음엔 연세가 많으셔서 팀을 꾸리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시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매일 만나 즐겁게 함께한 연습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했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거의 매일 모여 두 달 가까이 연습했어요. 어르신들이 연습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힘든 순간에도 “꿀찌라도 괜찮다!” 하면서 늘 웃으며 즐겁게 준비했어요.

솔직히 대상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송1리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다들 얼싸안고 너무 좋아서 울기도 했어요.

어르신들 덕분에 얻은 귀한 성과

이번 우승은 모두 우리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저는 경로당에서 세 번째로 젊은 편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셔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해 주셨거든요. 그 모습이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멋진 하송1리 경로당 팀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손으로 기록한 단종문화제

동네방네기자단은 12년 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신문으로 만들고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억에 남는 축제의 순간들

단종문화제 서포터즈 4기로 참여해 영월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직접 기록하고 남길 수 있어 의미가 컸다. 특히 야간 국장 행렬은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다. 외국인 관광객들과 사육신, 생육신 후손들이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함께 걷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무대에서 가수들이 역사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순간도 역시 인상 깊었다.

주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영월의 미래

서포터즈는 단종문화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문화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번 58회 단종문화제가 단순한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다가오는 60주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축제의 소중함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다.

영월의 문화 자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갈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영월이 주민 주도의 문화도시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네방네기자단은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모을 것이다.

고명진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관장



단종문화제 지역예술인 전시

영월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기획부터 전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주관하는 지역예술인 전시가 개최되었다. 단종문화제 지역예술인전시에서는 서각, 미술, 서예, 우표, 꽃차, 수석, 야생화 등 관련 총 9개의 주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영월서예협회

2012년 9월 창립하여 해마다 회원전과 그룹전 활동하였다. 모든 회원들이 대한민국 서예대전(국전) 등 수많은 공모전 수상 경력 보유를 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 문화의 으뜸인 서예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및 배움과 재능나눔으로 지역 사회 봉사를 해오고 있다.

영목회

2002년 1월 창립하여 현재 12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4년 동안 인사동과 영월에서 전시 기획전을 열고 있으며 한국화의 불모지였던 영월지역에 꾸준히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영월군수석연합회

1969년도 창립된 영월 수석회를 비롯하여 5개 수석단위회가 모인 수석인 연합회로서 매년 4월 단종제 행사시 연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합회 합동 탐석대회 및 자연보호행사를 하고 있다. 전국의 수석산지 중 최상류에 동강 및 주천강등의 최우수석산지를 지니고 있는 전국 시 군 단위 유일한 수석인 연합단체이다.

각심회

刻心會(각심회)는 서각 및 목공예의 전통문화 계승과 다양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07년 봄에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심회는 문화재수리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장배 선생의 지도 아래 2007년 가을 김삿갓문화제 기념으로 창립전시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2012년부터는 조복한·최홍식·엄재석 작가의 지도 아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제10대 윤상국 회장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월우취회

1990.11.28 창립하여 1991.4.5-7 제25회 단중문화제에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제58회 단중문화제까지 34년 동안 기념전시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군민 참여 방법으로 처음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참가로 하였으나 우표도안 10회부터 초등생만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450여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나 작품집을 발간한 작년부터 500여명 응모하였고 금년에는 582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예뜰미술회

1999년 “예뜰미술동우회”로 창립하고 2023년 “예뜰미술회”로 명칭변경. 정기적인 회원 작품발표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서양미술 창작활동과 시각예술 발전에 공헌하며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순수미술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모두 서양미술 창작으로 활동한다.





화이통협동조합

花而通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을 꽃으로 소통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1차 산업으로 꽃을 재배하고 2차 산업으로 꽃을 가공하여 꽃차 상품을 생산하고 3차 산업으로 체험교육관광으로 연결하여 6차 산업으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1차 재배, 2차 가공, 3차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현재 유급 직원 39명으로서 어르신들의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단종문화제에서 새로운 꽃차와 다식류를 선보이면 영월 지역에 꽃차 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고 소통이 잘되는 영월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효당서예원

1996년 4월17일 개원하였다. 2018년 4월 17일 차와 먹빛 전시, 2019년 3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상해서 영월까지 서예전 단종문화제 서예전 영월 미협 회원전에 전시하였다.

영월자원식물연구회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20여 년 전부터 동강할미꽃 보전 및 보급에 힘써왔으며 지금껏 동강할미꽃 및 자원식물에 대한 연구와 전시를 하여 지역 알리를 하는데 힘써오고 있다.



‘단종을 기억합니다’ 단종체험프로그램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체험

영월 마을선생님협의회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발적 교육문화 네트워크다. 2016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삶의 경험을 나누는 따뜻한 길동무로서 함께한다.

진심과 정성으로 준비한 프로그램

역사를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역사를 삶과 연결하도록 기획했다. 특히 단종 유배길을 따라 진행된 체험은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로 더 깊은 의미를 담았다. 모든 체험은 마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만들어졌다. 진심과 열정으로 과정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며 각자 전문성을 살려 배경, 소품, 동선,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직접 기획하여 만들었다.



기억에 남는 따뜻한 순간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마패를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담으며 함께 기뻐하던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이에요”라는 부모의 말은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잊게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 군등치 부스에서 여러 번 도전 끝에 성공하며 기뻐하던 모습, 작은 물 한 바가지로 손을 씻으며 물의 소중함을 깨닫던 모습 등은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체험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

체험 부스 자체도 의미 있었지만, 진짜 특별했던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진심으로 지역을 위한 마음 하나로 준비했다는 점이다. 축제에서 부스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종을 기억하는 정신을 공간에 심는 작업이었다. 이 공간을 방문한 분들이 우리 마을 선생님들의 정성과 애정을 충분히 느끼기를 바란다.

마을선생님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축제 현장이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과 역사, 사람을 잇는 일을 지속하며 영월다운 배움의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용선 마을선생님협의회 대표



단종을 기억하는 방울재

방울재는 단종이 유배길에 타고 오던 말이 방울을 떨군 데서 유래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과 관광객들에게 방울재의 유래와 단종의 유배길을 알리기 위해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각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체험 부스를 꾸몄는데, 평소 전래 놀이를 맡아온 나는 이번에도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단종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선생님들이 가진 바램은 우리의 재능을 아이들과 충분히 나누고, 아이들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찾아주어 뿌듯하고 행복했다.

영월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 나는 어릴 적 국장 행렬이나 칠줄다리기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단종문화제를 즐겨왔는데, 이제 마을 선생님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더욱 특별하고 의미 깊었다. 단종문화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자라는 곳이다. 앞으로도 마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단종의 역사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싶다.

신경주 마을선생님

재미있게 배우며 기억한 단종 이야기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에 맞춰 나무를 올리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체험을 했어요. 평소엔 잘 하지 않지만, 축제니까 엄마와 함께 해서 더 재미있었어요. 단종을 사실 잘 몰랐는데, 열두 살에 왕이 되었고 열일곱 살에 영월에서 슬프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월 사람들이 더 기억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해요. 마을 선생님들이 만든 놀이터에서 단종문화제를 잘 알 수 있어 좋아요!

김도영 (연당중학교 2학년)





따뜻한 손길 농촌의 생활을 개선하는

